

北濟州郡 涯月邑 今德里

現地學術調查報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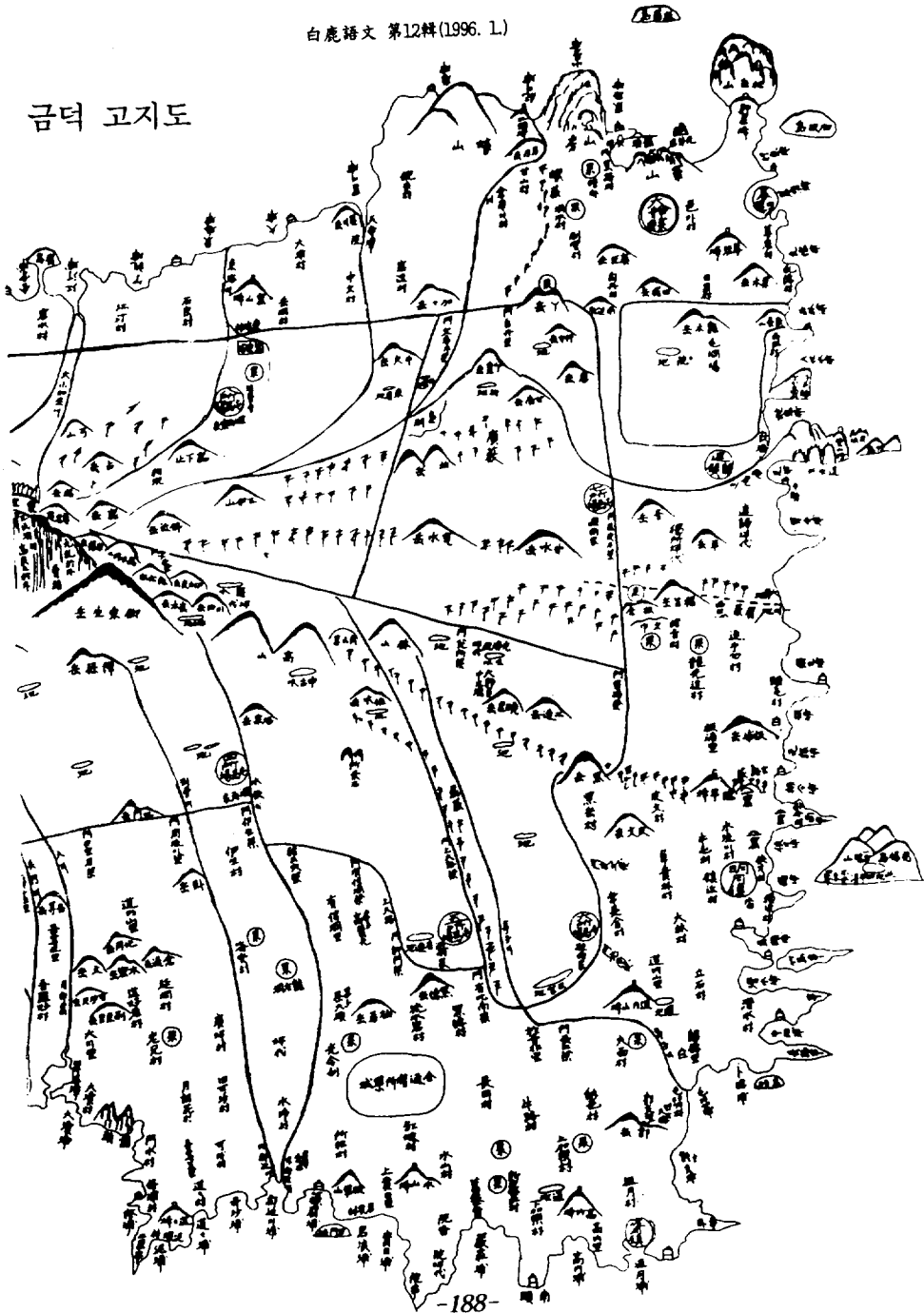
(1995. 8. 3 ~ 8. 6)

1. 調查經緯 / 190
2. 마을개황 / 193
3. 方言 / 199
4. 民謠 / 227
5. 說話 / 241
6. 信仰 /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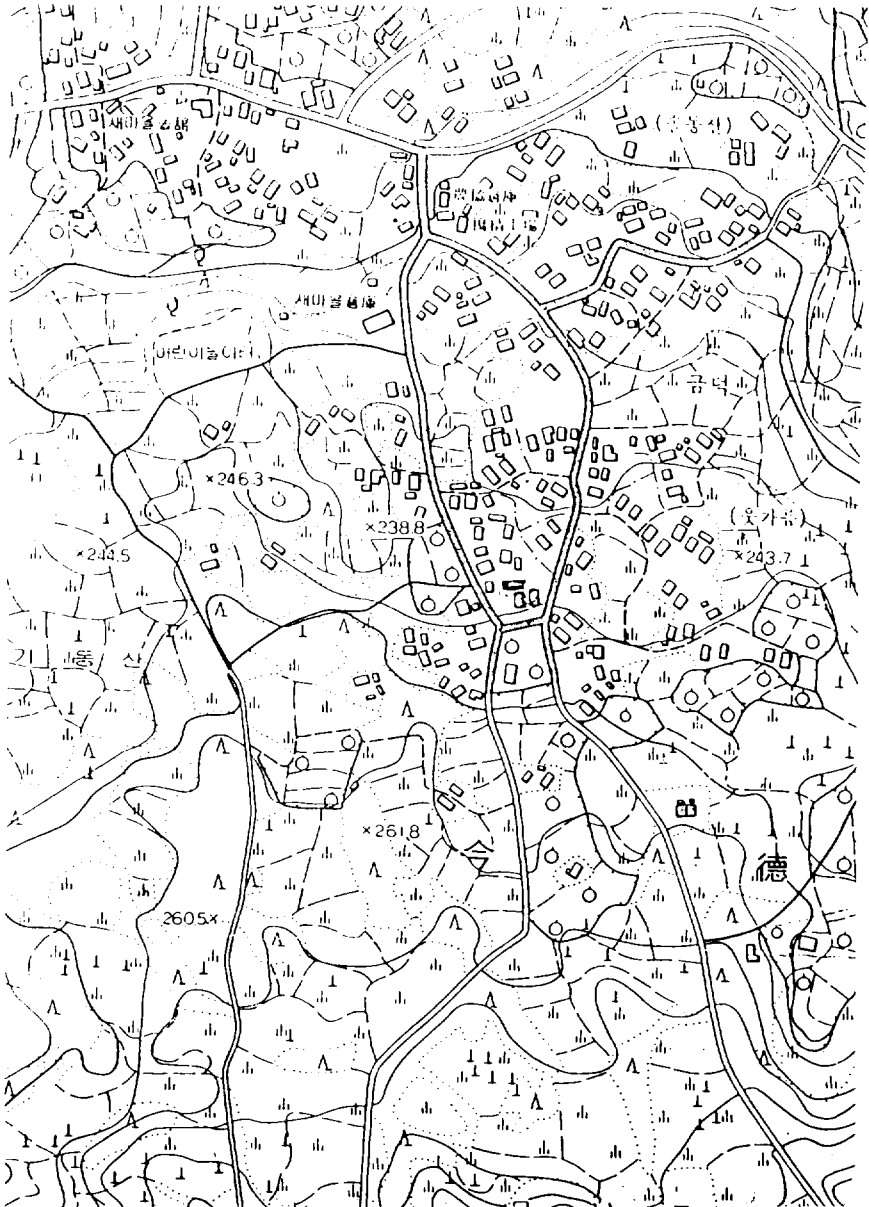


〈큰 물 流水岩泉〉

금덕 고지도



금덕 부근 지도



調查經緯

본 학과에서 매해 실시하는 학술조사는 제주도 각 지역의 방언, 민요, 설화, 신앙 등을 직접 조사함으로써 국어국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책상 앞에서 습득하는 단편적 지식에서 벗어나 실제 조사를 통한 산지식을 얻는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실시되어 왔다. 이러한 취지 아래 조사지점도(그림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76년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를 출발로 1994년 한동리까지 16차에 걸쳐 실시되었고, 이번 학술조사는 1995년 8월 3일(木)부터 8월 6일(日)까지 3박 4일 동안 북제주군 애월읍 금덕리에서 이루어졌다.

당초 조사 대상 지역으로 검토 대상에 오른 마을은 제주시 도평동, 북제주군 애월읍 금덕리 등이었다. 도평동은 제주시 관내에 있어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자료 인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에서 선정해 보았으나, 이미 많은 자료가 소실된 상태여서 조사 자료가 너무 부족하였다.

따라서 북제주군 애월읍 금덕리가 이번 학술조사지로 결정되었다. 제17회 학술조사지로서 북제주군 애월읍 금덕리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애월읍 관내에서 가장 큰 부락이던 곳이 현재 인구 800여명의 소부락으로 축소되어 점차 자료가 인멸해 가는 실정을 감안해서이다. 또한 마을을 둘러싸고 서부산업도로, 중산간도로 등의 큰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기존의 전통문화가 급격히 사라질 위기에 놓여 현존 자료마저도 쉽게 소실될 가능성으로 인해 선정하였다.

금덕리에 대한 사전답사는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답사는 6월 14일 학회장 및 학술조사 반장, 차장이 모여 리사무소를 방문하고 마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답사에서 현재 금덕리 마을지 발간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덕리 전역에 여러 개의 당이 있고 마을 포제가 행해지고 있으며 姜氏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姜氏 집성촌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7월 5일 이루어진 2차 답사에서는 마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금덕리가 속해 있는 애월읍사무소를 방문하였다. 여기서는 금덕리의 인구, 토지 이용 등의 인문, 산업 환경의 현황 파악을 했다. 마지막 3차 답사는 7월 12일 이루어졌는데, 이때 우리는 당의 위치 및 제보자의 전화번호, 집 위치 등을 확인하는 한편, 이장님 댁을 방문하여 마을에 대한 정

보를 얻었다. 또한 숙식 장소로 정해진 마을회관과 노인정을 둘러 보았다. 답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21면의 자료집으로 묶어 7월 23일자로 발간하여 조사 시에 참고가 되도록 했다.

조사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학과 재직 교수, 재학생, 동문이 참가하였다. 김태곤·최규일(방언), 윤석산·손오규·좌혜경(민요), 문성숙·안성수·강정식(설화), 현용준(신앙) 교수님이 분야별 조사반을 지도해 주셨고 그 밖에 장훈·고정상·오동식(방언), 임용진·이창우(신앙), 현승춘·변성구(민요) 등 여러 동문들이 도움을 주셨다. 조사반 별 참가학생은 아래와 같다. ()속은 재학 학년이다.

방언 : 고정미, 이수환, 현성미(3), 진주연, 김지영, 정현숙(2), 사중희경, 김효정, 신민경, 문승현, 부경실(1)

설화 : 강필재(4), 장미숙, 김미정, 양선희, 김소형, 양은미(3), 문경은, 양진, 홍은희(2), 김명희, 심금현, 신지향(1)

민요 : 이윤정, 양선아, 최정운, 강은심(3), 장은심, 정진, 김윤진(2), 강정희, 변숙자(1)

신앙 : 정루시아(4), 송상은, 김영희, 강지이, 이효정(3), 고경립, 고상수, 오영수, 김현주(2), 김소현, 홍경남, 윤선이, 김명수(1)

3박 4일 간의 학술조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 1 일(8월 3일) : 오전 9시 30분 학교에 집결하여 인원과 장비를 점검하고 10시에 학교 버스에 승차하여 11시 경 숙식장소인 금덕리 마을회관 및 노인정에 도착하였다. 12시까지 숙소를 정리하고 1시에 점심식사를 마친 다음 마을 개황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 후에, 2시부터 예비조사를 겸한 반별 조사에 들어갔다.

제 2 일(8월 4일) : 첫날의 대략적인 조사 성과를 토대로 하여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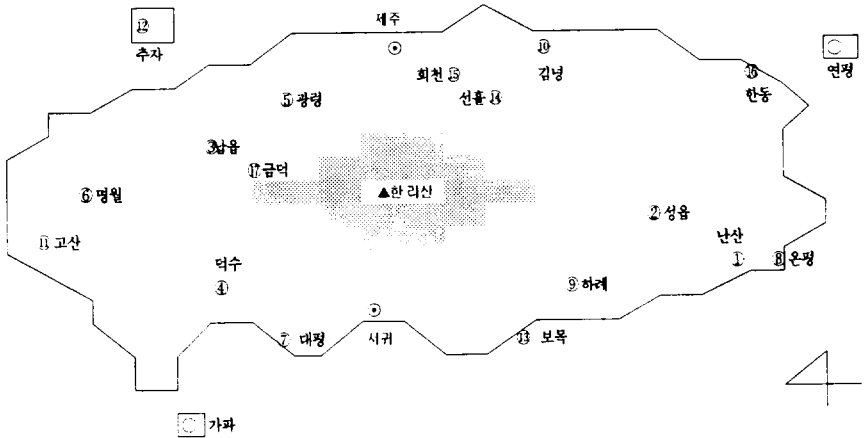
제 3 일(8월 5일) : 지금까지의 조사를 자체 평가한 다음 미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밤에는 전체적인 조사 현황에 대한 평가회 및 정리 시간을 가졌다.

제 4 일(8월 6일) : 미비한 부분을 보충, 마무리하고 오후 1시 귀로에 올랐다.

끝으로, 3박 4일간의 조사를 위해 선뜻 마을회관과 노인정을 빌려 주시고 조사

에 협조하여 주신 금덕리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또한 바쁜 생활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하셔서 지도에 힘써 주신 교수님과 여러 동문 선배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실질적 현장 조사를 이끌어 가고 원고를 정리하느라 고생한 각반 반장들 및 참석 학우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기존 조사지점도(1976~1995)



- | | |
|-------------------------|---------------------------|
| ①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1976. 8) | ⑩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1988. 7) |
| ②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1977. 7) | ⑪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1989. 7) |
| ③ 북제주군 애월읍 남읍리(1978. 8) | ⑫ 북제주군 추자면(1990. 7) |
| ④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1981. 7) | ⑬ 서귀포시 보목동(1991. 7) |
| ⑤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1983. 8) | ⑭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1992. 7) |
| ⑥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1984. 8) | ⑮ 제주시 봉개동 동·서회천리(1993. 7) |
| ⑦ 남제주군 안덕면 대평리(1985. 8) | ⑯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1994. 7) |
| ⑧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1986. 7) | ⑰ 북제주군 애월읍 금덕리(1995. 8) |
| ⑨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1987. 8) | |

마을 개황

目次

1. 자연환경
2. 역사적 배경
3. 인문환경
4. 산업환경

1. 자연환경

북제주군 애월읍 금덕리는 해발 200m 고지에 위치한 산간마을로, 애월읍 향파두리 서남쪽으로 2km 쯤에 위치하고 있다. 인접 마을로는 북쪽으로는 고성리, 수산리, 남쪽으로는 소길리, 서쪽으로는 장전리와 접해 있으며, 동쪽으로 약 2km 지경에 서부산업도로가, 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 중산간 도로가 뚫려 있다. 하귀에서 중산간 도로를 통해 들어오는 순환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 꼴로 운행되어 교통은 불편한 편이다.

마을은 크게 상동인 거문덕이와 하동인 유수암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중 거문덕이는 토지가 비옥하여 농사지로 이용되고 있다. 거문덕이는 과거에 매우 큰 부락을 이루었으나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수암으로 이주하거나 타지로 나가 부락이 소멸된 상태이다. 몇해 전부터는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금덕 개척단지로 선정, 개발하여 타지의 사람들이 이주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나 30여 가구에 불과하며 하동인 유수암과는 거의 왕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을은 한라산 중턱에 위치하여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형제봉, 극락봉 등의 얇은 오름들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그러나 마을 전체는 대체로 평지를 이루기 때문에 농사짓기에 적합하여 꿀, 맥주보리, 콩 등의 작물을 주로 재배하며 그 외에 녹두, 쌀보리, 고구마 등의 재배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 마을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샘이 많아 과거에는 식수 및 농업 용수로 유용하게 쓰여왔다. 마을 설촌 이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흔적을 보여주는 고다리물을 비롯하여, 고조물, 극락물, 어린더리물 등의 자연샘이 여러 곳에 있어 아직도 식수로 쓰이고 있다. 마을 남쪽에 있는 유수암은 바위에서 물이 솟아난다 하여 이름 붙여진 곳인데, 마을 형성의 바탕이 되고 마을 이름인 '유수암'의 연원이 되었다고 한다. 이 물은 가뭄 때도 마르지 않아 이 마을 식수 및 농업용수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들 또한 이 물을 신성시 여기고 보존하고 있다. 이 유수암의 바로 옆에 절산이 자리하고 있는데, 자그마한 오름으로 과거에 절이 있었다 하여 절산으로 명명되었다고 한다. 이 절산에 큰 당이 있었으나 새마을 운동 당시 파손되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마을 주민들을 위한 운동장이 닦여 있다. 이 산은 큰 팽나무와 무환자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지방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이 산과 유수암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마을의 다섯 방위에는 각각 동선돌(東), 서선돌(西), 모남돌(南), 왕돌(北), 솔동산석(中)이라 이름 붙여진 큰 돌들이 있는데, 마을 주민들은 이 오방석이 마을을 수호하여 액운을 막아주기 때문에 인제는 물론 역질이나 고질병이 없었다고 믿고 있다.

2. 역사적 배경

금덕리는 현재 上同인 거문덕이와 下同인 유수암이 같은 행정 구역으로 통합되어 있는데, 그 설촌 시기는 각기 다르다. 상동인 거문덕이는 효종 3년(1652) 편술한 耽羅誌에 의하면 고려 충렬왕 1년(1275)에 설촌되었다고 한다. 이 시기 수산평에 몽고말을 방목하게 되면서 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근처에 산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公馬獻納制度가 조선 정조 24년(1800)에 없어지면서 토지가 비옥한 이 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유수암은 지방 토호 홍덕수 좌수가 절산 북녘 기슭에 이 마을을 설촌하였고, 그 시기는 지금부터 5백 20여년 전 조선 성종 때이다. 그 이전에도 절산에 1300년에 세워진 千古寺라는 절이 있었다고 전해오는 것으로 보아 사람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긴 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다. 이처럼 거문덕이가 유수암보다 1백 50여년 앞서 설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문덕이에 부락이 없는

것은 식수가 풍부한 유수암이 살아가기에 용이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주해 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거문덕이에 거주하던 몇몇 가구들마저도 4·3 사건을 겪으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 버려 거문덕이는 아예 부락이 소멸된 상태이다.

옛날에는 유수암이 土族들이 사는 鄉村이었고 거문덕이는 武族이 거주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유수암과 거문덕이는 그다지 왕래가 없었고 혼인 또한 서로 하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 특히 유수암은 士林村이라고 자부할 만큼 높은 교육 수준을 유지해 왔고 과거에 급제하는 인재들이 많아 거문덕이를 약간 천대시 하였다. 유교적 분위기가 오랜동안 지속되어서인지 유수암의 민속 신앙은 그다지 발달하지 못한 반면, 천민층으로 인식되었던 거문덕이에는 큰 당이 서너 개나 되어 마을 당국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유수암의 당은 마을 부녀자들이 소박한 소망을 기원하기 위한 곳으로 존재하였고 그 당마저도 파괴되어 극소수의 부녀자들만이 작은 팽나무를 모신 당에 가서 소원을 비는 정도이다. 반면에 유교식 포제는 포제단이 잘 보존되어 있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을 내에서도 마을 포제를 중요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을의 유적지로 조선 시대에 활쏘기 연습을 하던 射場과 절터가 있다. 射場 유적지는 범이왓이라 불리는 곳에 있는데 과거에는 이 장소를 빌려주는 댓가로 儒接錢이라는 명목의 돈을 받아 서당의 운영에 썼다고 한다. 옛 절터는 현재 절산이 있는 곳으로 그 둘레에는 열매가 염주의 재료로 쓰인다는 무환자나무가 우거져 있어 옛 사찰의 흔적을 보여준다. 이 절은 지금으로부터 약 700여년 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조선시대 이형상 목사가 당 오백, 절 오백 개를 없애던 시기에 폐사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조선시대 말 그 자리에 極樂寺라는 절이 세워졌으나 4·3 사건 때 전소되어 버리고 고성리의 향파두리 근처로 이주하여 현재도 그 자리에 있다. 마을의 대부분 불도들은 이 절을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다고 한다.

금덕리의 마을명 유래를 보면, 하동인 유수암은 이 동네의 암석 밑으로 생수가 용출한다는 뜻에서 '流水岩' 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今德'이라는 마을 명칭은 '거문덕이(巨文德伊)'에서 비롯된 것으로 '거문덕이'라는 이름은 실촌 당시 문장가인 거물 흥덕수라는 좌수가 있었다는 데서 그 발음과 뜻을 본떠 巨物(巨) + 文章家(文) + 德이 있다(德伊) = 거문덕이(巨文德伊)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일제 침략 시기에 '유수암'과 '거문덕이' 두 마을을 행정 구역 상 하나로 통합하면서 '금덕리'라 호칭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거문덕이'를 한자어로 표기하면서 그 음을

따라 '금덕'으로 바뀌었다고 추측된다.

3. 인문환경

마을의 가구수는 252 세대인데, 농가가 248가구로 대부분이 농가인 반면에 비농가는 4가구로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표1>). 인구는 남자가 428명, 여자가 363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다. 특히 이 마을은 장수촌으로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40명 가량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촌들과 마찬가지로 이농 현상에 의해 젊은층이 도회지로 떠나거나 도시의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실질적 농사는 40대 이상의 연령층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동과 하동의 인구 분포는 상동이 40여 가구인 반면에 하동이 200여 가구를 차지하고 있어 하동이 절대적으로 많으며, 두 마을 간에 거리가 떨어져 있어 왕래가 드문 편이다. 특히 상동인 개척 단지에는 외지인들이 많아 마을과 관련된 일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표1> 인구현황 (단위:가구, 명, 1994.7.31 현재)

가 구			인 구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252	248	4	791	428	363

(애월읍사무소 제공, 1995. 8)

가호별 성씨 분포는 상동인 거문덕이 및 개척 단지에는 高氏와 金氏, 康氏 등이 중심이나, 전체 가구수가 40여 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정 성씨가 집중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동인 유수암 부락은 姜氏가 1백여 가구, 李氏 26 가구, 邊氏 등이 주된 성씨이다. 특히 이 마을은 강씨가 마을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강씨 집성촌의 성격을 띤다. 그리고, 대대로 훈장, 이장 등의 마을 유지를 주로 강씨 및 이씨가 맡아 왔다.

각 집안 간의 혼인은 마을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는 강씨와 이씨, 강씨와 변씨, 이씨와 변씨 끼리 많이 이루어지며, 금덕리 주변에 있는 장전리, 소길리, 고성리 등에서 며느리를 들여오기도 한다. 그러나 상동인 거문덕이 및 개척단지와 하동인

유수암 마을 간에는 거의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상동 마을 주민이 대부분 타지인으로 하동과 거의 왕래함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을의 집들은 유수암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으며, 마을 체육대회, 야유회, 경로 잔치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는 일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주민들 간에 단결심이 강해서 이 마을 출신이면서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유수암'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마을의 경조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특히 마을의 문화 사업에 마을을 떠난 주민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어 행사 때마다 풍성한 자리가 되도록 도모하고 있다. 마을의 단체로는 노인회, 부인회, 청년회, 在市流水會 등이 있어 주민간의 친목 도모는 잘 되고 있는 편이다.

마을 사람들의 생활권은 순환 버스가 왕래하는 하귀리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고성리, 소길리, 장전리 등에 한정되어 있고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제주시로 가는 날이 1~2 주에 한번 정도로 매우 적다. 시장 형성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환 버스가 다니는 하귀리에 서는 오일장을 통해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고 있다.

주택 구조는 거의 개량된 지붕이며, 슬레이트 집이 대부분이고, 대다수 가정이 현대적 문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문화 사업으로 1992년 현대식 시설을 갖춘 리민회관을 신축하고 여기에 리사무소, 회의실, 독서실을 겸한 새마을 문고, 경로당을 갖추고 있다. 보건소는 경로당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의 리민회관으로 쓰이던 건물은 창고와 감귤 선과장 등으로 쓰이고 있다. 그외에 마을 주민들을 위한 운동장이 있고, 1974년 마을 내에 도로를 닦는 한편 평선이마루천에 교량하였다. 이 시기에 전화 가설 사업도 이루어져 마을 내에 전화가 들어오게 되었고 도로 포장은 1981년에 이루어졌다.

주민의 종교는 80% 가량이 불교이며, 전에는 마을 내에 극락사라는 절이 있어 그곳에 다녔지만 그 절이 고성리의 향파두리 주변으로 옮겨지면서 신자들이 대부분 고성리의 사찰을 다니고 있다. 그외에는 대부분 종교가 없으며 마을 내에 교회가 없기 때문인지 기독교 신자는 한두 명에 불과하다. 불교신자는 대부분이 여성 신도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 내의 교육 기관은 없어서 학생들은 장전리에 있는 장전국민학교와 하귀리에 있는 귀일중학교를 다니며, 고등학교부터는 제주시로 진학하거나 애월고등학교를 다닌다. 과거에는 약 1백여년 전에 개량 서당이 설치된 바가 있었고 이조시대에 과거에 급제하는 등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한편 1922년에는 금명 서당이란 간

관으로 초급 학교의 교육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4·3 사건, 이농 현상 등으로 마을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취학 아동이 적어지고, 20여명의 학생으로 겨우 학교를 유지해 가던 금덕분교가 1993년 문을 닫게 되어 금덕리의 취학 아동들은 이 마을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장전국민학교로 취학하게 되었다.

4. 산업환경

마을의 토지이용현황을 보면(<표2>) 임야가 마을 전체 면적의 8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밭은 14%, 과수원은 3%로 농사의 대부분은 밭농사이다. 마을 소득 현황은 농업에 의해 얻어지는 소득이 전체 소득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농사 이외에 목축업 등의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소규모로 소를 키우거나 닭을 사육하는 농가가 서너 가구 정도에 불과하다. 농산물의 생산 현황을 보면 과수원에서 꿀을 재배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고, 과수원 외의 밭농사로 맥주보리, 콩, 쌀보리, 고구마 등을 많이 재배한다. 특히 대규모로 보리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으며 작목반을 결성하여 계획적인 재배 및 수매를 시행한다고 한다.

<표2> 토지이용현황

(단위:ha)

면적(호당 경지 : 4.8ha)				
계	전(田)	과수원	임야	기타
1,231	173	33.2	1015.8	9

(애월읍사무소 제공, 1995. 8)

참고문헌

강조성, 『유수암지』, 북제주군 애월읍 금덕리 발행.

白鹿語文學會, 『마을개황' 조사의 검토』, 『白鹿語文』第11輯, 1995.

재시유수회, 『유수암』 창립 25주년 기념호, 1994.

진성기, 『남국의 지명유래』, 제주민속연구회, 1975.

方言

차례

1. 동물	2) 잔치
2. 식물	3) 평상시
3. 농작물	7. 지명
4. 농기구	8. 부엌도구
5. 옷	9. 신체명칭
1) 노동복	10. 가옥구조
2) 평상복	1) 대문
3) 예복	2) 마당
4) 상제의복	3) 안채
5) 바느질 용구	4) 변소
6. 음식	5) 초집지붕
1) 제사	11. 기타

이 보고서는 북제주군 애월읍 금덕리에서 8차례 조사한 방언을 수록하고 있다. 대체로 의식주를 중심으로 어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외에도 동물, 식물, 농기구, 신체 명칭, 금덕리에서만 통용되는 지명 등 그 지역 방언들을 자세하고 다양하게 조사하려고 하였다.

방언 표기에 있어 혼란이 우려되는 형태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白麁語文』11輯을 참조하여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하였으나, 적지 않게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기는 우선 분철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인 범주에서는 연철을 사용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어휘에 대한 설명을 채록한 그대로 옮겨 적었다.

1. 동물

- 토끼 - 토끼
- 개미 - 개염지, 물개염지 : 까맣고 큰 것
- 매미 - 재열, 왕재열 : 큰 거, 음력 6월에 나옴. 풀재열 : 작은 거. 매옹재열 : 음력 7월, 양력 8월이나 되어야 나옴.
- 귀뚜라미 - 공중이
- 메뚜기 - 말축
- 노루 - 노리
- 박쥐 - 드람쥐
- 개구리 - 굴개비
- 청개구리 - 낭굴개비
- 맹꽁이 - 맹마구리
- 올챙이 - 멘주기
옛날 거문택이에 2월돌 3월돌 나민 천등을 하나 어땡흐민 멘주기들이 바글바글 잇어.
- 두꺼비 - 두태비
출밭딴 가그네 출락출락 뛰는 거 확 잡앙 쉼 먹으민 그렇게 맛좋아. 그계 두태비주.
- 지렁이 - 게우리
- 쥐며느리 - 쥐메느리
- 거머리 - 거물장
- 잠자리 - 밥주리
- 고추잠자리 - 고치밥주리 : 발간 거
- 굼벵이 - 굼병이
- 달팽이 - 돌병이
- 벌 - 벌, 왕벌, 사상벌 : 쫄딱훈 거, 청뿔, 땅뿔
- 송충이 - 솔충
- 풍뎅이 - 두매기
- 땅강아지 - 땅깨
- 병아리 - 빙아기

- 거미 - 거미
- 소 - 쇠, 부통이 : 솟놈, 암쇠 : 암놈, 밧갈쇠 : 밧 가는 거 굴아
- 돼지 - 도새기, 뉘야지
- 말 - 말
호달매 : 큰 물을 굴아, 워낙 커부난 아무집이나 들어가지 못 하여
제비빠 : 물에 몇 번 행 표시하여, 번호 가정강 이녁 적시 물을 얻어주기.
 물의 색깔이 열 가진데 색깔이 일등가는 물이 일가라, 이등 물은 이청충, 삼적
 다... 영 계속 나 가. 어멍 말그라 일가라엔도 하여.
- 닭 - 독, 수독/암독
- 제비 - 제비
- 개 - 개,
- 강아지 - 강생이 : 죽은 거
- 뱀 - 버염
- 구렁이 - 지랑흔 거
- 도출너리 - 물에 사는 물버염, 알록달록 흔 거
- 독사 - 물패기
 긴 건 보통 버염이고 죽은 건 물패기렌 하여.
- 만주웨미 - 노랑거
- 도마뱀 - 독다귀
- 개똥벌레 - 불잔디
- 하루살이 - 하루살이
- 지네 - 지냉이
- 물방개 - 물쇄
- 소금쟁이 - 물엿장시

2. 식물

- 해바라기 - 해바라기
- 보리수 - 불래낭, 밧볼래 : 길쪽흔 거

- 딸기 - 딸기
 백딸기 - 개염지탈
 산딸기 - 보리탈 : 보리철에 나는 거
 밀탈 : 보리철보다 조금 늦게 나는 거
- 개구리밥 - 물늑물
- 연꽃 - 연꽃, 연
- 누룩나무 - 녹낭, 약 하는 낭
- 목화 - 멘네
- 무궁화 - 무궁화
- 향나무 - 향나무
- 비자나무 - 비자낭
- 소나무 - 소낭
 황솔 : 색깔 붉은 거
 솔방울 : 솔똥
- 췌기풀 - 췌기풀
- 밤나무 - 밤나무
- 아카시아 - 아까시아낭
- 앵두나무 - 애영뒤
- 윤유리 - 윤누리 : 회초리하기 좋은 낭
- 인동꽃 - 인동고장
- 백일홍 - 백일홍
- 옷나무 - 칠낭, 독에 낭 딸렁먹는 거

3. 농작물

- 유름 - 줄갱이
- 참깨 - 꿰
 우리 손저메느리도 오늘 꿰 갈앙 가정이사난 “저전 무시저꿰?” 꿰도 몰랑으네
 하는 걸 보민 요새 사름들 사투리 잘 몰라.
- 고구마 - 감저

- 감자 - 지슬
- 억새 - 어욱
- 팽나무 - 폭낭, 폭납
열매 일름이 폭이주, 발갈게 익어.
- 메밀 - 모물
- 버섯 - 버섯
물똥버섯
산에 쉼똥에 물똥에 나민 해당으네 반찬해 먹으면 기가 막혀
독버섯 - 소낭버섯
표고버섯 - 초기
- 달래 - 평마농
- 호박 - 호박
호박 썰어농 숲앙 확 거렁 지름이영 장이영 하근 거 다 농 무청 먹는디 호박
은 껍기루 봐야 맛이 서.
- 콩잎 - 콩잎
- 깻잎 - 유입
- 쪽파 - 패마농
- 복숭아 - 복숭개
- 치자 - 치지
- 참외 - 참웨, 웨
- 박 - 쿡박
물 거렁 먹꼭 하는 거? 걸 국이렌 호주, 많이 싱경으네 톱으로 쌍 여물은 빼
두꼭 박세기 만들어서.
- 포도 - 포도
- 배추 - 누물
들머귀 : 대는 질꼭 영 퍼져서
호배추 : 철도 안 되그네 엇같이로 국 끌영 먹꼭 하는 거
김치 누물은 속 앓는 누물, 그냥 누물은 들머귀렌 호주.

- 상추 - 부룩
- 부추 - 췌후리
- 옥수수 - 강낭대죽
옥수수 열매 - 대직부룩이
- 콩 - 콩 : 메주는 콩 삶아그네 맨들어
완두콩 - 보리콩
장콩 : 된장 만드는 거
- 쑥 - 속
- 쇠비름 - 췌비눔
- 땀싸리 - 췌곤자리
출밖에 나는 거, 빗자루 곁은 거 맨들어, 췌곤자리는 씨리보다 덜 커, 출밖에 나
에 나곡 씨리는 집 앞에 심거당으네 빗자루 허영으네 구들 쓸어.
- 대 - 대
왕대 : 막작 굵고 춤대 흐는 거
수리대 : 그는 거
쪽대 : 대낭 상태가 빨간 거
- 피 - 피
- 엉정귀 - 머느리방석, 수왕이
막 큰건 왕수왕이, 작은 건 흑수왕이, 곡식밭에 나는 건 흑수왕이, 출밭에 나
는 건 왕수왕이.
- 잔디 - 퇴역
- 파리 - 푼철귀
따그네 동그락 동그락 흐곡 흐끔 시름한 거.
- 조 - 조
모조 - 모인조
차조 - 흐린조
- 이삭 - 고고리
- 낱알 - 보릿방울, 산뎃방울
- 고시락 - 고스락
- 벼 - 나룩, 나룩 : 눈에 심는 거, 산디 : 밭디 심는 거

- 쪽정이 - 줄래
- 녹두 - 녹디
- 땅콩 - 땅콩
- 쌀보리 - 술으리
- 길보리 - 길보리
- 맥주보리 - 두줄보리
- 들깨 - 유
- 싸라기 - 스래기
큰 쌀 부서지민 스래기 되여.

- 좁쌀 - 좁쌀
- 수수 - 대죽
- 사탕수수 - 사탕대죽
- 팔 - 풀
- 콩깍지 - 콩깍내기
- 고구마찌꺼기 - 전분주시
- 고추 - 고치
- 마늘 - 마농, 콤파사니
- 무 - 놉배, 무수

뱃기죽 뱃경 먹는 거, 열모는 봄·여름에 담강 먹는 거, 뿌리도 먹곡.
“뱃퇴강 초마기 멩 오라”, “어머니 초마기가 무시져 파?”, “크지 않을 때 무수
이파리 보곡 초마기렌 햏여”

- * 우녕 : 채소만 심은 밭 곶아 햏는 말.
동녘 우녕에 가그네 누물 햏 오라

4. 농기구

- 웨시랑 : 소굴은 거 똥 싣 거 거르는 거
- 물매 : 돌 버르는 거, 큰 거
- 돌웨역 : 돌드레 부쳐그네 독독 두드리는 디 부치는 걸 곶아
- 돌마계 : 돌웨역 두드리는 건디 죽은 거

- 돌차귀 : 가끄는 거
- 재자리 : 낭 곱게 가끄는 거. 똑 도치엔 헨 것 닳은 거. 낭으로 진진하게 우는 뜰아지곡 알은 넉게 햅영 햅는디 우는 낭이곡 알은 쉼로 되서.
- 나다 : 즈룩 그늘고 저편은 조금 넉곡 여즈들 무신 장작골은 거 햅래 가젠 허민 가정 가는 거.
- 툽
 - 대체 : 큰 거
 - 중체
 - 중걸이 : 대처보다 햅끔 그는 거
 - 소퉁 : 마주 영도 햅곡 혼자도 햅곡
- 곡괭이 - 곡괭이
- 삽 - 수금푸
- 호미 - 굴괭이
- 낫 - 호미
- 줍파
- 되 - 뉘악썰기. 햅 뉘악썰기만 낭 밥 햅라.
- 체 : 큰 거 걸르는 거 얼맹이, 구멍이 큰 거. 대체는 그 다음 거고
 - 가림체 : 큰 알 허곡 반에 쪼개진 알 허곡 가려내는 거
 - 좁진체 : 가루치는 거
- 키 - 푸는 체. 풍기역할 햅는 거(풍기대력).
- 가위 - 그새
- 설레 : 보리 말릴 때 뒤집는 거
- 명석
 - 그래명석 : 그래 놔 가지고 거기에 여럿이 앉앙 햅여
 - 지지개 : 곡석 곱은 거 해당으네 도깨로 퍼그네 스방드레 튀지 못 햅도
 - 룩 건 새로 해그네 옆핀 중간에 대 햅나씩 놓으면 그걸 곱아.
- 맷돌 - 그래
 - 손잡이 - 그래츄룩
 - 고랫중수리 : 그래 웃티 햅곡 그래 할티 가운데 나을 찢른 거
 - 고래 웃착 : 그디 파그네 햅쪽으로 고망 터정 곡석 놓 갈아

고래 알착

- 물방애 : 왜나 물이 흐시는 거
- 남방애 : 나무로 파 가지고 나무에 묶어서 써.
- 보리클 : 보리 비영 오민 쉘 영 곳쪽하게 된 걸 마당에서 보리를 쉘살드레 낱 잡아 땡기는 거
- 도깨 : 콩이나 녹디 굵은 거 두들기는 거, 도깨보민 손 잡는 디 보민 솔진낭 으로 허영 진 건 도깨 어시 그는 건 도깨아덜 이랜 하여.
- 곰배 : 잠대로 해그네 밧을 굵아 놓으면 씨 뿌리젠 허민 흙들이 병땡이 정 씨가 안 좋아. 병땡이 부시는 거. 주룩 질게 해그네 나무토막 께영 하는 거
- 마깨 : 손잡인 그는 거 초신 하는 디 이용하곡 집들 이젠 허민 이용하곡.
- 덩드렁마깨 : 돌 해그네 짚 낱 독독 두들기는데 씀
- 사다리 - 삼태
- 삼태기 - 굴채
- 쟁기 - 잠대
- 따비 : 장기굴이 생겼는데 새 밧을 일구었으네 밧 만드는 거
- 뱀줄래 : 깊숙이 들어간 돌을 옴파내는 거
- 철래 : 굵은 역할 하는 거
- 작대기 : 깨에 거는 거. 스름 되는 던 검부래기 굵은 것도 확확 글쟁이로 거 리곡 허는다.
- 망대기 : 셋기로 영 엮어그네 곡석 담는 거
- 부께기 : 종자 저장 해놔주기게
- 섬피 : 무털 갈 때 씨를 뿌리른 브롬 막 꺼그네 푸덜푸덜 해진덴 안 좋덴 해 그네 즈른 낭들 여러개 거러그네 그 우테 돌땡이 낱 흐시는 거
- 발태 : 밧 볼릴 때 쓰는 거. 우마신디 스용 안 하곡 회천에 우마 어신디 스 용해서. 그걸 막 하민 땅이 편편 해주지게.
- 땡망땡이 : 씨 굵은 거 와그네 두르땡 뿌렸주게
- 땡땡이 : 나룻낭, 산디낭으로 그걸로 해그네 해영 좀진 곡석은 죽은 거에 담 는 거
- 자가 : 걸름착, 걸름 싣그는 거
- 찻부지 : 땡땡이 두개 허영 조 굵은 거 담양 소 양팬에 하나씩 지민 두개 해

그네 이쪽 저쪽 묶어그네 싣그는 거

· 지게 - 지게

노갈이랜 혼 낭이 제일 오래가. 아무낭이나 잘 꿰질 안 혼여. 부러져 붙어. 그 낭이 아주 두물지게.

① 대여쟁이 : 대로 혼 거. 산촌드렌 그거 안 혼곡, 해변드레 사는 슝름 들은 그거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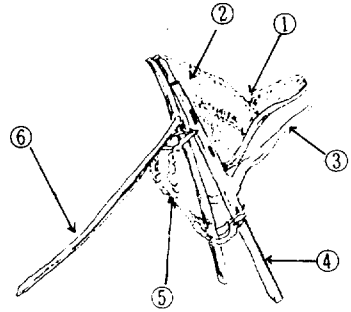
② 지게살

③ 지게가지

④ 지게부출

⑤ 지게천 : 슝름 걸머질 거

⑥ 지게바툼 : 쓰러지지 않게 바투는 거



5. 옷

1) 노동복

여즈들 일허러 갈 맨 대못 감들인 옷을 입엉 갖주. 옛날 여즈들은 영 혼곡 이 디(허리 부근 가리키면서) 손디물 구멍을 내그네 옷을 해 나셔. 몸그리우른 글로 디물영 몸 글곡.

· 갈적삼²⁾

· 굴중이

· 갈중이 : 갈중이 만들젠 혼믄 미낭에다 감물을 들여사주. 그때 감 뵈첸 혼믄 그래 앓정 그는 도고리 거기서 방뱅이로 영영 뵈고, 남군에선 도고리에 뵈지 안 허영 남방애 그디서 행 가정들 가곡.

2) 보통 남자용 저고리와 같은 형태이며 홉겹으로 만들어 고름을 달지 않고 돌마귀 단추를 달고 동정은 없다.

- 갈옷³⁾
- 적삼 - 등지계

2) 평상복

- 고쟁이 - 고장중이
- 팬티 - 소중이
- 두루마기 - 후르매 : 평상시에 그냥 입어 다니는 거
- 모자 - 모저

말총으로 후영 모저 만들어 놔주게. 옛날엔 많이 팔앙 집도 사곡 밭도 사곡 해주게.

입저 : 입저 영 씨그네 제스 때도 절 후곡

망긴 : 옛날 하루방들 망긴 영 해낭 입저 씻주게

탕건 : 옛날 모자해영

방립 : 상 때 쓰는 거, 오물럭하게 꼴랑 나쁜 건 바리지 말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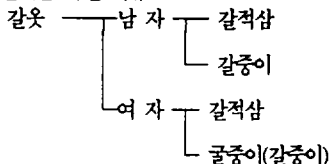
삿갓 : 대로 지은 거

큰 삿갓, 작은 삿갓 짓주. 큰 삿갓 씨그네 검질 굵은 거 매는 디 여러 사람이 굵이 아장 못해서. 좁아그네 서터 안자서 일도 해놔주.

패랭이갓 : 일 후래 갈 때

패랭이도 두 가지라서. 패랭이가 패리주게. 보통 사람 쓰는 건 대로 해난 톱툼 나주게 새패리도 두가지라. 상제 패랭이 작게 해그네 상젠 어디 나갈때 똑 그 패리를 써서 두건 쓰꼭 두건 위에 패리를 썩 갖주게. 경 후곡 그 위에 방립이랜 혼 건 굵은 거 바래지 말젠 써서.

3) 제주도 농민의 전형적인 노동복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고 서민들의 평상복이라고 할 만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의류



고부자, 제주도 복식의 민속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71.

육언 : 거멍헌 거 대맹이 쓰는 거

멍것 : 너르게 행 일 홀 때 씨 채터력으로 영영 문질른 건 털멍것, 정동으로 만든 건 정동멍것

· 바지 - 바지

· 아기옷 - 지성치매 : 허리만 졸라 매영

노보저구리 : 우의 영 입지는 거

물애기들 베로 만든 붓디창 따나민 그걸 입져. 혼 열흘 입져야 혼여.

기저귀 - 지성귀

베로 만들영 알 터진 배부르기도 입지고

· 요람 - 구덕

대구덕 : 대로 해당, 대로 숲양 “웁이 자랑 웁이 자랑” 흥명 잠 재완.

· 비웃 - 우장 : 남자 어른들은 새로 해영 주랑주랑 입영 다녔져

삿갓 : 대로 만들양 할망들이 썩 다년.

· 버선 - 보선

· 짚신 - 초신

옛날에 고무신이 어서서. 날 존 날은 초신 사당 신곡 비온 날이나 겨울엔 나막신 신어서.

창신 : 옛날은 췌가족 해영 바짝허게 지름 볼르곡

가족보선 : 눈이 많이 오민 산에 갈 때 그거 신영 가서.

가족옷 : 후루매그치 혼 옷

· 도시락 - 약도리 : 가방그치 밥 놓 가는 거

동고량 : 대로 만든 동고량에 밥 걸영 약도리에 드리창 다녀서.

3) 예복

· 명주 치매 저고리

조패치매민 조패배치매 소고배 입곡 우이 맹주치매 입곡 또 명지저구리 입곡

우이 저구리 입곡 장옷해영 입곡.

동전 - 동전

깃 - 깃

고름 - 곶, 곶름

저고릿 골롬 - 진곰 : 긴 거
작은곰 : 작은 거

치맛 골롬

배래 - 우머니

소매 - 손도매

- 새각시머리 : 놈의 머리 찌른 걸 많이 빌어당 질게 양가달로 길게 따왕 묶연.
*민머리 : 새각시머리 하기 전에 땀은 머리주. 당기도 드리곡 흥연.
총각머리 : 어멍들이 빗전 다와 쥐.
전지머리 : 시집장 이녀으로 갈라 따왕 언 전. 빈네 꽃안.

4) 상복

- 제복 - 도복 : 제스 때 큰 웃웃 영 해영 떠 해영 졸라매는 거
상재들 다 제복 입곡, 사위흥곡 손지들은 그냥 두룩마기 입어. 두룩마기랜도
흥곡 시미웃이랜도 흥여
- 행견 : 발목에 차는 거. 행견 차문 끄내기 매연
- 다림 : 다리 졸라 매는 거
- 띠 : 허리에 졸라매는 거
- 건대 : 상재 우의 쓰는 건 건대렌 햇주게. 건대렌 흥 건 전삼후스라. 그디 우
의 영 이디 고비고비 흥주게. 앞으론 시 고비를 우므리고 뒤론 니 고빌 우
므령 앞은 시, 뒤는 니, 경흥난 전삼후스.
- 지팽이
왕대 : 아방 죽으민 왕대
머쿠슬낭, 머구낭 방장대,
상죽대 : 어멍 죽은 건, 어멍이 주식 키우젠 흥민 어멍이 힘 들엇주게. 어멍
이 겿 맥이곡 돌앙 늙곡 흥난 허멍은 늘 언제든지 잊히지 아니흥난 문뜰
락흔 머구낭 지팽일 흥곡 아방은 무디무디 그자 생각나주. 모작모작흔 지
팽일 영 흥데.
수리대 : 손조들은 수리대

5) 바느질 용구

- 바늘 - 바늘
바늘도 큰 바늘, 작은 바늘이 서.
- 바늘귀 - 바늘귀
- 바늘쌈지 - 줄래, 바늘 줄래
- 다리미 - 다루워, 다리워 : 우의 영 솟불 담아 낱 씨.
- 가위 - 그새
- 인두 - 윤디, 윤뒤
- 골무 - 골메
- 다듬이 - 다데미, 다르미

6. 음식

1) 제사 - 시끼

① 떡

옛날엔 무밀 갈앙 새미떡 허어나곡, 쌀 갈앙 인절미, 보리쌀 곶아다가 고살고 살 동그랴하게 맨든 건 절뻔, 따시 영 허영 만든 건 솔벤이곡 지름떡 잇주. 새미 떡은 동그랴 흰 돌 그드덴 허영 새미떡인디 영 허영(등근 것을 반으로 접어 반달 모양이 되고 윗부분만 손자국을 내어 주름지게 만든 것) 맨든 거. 좁쌀로 혼 건 침떡, 곤쌀로 혼 건 쯤떡.

* 고적 : 영장 나그네 가져 가는 떡

물떡 : 동그랴하게 큰 거

돌레떡

- 존떡, 존팬 : 새미, 인절미, 솔벤, 곤떡, 절뻔을 보곡 경 곶아서.
- 시루떡 - 솔기떡, 쯤팬, 침떡

옛날엔 저 여편을 가리켜 쯤팬이렌 해서. 우리 옛날에 시끼할 때 좁쌀 많이 갈지. 그거를 명질 돌아오민 좁쌀을 물에 켜서 뽀사서 감저도 썰어 농곡 그런 걸 침떡이렌도 해서.

장사치렁 묻으러 갈 때는 잔잔혼 떡 인절미, 망인들 앞에서 귀신들 앞에 올리 는 거.

· 친떡 : 생사름 먹젠 조로 영 친 떡이고, 음복헌젠 혼 거고

② 과일

- 유자 - 유즈, 유지, 땡유지. 옛날에 땡유지흔든 두 개민 두 개, 시개민 시끼 올려서.

· 밀감 - 미깡(일본어)

③ 적 - 적갈

· 소제기적

· 목적 : 무말썽 갈양으네 술에서 썩어그네 영 놔두민 그것이 얼르지. 얼르민
그것 거러그네 줌줍흔 게 목적이라. 둠비ㅎ영 둠비적도 ㅎ곡

· 도야지 적갈

· 생선 - 바룻궤기 적갈

④ 채소

· 콩늬멸

· 호박도 넘적넘적 썰영 올리곡

· 고사리 - 고사리

* 메 - 제사 때 올리는 밥

갱 - 제사 때 올리는 국

제숙 - 적갈그슴 : 생선, 조기, 각재기도 올리곡

· 도량서적 : 큰 제 ㅎ는 건 도량서적이랜 ㅎ주. 나륙, 산뒤, 기장, 귀 그걸 옛
날은 큰 제 허렌 ㅎ민 그걸 췌주게.

2) 잔치

계란이나 숲아농곡 도새기 잠곡 전 지지는 건 무말썽 갈양으네 그루허영 요만
씩 요만씩 둥그락하계 ㅎ영

· 식혜 - 감취

골로 ㅎ영 감취 만들앙 그걸 걸렁 딸렁 올리는 거

골농곡 줌썰 허영 밥허영 낭 쉬영 제사 때 쓰는 거.

· 술 : 국물을 골양 칭취렌 ㅎ곡 건데긴 탁배기렌 골아

소주 - 탁근 술, 소취

곤술로나 보리술로 만들앙 담아농당 고소리에 앓정 다흐는 거.

청주 : 줌썰을 돌그래로 골양 물 미지근히 데왕 그 큰 다라에 놔서 서경 끈

탁끈탁하계 막 찌영 차롱착이나 천막 둥글탁흔 거에 낭 막 불랑 물리왕

음력설이 돌아오는 날 탁탁 부수왕 줌썰 골양 물궤왕 줌썰 쩍 오메기떡

만들앙 숲앙 막 시경 막 둘라낭 오메기 찌낭 그를 낭 문딱 쩍 항아리에

담양 혼 돌이나 두 돌 지나 청주가 문딱 골라앉아.

3) 평상시

① 국

- 갈치국 : 호박농국 갈치낱 끓이는 거
- 죽국 : 밀가루 호박잎에 서경 끓인 거
- 물웨장국 : 물웨허영으네 웨국 먹어
- 누말국 : 썩 누말국허곡 동지 누말국이 이서
- 놈배국
- 된장국 : 된장 또끼 혼 순가락 끊어 잠통에 낱 이제 물결어 강 콩잎뽕양 낱
그걸 된장국더래 박박 모지려 낱 그것에 밥 몰양 먹언
- 미역냉국 - 메역냉국
- 툄냉국
- 양애국 : 양애를 허곰 어릴 때 된장 낱 끓여도 맛있곡, 양애간을 소금에 절였
다가 전정 물 빠주와 텡 이젠 또시 장물 낱 허민 이제 일년씩 이년씩 먹언.

② 나물

뭇 골아다가 쯤질게 썰어그네 양념 무친 거 차반(자반) 맨들어 먹언.
겨울엔 집지도 허곰 담양떡곡

③ 밥종류

미녕 그른 거 짜곡 조상썰 만들양 배틀로 허영 짱 그 미녕 허영 아장 함덕,
조천 저 어디 신촌 근처에 두 빌씩, 몇 빌씩 빌루로 정 강 그것을 강 문딱 풀양
썩쌀이곡 보리쌀이곡 두 돌씩 상 왕 경 행덜 살앗수다.

- 보리밥 : 옛날은 술으리도 아니 길보리허영 비영 물렁 도개로 낱차 마당에서
막 패와그네 낱차 두드렁 그 보리를 민딱 동글라낱 방애정 먹언.
- 감저밥 : 서숙쌀 허곰 갈아당 감저 심경 감저 많이 썰어농곡 이젠 그 썩쌀
보리쌀에 낱 밥허영 먹는 거
- * 옥돌기 : 소도 비어당 주곡 허는디 먹는 거
- 쉬논밥 : 콩 논 밥을 쉬 낱 밥했져
- 곤밥 : 이젠 쌀밥이렌 허지만 전인 곤밥이렌 허엇주.

④ 반찬 - 출래

- 마농지. 쨌쨌하게 물렁 훈 건 생기리, 통으로 허영 훈 건 놉배지.
- 페마농지
- 쉼후리 : 데왕 무청 먹언
- 콩지
- 동지집치
- 썸늬멸김치
- 츠마기집치
- 드룻늬멸 집치 : 츠마기 닳은 거, 봄 나가문 허여당 소금물에 절엇당 보리홀 때 먹어.
- 퍼데기집치 : 속 안 앓은 배추를 굴아 퍼데기렌 허주
 놉배 나불나불 썰어놓 하는 건 물집치, 통으로 몽텡몽텡 썰어놓 하는 건 통집치.

⑤ 군것질

- 빼따기 : 감저 썰엉덜 물렁 물웃젓당 숲앙 먹언.
- 보리범벅 : 생보리 굴앙 체로 쳐 똥 이 아래 거는 감저 썰어놓곡 이젠 그 7 를 놓곡 허영 막 숲아 감저 익어가민 짓는 남죽으로 막 짓엉 끈닥끈닥 하게 버무렁 먹는 거
- 모물범벅 : 이거엔 무수 썰어 노민 더 맛 좋아
- 조범벅
- 피범벅
- 밀7를 주배기
- 모물 주배기
- 보리 주배기
- 보리개역 : 여름에 물에 놓 먹으면 맛 좋아. 술우리 개역은 맛 어서.
- 송늬 - 송늬
- 쉼다리 : 밥 쉬민 누룩 닥닥허영 영 굴앙 뜨신 디 낫당 바글바글 허민 쉼다리 되는 거

7. 지명

- 1) 칭드르 2) 잔목, 앞밭가름 3) 잔목이랜도 ㅎ곡 앞밭가름이랜도 ㅎ여
 4) 알너븐 밧 5) 보석코지 7) 세기왓
 8) 동카름, 신개무덤

여기가 옛날에 신군수(신철주)네 무덤인 모양이라. 경 ㅎ난 신개무덤이랜 ㅎ여. 이젠 동카름이랜 허랜.

- 9) 팽선이 무를 여피 내천이 서 10) 고비왓
 11) 웃너븐 밧 - 여기가 극락봉드레 가는 길
 12) 짐사니 밧 - 웃너븐 밧 조금 우에 가야 짐사니 밧
 14) 묵은 물 - 물이 어신디 묵은 물이라 밧이름인디
 15) 감남밧 16) 흐리물 17) 막거리 18) 벌언못
 19) 인낭굴 20) 가매귀물 21) 거수물 22) 소남밧
 23) 솟바리 24) 모남돌 25) 엉밧 26) 속밧
 27) 보릿즈베기 28) 포젯단 30) 정좃동산 31) 논골왓
 32) 버디남밧 33) 사장밧 34) 증밧 35) 문주왓
 36) 덕훤동산 37) 문춧밧 - 조꼬티 문개무덤 이신 모양이라
 38) 문주왓 39) 고주물 40) 비캐왓 41) 염장굴
 42) 진밧 43) 속서니굴 44) 뱃밧길 45) 당카름
 46) 진지리밧 47) 문골왓 48) 든물동산 49) 화생이
 50) 팽이왓

8. 부엌도구

- 남죽 : 음식 젓는 기구
- 시리 : 떡 찌는 기구라, 구멍이 승승 뚫린 거. 구멍막는 걸 시리마개렌 곶아.
- 시릿증, 쳇망. 솔잎 뽑아다가 쳇망 낭 저민 깨끗하게 삶아주곡 ㅎ여
- 채롱 : 곤떡허른 물에 시청 담는 거. 큰것 곶앙 대채롱이렌 허주
-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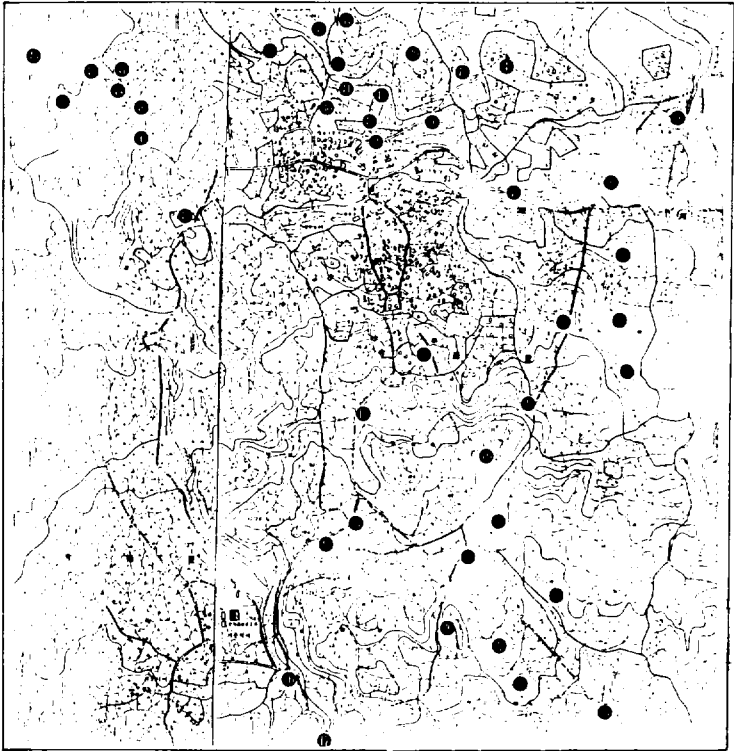
밥상

문전상 : 문전제 지내는 상

ㅎ끔씩 ㅎ 거 도리상, 동글락 ㅎ 거, 웃어른 신디 그걸 출려 농곡 아래사람은 아래서 먹어서.

모셋상 : 할머니, 할아버지 쳇상을 차리민 그 앞에 촛불도 농곡 ㅎ는 상, 모

今德里地名圖



세 접시에 고사리 농곡 허여

9. 신체 명칭

- 머리 - 대맹이
막 대맹이 아판
- 머리카락 - 허운데기. 화나민 허운데기 매멍 씨와
뚝슬머리 : 꾀작꾀작흔 머리
굽슬머리 : 머리가 꾀글꾀글흔 거
- 새치 - 사치.

어멍이나 아방이 머리가 허어나흔 아이도 그런 거 물려마썸.

머리 흐끔 길어가흔 머리끝댕이가 삐죽삐죽나왕 제비생이굴이 감아정 올라오
곡 흐연

부모가 돌아갈 때는 배울은 어멍 안흐곡 모시울이 흐끔이라도 들머는 자손들

- 이 흰머리가 는덴 허주 부모가 돌아갈때민 명심해사주.
- 뒷통수 - 뒷대맹이. 요놈 공부도 잘 허켜. 뒷대맹이 튀어나그네
 - 이마 - 임댕이, 이맹이
 - 가마 - 가매, 상가매
 - 얼굴 - 낫
 - 눈투막 : 눈을 곱아
 - 눈썹 - 눈두계썹
 - 속눈썹 - 눈썹
 - 미간 - 눈두새

두 손가락 영 행 (미간 사이를 대면서) 두개가 오소록 허명 남으민 마음이 막
넓은덴 옛날 할망들이 우리 창선이 나난 왕 방, “어따 요놈 믿음 넓으켜, 눈두새
가 널찍허다” 우리 창선이 믿음이 커.

- 수염 - 시엄
- 턱수염 - 녹대시엄
- 털 - 터럭
- 점 - 점
- 사마귀 - 사막
- 기미 - 짐
- 주근깨 - 끈리춤
- 주름살 - 주푸래미. 옛날엔 주푸래미 젓던 허여
- 쉬 - 쉬

니엔 혼 진 때로 되는 거곡 베틀이엔 혼 진 사툼 줌자는디 몸지랭이에서 솟
아나는 거곡

- 베틀 - 베틀
- 치아 - 니, 니빨리
- 잇몸 - 니엄
- 비듬 - 비듬
- 혀 - 세
- 입천장 - 웃하늘
- 목젖 - 목젖

- 콧구멍 - 콧고망
- 인중 - 콧닛. 인중길은 명 질댄 허여
- 귀밑머리 - 솔작
- 보조개 - 보조개
- 눈동자 - 검은동자
- 코 - 코
- 볼 - 볼타귀
- 뺨 - 뺨암
- 광대뼈 - 볼뼈
- 입술 - 입술
- 턱 - 턱알이
- 아래턱 - 알턱알이
- 목 - 야퀘기. 머리 먼저 굽아야 시원하게 야퀘기영 짹짹 밀어알 건디
- 목울대 - 모꾸레팡, 야퀘기팡
- 귀 - 귀
- 콧구멍 - 콧구망
- 어깨 - 독찌. 어깨와 목사이를 울둑찌랜 굴고, 그 아래를 알둑찌랜 허여.
- 팔 - 풀
- 팔목 - 흘목
- 팔꿈치 - 풀고비
- 손금 - 손그릇
- 겨드랑이 - 젓쟁이, 젓강이
- 윗팔 - 끈은 등, 끈은 풀
- 엄지손가락 - 엄지손가락
- 검지손가락 - 안주웨기. 안주웨기는 영 안 주는 거
- 가운데손가락 - 상손가락
- 약지 - 노니웨기. 이걸 무스거 잘 못하는 거, 노는 거난, 일하지 못 하는거
- 새끼손가락 - 새끼손가락
- 엄지손가락 두새
- 상손가락 트멍

- 손바닥 - 손바닥
- 손등 - 손등어리
- 손뚝 - 손뚝
- 힘줄 - 씬줄
- 가슴 - 가슴
- 가슴뼈 - 가슴팍
- 젖 - 젖, 젖통
- 젖꼭지 - 젖고고리

젖고고리 고양이네 아기도 곱다. 지랑한 젖을 차비젖이랜 허곡 툇 붙은 건 가
지깁이젖이랜 허여, 젖이 지랑흐른 여물이 아이 난댕 허영 가지깁이젖이 더 좋댄
허여, 옛날에 뉘사 놓는 걸 가지깁이랜 허주.

- 갈비뼈 - 갈리
- 명치 - 오모승이

할망 이저 보라. 죽아도 등땡이 굽어부난 움막하게 들어부린, 거난 막 아파.

- 등 - 등땡이

등땡이도 이녁으로 영영 헤신고라 요디 거명헌 거 안 벗어져서. 이녁으로 영
영 허당 말아신지사

- 등뼈 - 등팍. 체 흘 때 등팍 강 싹싹 내리믄 좋아
- 배꼽 - 배똥
- 엉덩이 - 엉덩파기, 엉덩치, 엉치, 엉둥이. 아이들 말 안들어가민 엉덩파기
때리주
- 허리 - 허리뼈
- 항문 - 똥고망, 똥구녀
- 여자생식기 - 잠지
- 허벅지 - 허벅다리
- 정강이 - 끈은정강이, 끈은팍
- 종아리 - 쥐술
- 무릎 - 독머리, 종애
- 복사뼈 - 안귀마리 : 안쪽에 있는 복사뼈 지칭
- 밧귀마리 : 바깥쪽에 있는 복사뼈 지칭
- 뒷꿈치 - 밧치기

- 엄지발가락 - 엄지발가락
발가락을 차례대로 흐민 엄지발가락, 상발가락, 안주왜기발가락, 노니왜기발가락, 새끼발가락이런 곱아.
- 발바닥 - 발바닥
- 발등 - 발등어리
- 빗장뼈 - 가슴팍
- 목올대 - 목구래팍, 아케기팍

10. 가옥 구조

제주에 사름들 처음 들어올 땐 스방이 전부 큰 낭이랏젠. 그 때 일은 모르주게. 그자 웃어른이 곱은 거 들어서. 그 큰낭의 가지 곱은 것도 스방들에 영 흘 거 아니라. 그 낭에 사름이 살아났젠 허여. 정 허당엔 츠츠 허영 그 낭으로 집을 짓는디 이젠 니 귀에 땅 파그네 낭을 꽃아그네 그 위에 집을 지엇주. 그건 말콧 집이런 허연. 심근 지등을 말콧, 말콧 해주게. 정허당 츠츠 그 후로는 생깃, 생깃 이런 허든 가운데 낭을 크게 허꼭 나머지 니 귀에 낭을 허꼭 행으네 아래 돌로 아주 곱게 행으네 돌 위에 낭을 새워서. 이 돌을 주치런 허여. 낭들이 강드레 가든 썩어불주게.

1) 대문 - 이문

옛날은 돈 엇은 사름은 것도 못해서. 집 지영 혼 간은 비양 혼쪽은 사름 살고 혼쪽은 공간으로 행으네 이문이런 해주.

① 행정낭 - 쉼 묶으는 낭

셰막이엔 허민 이쪽은 쉼 매민 공간이 잇주게 쉼 매이는 찌끄레긴 배계뜨레 영 놓곡. 행정낭이런 허여. 행정낭에 쉼 매주게.

② 출 종류

- 곡석낭
- 고졸 : 콩풀낭 곱은 건 소보다 물이 더 잘 먹어
- 쉼곶, 쉼고토래 : 돈 신 집인 발 갈명 소 부릴 때엔 영양이신 거 맥여그네갈 곡 돈 어시민 검부래기, 출 곱은 거 취서. 제일 영양기 이신 거 콩, 조 또 조도 두가지 이서. 흐린조, 모인조주게. 밥 곱은 건 허민 모인조엔 현 건 아주

방울방울이 식곡 흐린조엔 헌 건 풀 붙어. 그게 더 영양은 잇주게.

- ③ 먹이통 : 쉼나 물이나 출 먹는 디 낭으로 팡 둥그렁 헌 거 이곳엔 도고리렌 해서.

2) 마당

- 무똥 : 사름들 들고 날고 허는디
- 올래 : 마당으로 영 나가는 거. 전인 도적들이 많았주기에. 도적 골은 거 잘 들어왕 잃어붙어. 경 허난 알로 휘 돌앙 들어와서.
- 주쟁이 : 놀 만들엉 제일 가운데 더끄는 거
- 노람지 : 출도 올려그네 놀 놀고 비 맞아도 비가 소꿌드레 안 들게 뱅뱅 돌 아가멍 더 끄는 거.

3) 안채

- 섬돌 - 잇돌
- 주춧돌 - 주춧돌
- 마룻바닥 - 삼방. 집 혼 가운데 그걸 꼴아
- 방 - 구들
- 마루문 - 대문. 앞엿 건 대문, 뒤엿 건 뒷문이곡
- 부엌 - 정지
- 찻방 : 혼 쪽에 귀착에 중간에 조그만이 삼방을 꿰어그네 혼 거
- 고팡 : 식량 골은 거 논 건 고팡이엔 허곡. 문은 고팡문 경 허곡. 고팡에 그 디도 칠성행으네 메도 올려와서. 항그릇이나 누룽낭 산디낭 곡석낭으로 헌건 맥이곡, 짚으로 맨들엉 곡식 놓는 건 멩탱이렌 해주게.
- 툇마루 - 난간
 - 문들 영 허민 문 도는 지등을 입장이렌 허주게. 위에 영 해그네 흙 쳐 진진 흙바귀. 흙바귀 안트레, 문에 잇주. 배갯문은 흙바귀가 어션 그 자 널로 더뜨곡 자치곡.
- 천정 - 천아반

천이반도 옛날엔 흙으로 불란. 천이반도 그 우트레 그루행 해주게. 그냥 내불
민 우에 덮은 검부래기가 뵈주게. 그건 흙으로 뵈지아니토록 하는 걸 아인벽이랜
하여. 흙으로 아인벽을 아니 허든 검부래기 누리주게

① 안방

- 쟁빋 : 머리에 니엔 헌 거 잇어서. 그제 알을 쳐. 그민 머리에 해영게 대작대
작 혼 걸 쉬, 얼레기로 머리를 풀어놓 쟁빋으로 비시든 충이 나와.
- 얼레기 : 머리 얼러진 거 영영 푸는 거

여즈들 결혼하기 전엔 갈라 엮어 놓 뒤트로 강 합해 놓 댕기로 뵈 하게 묶어
주게. 시집오민 여즈들 머리 좋은 사툼은 머리 비영 박을 사 나셔. 시집갈 땐 누
미머리 불경 사각시 머리 해서. 남즈는 결혼하기 전인 모친이 머리허곡 결혼 허
든 신랑머리는 신부책임이라. 그 때 서로 말도 아이 걸영 영영 허되 신랑을 이젠
신부가 영 해그네 가달에 맞정 신랑 머리 빗정으네 다와주곡 해서.

- 요강 - 요강. 재산가나 그거 그정 오지 어려운 사툼은 그거 아이 가정와셔.

- 벽 - 토기, 백부름

대로 막 해그네 흙으로 불른 거. 그것도 알 쪽은 널로 허당으네 우쪽만 소기
해주게. 알쪽 널은 빈지랜 해서. 토길 가정 백부름이랜도 해주게.

- 벽장 - 백장. 백부름도 다 같은 것이 아니곡 백장 해그네 꿩도 농곡.

- 초석 : 초석 꼬안 줌 잣주게

초석이랜 헌 것도 집 덮으는 새로 짜그네 그걸 꼬아 농곡 또 왕골이 오래도
가곡 줌질도 허곡 해서. 왕골초석, 새초석 두 가지주게. 구들에 보리남 굽은 거
꼬아놓으네 아히들이 영 돌앙 누으민 아히들이 똥오줌을 거기에 싸주게. 겁질 쳐
담아그네 통시에 던져붙고 해서.

- 옷걸이 - 헛대. 술진 왕대로 행으네 옷들 걸어놔주게.
- 창문 - 창. 사툼 죽으민 향간으론 나가지 못후주게. 죽은 그 방 창으로 나
가곡 해서.

- 꿩

꿩문

열쇠 - 꿩장석

문고리 - 손잡이

- 신발장 - 장방

- 화장도구

거울 - 색경 : 얼굴 보는 거

화장품 - 구리무. 여즈들 고은 채 흐젠 브른 거.

• 이불 - 이불

여름엔 얇게 행으네 누벼, 그건 니비불이렌 해서. 겨울에 더끄는 게 솜에 넣으
네 흐영 소개이불이렌 곱아서.

② 부엌

• 뒤주 - 두지. 두지는 챗방에 해 낫주게

• 찬장 - 살래. 살래랜 혼 건 부엌 혼쪽에 행으네 그 소고배 식기들 낫주게.

• 그릇

대접 : 밥 거리는 거. 밥 거리는 게 국거리는 거보다 널러. 전인 식량이 조강
밥을 하영 먹엇주게. 국 거리는 걸 사발이렌 곱아서.

• 국자 - 남자. 국 거릴 때도 쓰곡 제사 때 떡 곱은 거 전저내곡 즈룩은 질고
크지 안 허여.

• 곱박 : 고망 딸렁 물은 고망으로 빠지곡 남죽보다 커

• 밥주걱 - 울국. 밥 거리는 건 쇠로 된 건디 울국이렌 해서.

• 설거지통 - 자박지. 전인 그릇 셋젠 흐민 사기로 도니 조금 크게 싣주게.
거기에 물 넣 셋어서.

• 남박 : 곱이 밥 먹는 그릇인디 쪽은 거

• 줍팍 : 곡식 거를 때 써

• 뗏박 : 소롱혼 거. 곡식 거를 때 쓰는 디 혼 쪽은 호곰 죽아

• 집자기 : 네모나게 생긴 거(요즘 사용하는 되 지칭)

• 솔종류

말치 : 막크민 소두 혼 말. 경 허난 말치주

두말뜨기 : 죽은 거 두 개 든 거

수두태기 : 말치엔 혼 건 열 되 나야 혼 말 된덴 말치고 수두태기엔 혼 건
시개 놓으민 아홉 개 되곡, 그디 훗솔 더 봐야 말치로 하나 될 거주게

• 솔떡 : 돌 시개 세워 양 팬에 두개 세우곡 뒤에 하나 세왕 솔 올려 봐. 그
돌을 곱아 솔떡이렌 허여.

• 솔강알 : 솔떡 시 개 세왕 솔 앓허믄 틈이 날거주. 글로 휘 부롱부롱 나갈
수 있주게.

• 재 - 불치, 불경

- 연기 - 내
- 창곰 : 불 솥은 뒤트레 불치엔 현 거 막 내치주게. 내 나갈 터
- 그을음 - 그슬먹, 그스랭이
- 부지깽이 - 부지멩이
- 방세기, 부엌방석 : 불 솥을 때 길아 앓젠 보리낭이나 산디렌 현 걸 동글락 하게 만들어 놔서
- 부삽 - 갈래죽. 낭으로 맨든 건 갈래죽, 수금푸는 쉼로 맨들었주게.
- 뎀감 - 치들랑, 장작 : 큰 낭을 도치로 부수왕 쪽쪽 찢엉 몰렸당 쓰는 거. 처음엔 검부래기로 불을 살령 츠츠 아주 가는 낭으로 해영 큰 낭드레 움것 주. 혼 집은 정지 옆피 놔뎡 수뎡 무르지 안 허영 뿔리 무르렌 밥해 먹는 솥 뒷쪽에 많이 해 놔뎡당 불낭 다 타서.
- 물항아리 - 물항. 물구덕 소고배 허벅을 안쳐그네 정 다년.
- 물팡 : 정지드레 들어오는 디 돌 영 세왕 허벅 쓰지 않을 때 그 돌위에 올려 놔. 그걸 곱아 물팡이렌 허여

③ 고팡

- 항아리 종류
망대기 : 작은 거
항 : 큰 거 곱아
자박지 : 너르고 우 헤싸진 거

4) 변소 - 통시

디덜팡 : 디더그네 뒤 보는 거

돛도고리 : 돌에 웅탕하게 파그네 도새기 먹을 거 주게

돛집 : 웨야지 들어강 자는 디

거름 - 걸름. 웨시랑에 골채를 영 해그네 버무릴 건디 보리농사 홀 때 무뎡드레 그 걸 다 퍼내그네 발로 불방 밧디 실어가주기.

5) 초집 지붕

① 줄 일 때

흐롱이 : 집 줄 놀때 사름덜 뒤터레 물러 사멍 돌리는 거

말꽃 : 처음 흘 맨 흔쪽 손으로 흐영 흐곡 말 쨌 그걸 들을 합흐영 꼬아지게 흘
때엔 또 이디 영 흔 걸 땅에 박앙 이디 구멍 난 것드레 휘휘 흔들렁 흔 거

가족 : 느랑 손으로만 줄 흐랑으네 여러 사름 집 일 거 흐젠 흐민 손이 헐트리
지지. 거민 거 무른 가족 흐영으네 가끔이나 흐는 거

낭 : 낭으로 그래츨록 흔 걸로 흐여도 줄이 잘 되질 한 흐여. 거 줄치는 디 이
용하게 된 게 아니라 검 이녁 의수라. 거 아무디나 다니당 낭으로 해보카 흐
영 쓰는 거

알 거슬릴 거 : 등치 바깥더래 단 건 즈른 걸로 행 알 거슬리렌 해서

② 거왕 : 줄 엷을 때 죽은 줄이든 진 줄이든 (지붕에서)영 내려오른 낭 흐곡
질게 묶으는 디 그 낭을 곱아 거왕이렌 흐여.

③ 굴목 : 정지말곡 방에 붙때는 디

굴목 안으로 맵감 밀어 넣는 거 곱앙 구내렌 흐여. 구멍드레 곱똥도 좇어 놓
곡 소똥도 좇어 놓앗주게. 구내로 꼭꼭 밀어넣 붙 붙힌 다음에 돌로 툇 더꺼 놓
민 아침까지 방이 뚫뚫허여. 구내 즈록도 질게 해서 (굴목안으로)짚이 밀 수 잇
주게.

11. 기타

- 아줌마 - 아주마애
- 결레 - 배. 오늘은 나막신 흔 배 험디까?
- 햇빛 - 벳 거기 벳남쩌, 이쪽드레 와
- 명절 - 멩질

제보자

이수배(남·76), 금덕리 1974	이숙렬(여·72), 금덕리 1928 - 2
김창휴(여·70), 금덕리 1933	강태보(여·68), 금덕리 2017
강세호(남·58), 금덕리 708	문정여(여·79), 금덕리 1891 - 1
이근중(여·74), 금덕리 1866	이항렬(여·75), 금덕리 1964
강조행(남·71), 금덕리 1928 - 2	강원환(남·88), 금덕리 1863-2

民 謠

目 次

I. 조사자료

- (1) ㄱ래 ㄱ는 소리
- (2) 겹질 매는 소리
- (3) 밧 불리는 소리
- (4) 따비질 소리
- (5) 출비는 흥애기
- (6) 도깨질 소리
- (7) 잠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 (8) 기타

II. 제보자

8월 3일 오전 10시에 학교를 출발하여 애월읍 금덕리로 향했다. 11시경에 노인 당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은 후 1차 조사를 떠났다. 오후 2시 30분 마을 쉼팡에서 쉬고 계신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와 얘기를 나누며 조사를 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저녁 9시 마을회관으로 모일 것을 약속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 날 저녁 9시 마을회관 2층에서 여러 제보자를 모시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시작하였다.

I. 조사 자료

(1) ㄱ래 ㄱ는 소리

① (제보자 : 고희란)

이연~이연~
 이연~말라 흥~ 말~곡~가~라
 나도~가~면~ 어머니 있고 아버지 있져 마는
 시누이야~ 시가랑~말어라
 친절 없는 사람 없고
 시늬 아니 가는 사람없더라
 (아이고)

② (제보자 : A고혜란 · B이국추)

B 이연~이연~	이여도흐~랑
A 이연~이연~	이여도말랑~말고가라
B 이연~이연~	이여도흐~랑
요 놀래랑~	산 넘어 가라
A 이연~이연~	이여도흐~랑
나 소리랑	물을 건너고 가라
B 쌍일에는	소리가 매기여
이여도~흐~랑	

③ (제보자 : A변문숙 · B강옥심)

B 이연~이연~	
A,B 이여도~흐랑~	
B 난 원래~어영 허락을 말라	
A 이연~허이연 이여도~흐랑~	
B 이여도~흐랑~ 어~연~	
A,B 이여도~ 흐~랑	
B 날랑~죽건~ 모다낭 물어~	
A,B 이연~이연~ 이여도~흐랑~	
B 이연~말랑~	

A,B 이연~말랑~
 A 이연~이연~ 이어도~흐랑~
 B 요놈의~고래들~ 흔저~그라지라
 A,B 이연~이연~ 이어도~흐랑

(2) 검질 매는 소리

① 사데소리 (제보자 : A강옥심 · B변문숙 · C이국추 · D강노성)

AB 바람은 간들간들~ 어야~어어~도래야
 사데로구나 어야~어어~어
 C(말) 아고 좋다 구룡산 늪은 증이 철쭉을 지프고
 억실덕실 구경꾼이 들어오시는구나 어허 좋다
 AB 어야~어어~어
 D(말) 어허 창은 창이요 명은 명이요
 제일 명창은 호령창이로구나 얼싸~얼싸
 AB 어~도래야 사데로~구나
 어야~ 어어~어
 D(말) 어허 무남독녀 외딸 아기
 세서방 흘리는 소리로구나 얼싸~얼싸
 AB 어야~어어~도래야 사데로~구나
 C(말) 무시리떡이나 좌시리떡이나
 한국땅 풍년이나 동정이 짐끼냐 얼싸~얼싸
 AB 요놈의 검질 매당 어야~어어~어
 어어야~어~도래야 사데로~구나

 AB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D 뒷명에랑 물러나가라
 AB 검질 짓고 골너른 밧되
 D 다들 불러 요 검질 매자

AB 다물 7지나 모여나 들라

D 칠성 7찌 벌여나 사라

AB 어기여차 소리에 다 매어진다

D 어기여차 소리에 다 매어진다

(말) 아피파면 물이나고 지피파면 돈이난다 열싸

B 비온날 외상제 울듯	어~ 어~어~
어~어~야~어~	어~도~래~야
사테로~구나	
어야~어어~	어어야 어~
어~도래야	사테로~구나
허당말민	놈이나 웃나
어~어야~어~	어~도래야
검질 짓고	플라진 밧되
어~야~어~	어~도래야
사테로~구나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물러나 사라
그럭저럭	다 매어간다
칠성 7찌	벌여나 사라
다물 7찌	모여나 들라
방앤보난	굴묵낭 방해
절권보난	도해낭 절귀

② 사테소리 (강노성)

오~어~도래야	사테로~구나
으~홍 도래야	사테로~구나
사테부르멍	요 검질 매자
어~호호~어 호	으~야~어~홍

어~도래야	사데로~구나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되물러가라
다물 7치나	모여나 들라
철성 7치나	벌여나 서라
어기여차 소리에	다 매어진다

(3) 밧 불리는 소리

① (제보자 : A이국추 · B강옥심)

A 어랑 허랑 어러러러

이녁의 물들 고비 삭삭 돌멍 도르라

어러러러 어러러러

저녁의 물들 이래 고비 돌렁 격으라 어러러(와와와)

어렁 어렁 어러~렁어~렁~ 어러렁(와와와)

고비 확확 돌라 저녁의 물덜 어러러러

B 어렁 어렁 어러러러러러러 어~렁~하랑

요놈~의~ 물들~아 돌돌~ 걸으라

어러러러러러러러 어러러러(와와와)

어렁하랑

A 어랑하랑 어러러~어러러~

어랑하랑 어러러~어러러러~

어러러러 어러러러

요놈의 모쉬들 걸으라 हु니까니

어러러러러러 어러러러 어랑하랑

어랑하랑이로구나

아아 오로로로로 어러어러러 어랑하랑

물물 물물 हु저 걸으라

어러러러 어러러러 어로로로 오로로로어러 어랑하랑

요놈의 몰덜로 혼저 걸엄 볼러볼게
어러러러 오로로로 얼~어려 어랑하랑
혼저 요놈의 조밭을 혼저 불렁 혼저 집이를 가살건디
오로로로 오로 얼얼 어러러 어랑하랑
요놈의 동산 고지들 혼저 맬르라
어러러 어러러러 오로로로 얼얼얼얼 어랑하랑
골너른 족족 혼저 신난디 없게 혼저 볼러볼라
어러러러 얼얼얼얼 어랑하랑
이고랑 저고랑 신나게 말라그네 골고르 독독
어러러러 어려 어털 어랑하랑
요놈의 몰들아 이래저래 돌지마라 바로 걸어그네
어러러러 얼얼얼얼 어랑하랑
그럭저럭 다 불려지엄저 혼저 걸오라 몰들아
기영 혼적 걸오라~ 돌돌이여 얼얼얼얼
오로로로 어러러러 어려어려 어랑하랑

(4) 따비질 소리

① (제보자 : 강노성)

셔으어~ 뚜럼마 떠럼~
천년만년 놀던태역
오늘날랑 일어나라
셔으어~ 뚜럼마 떠럼~
호박에다 침질하듯
소악소악 잘도돈다
셔으어~ 뚜럼마 떠럼~
요산중에 놀던태역
오늘날랑 일러노앙

(잊어붙었찌!)

석으어~ 뚜럼마 떠럼~

요산중에 놀던태역

오늘날랑 일러노앙

산전옥탐 일귀진다

석으어~ 뚜럼마 떠럼~

산되갈고 모밀갈앙

문전옥탐 일귀간다

석으어~ 뚜럼마 떠럼~

도금만씩 일어나라

저문착만씩 일어나라

석으어~ 뚜럼마 떠럼~

천년만년 놀던태역

오늘날랑 일어나라

석으어~ 뚜럼마 떠럼~

오늘날랑 일어나라

(잊어붙엉 못허켜)

② (제보자 : 강노성)

석으어~떠럼마 떠럼~

요산중에 놀던태역

일귀나라 일귀나라

석으어~떠럼마 떠럼~

호박에다가 침질허듯

소악소악 잘도돈다

석으어~떠럼마 떠럼~

자던아기 일어나듯

오곳오곳 일어나라

석으어~떠럼마 떠럼~

문창만씩 일귀나라
 도금착만씩 일귀나라
 셔으어~떠럼마 떠럼~
 천년만년 놀던태역
 오늘날랑 일러노앙
 산퇴갈고 모밀갈앙
 쾌팡구석 7드그민
 문전옥탐 일귀난다
 셔으어~떠럼마 떠럼~

(5) 출비는 흥애기

① (제보자 : 강노성)

뚜럼~떠럼마야도 흥~흥~흥~어~야~
 호~흥~출비는 흥아기로구나
 야~흥~호~호~호~흥
 허~어~야~오~호~출흥아기들 험시다
 요산중에 놀던 출 호~호~호~흥
 어~허~어~야~호~흥~출비는 흥아기로구나
 정남도 좋고 호미도 좋구나
 오호~호~호~호~흥~어~야
 야~호~호~오~
 호~오~호~흥~오~어~야
 호~호~출비는 흥아기로구나

② (제보자 : 변성찬)

셔~뚜럼떠럼마
 오~어~어~

어~야~
 오~흥아기로구나
 뚜림떠림떠림마
 에~에~에~
 어~야~
 바람은 간들간들한디
 오~어~어~야~
 오~흥아기로구나
 호미 좋고 장남 좋구나
 에~에~어~야~
 오~흥아기로구나 (끼~!)

(6) 도깨질 소리 (A:변성찬 B:강옥심)

A	B
어야도흥아	어야도흥아
요것저것	요것때리자
저것도때리자	때리고때리자
어야도흥아	어야흥아
어야도흥아	요것은생곡이여
저것도생곡	어야흥아
물러서멍	저래사멍
때리고때리자	때려보자
어야도흥아	요것도생곡
저것도생곡	물러사멍때려보자
우금조침	때려보자
때려나보자	어야도흥
물로절로	물로절로
때리고때리자	때리고때리자

어야도홍아

어야도홍

어야도홍아

어야도홍

(7) 잡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① 시집살이 노래 (A:변문숙 B:강옥심)

A

성님성님	스춘성님
시집살이가	어뎌데가
아고애야	말도말라
장둑그튼	시아방에
암뿔그튼	시아명에
미꾸럭닭은	시누이에
고추장단지	맷다헌들
우리시집보다	더매우랴
열씨구절씨구	지화자종네
아니노진	못허리라

B

아니아니	늘진 못허리라
성님성님	스춘성님
시집살이가	어뎌데가
아이고애야	말도말라
고추장단지	맷다하여도
시집살이보단사	더매우랴
장둑그튼	시아방에
암뿔그튼	시아명에
볼락그튼	시누이에
물꾸럭그튼	서방님에

(잊어붙어 못허켜!)

(8) 기타

① 예기 흥그는 소리 (제보자 : A변문숙 · B강옥심 · C이국추)

A

자랑자랑	자랑자랑
우리애기	잘도잔다
자랑자랑	웁이자랑
우리애기	자는디랑
멍멍개도	주꾸지말고
꼭꼬독도	울지마라
자랑자랑	웁이자랑
나라에는	총성동아
일가방삭	우애동아
형제간에	화목동아
자랑자랑	웁이자랑
자랑자랑	웁이자랑
우리아기	잘도잔다
웁이자랑	자랑자랑

(잘 잠찌 혼저 자라이!)

B

자는것은	잡소리여
노는것은	노는소리
금도자랑	효도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우리아기	잡도 잘도잔다
자는것은	자는소리

노는것은	노는소리
왕이자랑	왕이자랑

A

저기가는	검둥개야
우리아기	재와도라
느네아기	재와주마
우리아기	아니 재와주민
지핀지핀	천지소에
드리쳤당	내쳤닥허키여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왕이	왕이자랑
금자동아	효자동아
자랑자랑	자랑자랑
우리아기	잘도잔다
자는것은	잠소리여
노는것은	눔소리여
자랑자랑	왕이자랑
우리아기	잘도잔다

(흔저 잠시라 이 어머니 밧뒤 갔다오켜 이!)

C

자랑자랑	왕이자랑
아기자랑	왕이자랑
우리아기	잘도잔다
우리아긴	고추먹영
죽엄꾸나	우리아기
몬딱먹영	죽엄꾸나
왕이자랑	왕이자랑
아기자랑	허여주저

아니자민	질긴질긴총배로
모가지	잘모가지 즐라매영
천지소에	드리치고내치고허키여
웁이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저래가는	감둥개야
이래오는	감둥개야
웁이자랑	웁이자랑
아기자랑	허여주져
웁이자랑	웁이자랑
우리아긴	부모에게효자동이
일가방상	화목동이
웁이자랑	웁이자랑
위이자랑	웁이자랑
혼저자라	웁이자랑

② 동요

a. 쇠비듬 두드리는 소리(고혜란)

불나라	덩나라
불나라	덩나라

(담배불이라도 붙이게)

b. 물 털 때(고혜란)

물하래비	털어지라
물하래비	털어지라
니영내영	갈라먹게

c. 혼다리 인다리(고혜란)

혼다리는 인다리 개천개 시나노저 버문개

어~어~ 장~장~ 곤노곤노 어르릉 다로롱 똑각 새끌

d. 재열 잡는 소리(고혜란)

주열 재열 내려오라
개똥범벅 해여주마
쇠똥범벅 해여주마
근밥누냉이랑 꺾어주마
흔저내려오라 흔저내려오라

e. 도롱이 부를 때(고혜란)

도롱이야 도롱이야 나오라
도롱이야 도롱이야 나오라
외오시번 노다시번
들르거든 나오라
외오시번 들르건 나오라
노다시번 들르건 나오라
도롱이야 도롱이야 나오라

f. 비 올 때(고혜란)

비야비야 오지마라 장통밭의 물골람쩌
비야비야 오지마라 고장밭의 물골람쩌

g. 밥주리 잡을 때(고혜란)

칭칭 밥주리랑 아자난 방석에 아즈라
칭칭 밥주리랑 아자난 방석에 아즈라

II. 제보자

변성찬 (남 · 61세) 금덕리 1738번지 강옥심 (여 · 63세) 금덕리 1738번지
강노성 (남 · 57세) 금덕리 1863번지 변문숙 (여 · 56세) 금덕리 453번지
이국추 (여 · 77세) 금덕리 1875 - 1번지 고혜란 (여 · 75세) 금덕리 1928번지

說話

目次

- | | |
|-----------------------------------|--------------------|
| 1. 변도령(I) | 26. 이현모 |
| 2. 변도령(II) | 27. 힘센 거문덕이 여자 |
| 3. 홍좌수(I) | 28. 귀체헌 이야기(I) |
| 4. 홍좌수(II) | 29. 귀체헌 이야기(II) |
| 5. 홍좌수(III) | 30. 홍선 대원군과 민비 |
| 6. 홍좌수(IV) | 31. 접 잘 치는 평양 이진사 |
| 7. 택일 잘 보는 사람(I) | 32. 김덕영 장군 |
| 8. 택일 잘 보는 사람(II) | 33. 송강 정철 |
| 9. 택일 잘 보는 사람(III) | 34. 오성대감(I) |
| 10. 흐리물 | 35. 오서대감(II) |
| 11. 도채비 이야기(헛불) | 36. 송시열 대감 |
| 12. 줍풀고 산 이야기 | 37. 돌하르방 |
| 13. 부자(父子)가 소 찾으러 가서
강록 잡은 이야기 | 38. 한라산 모양 |
| 14. 힘센 사람 이야기 | 39. 나이 육십에 과거한 이야기 |
| 15. 풀씨름 헌 이야기 | 40. 베염머리 김좌수와 강당장 |
| 16. 설촌 유래 | 41. 무학대사 |
| 17. 예조 좌랑이 된 이부성 | 42. 낭이장군 |
| 18. 이대상 | 43. 홍역관 |
| 19. 허당장 이야기 | 44. 이순신 장군 |
| 20. 강계우(I) | 45. 상부상조 |
| 21. 강계우(II) | 46. 초장왕 |
| 22. 강희룡 | 47. 한식 |
| 23. 여죽인 흙 | 48. 사주팔자 |
| 24. 변경우 | 49. 황희정승 |
| 25. 강성모 | 50. 도술부리는 입씨 하르방 |

1. 변도령(I)

제 보 자 : 강원학 (남·88세, 금덕리 1863 - 2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3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전인 저기 여기 운동장에 저기 큰 폭낭이 이서났는다. 저기 저 당할망을 모사네¹⁾ 늘 위해나십주게. 할망이영 그자 부락 여자덜이 그자 그디 가근에 저 무슨 뵈치고 제물²⁾하고 강 올려근에 해났는다. 혼집이 그 빈도령 모친이 거기 가젠 뵈해영 제물 이영 막 헨 나두분. 그 빈도령이 그걸 문²⁾ 들러 먹어불언게. (웃음). 들러 먹어불언. 아 이젠 전이 그런 거 허젠 해도 곤란해났수다. 요즘답지 안 현, 전인 춤 그런 거 그딘 허민. 제숙,³⁾ 제숙이엔 현 건 그 바닷고기 그튼⁴⁾ 거 그런 거라도 그찌⁵⁾ 행 가 압주게. 막 경 해노난에, 막 춤 그걸 다시 새로 허젠 허난 곤란해네 잘 허지 못허여 네. 이젠 그 춤 거기 큰 폭낭에 그 귀신을 했지. 당할망이엔 현 귀신 폭낭 그디 헨. 그디 후젠⁶⁾ 허여나난 춤 해부난에 이제 그딘 간 보난에 그 신방.⁷⁾ 신방은 경 그디 입담허는 그 신방이 그 따로⁸⁾ 이서십주게. 해연에 이거 어떻게이게⁹⁾ 영 정 잘 해 오는게 이거 오늘은 이거 원. 그만 아덜 늙 헨 뇌두난에 그만 들러 먹어부런에. 이 거 원 이거 그전 오노렌 경해여난. 그때엔 저 그 귀신인가 여원가¹⁰⁾ 거기 이선, 영 허연에. 이젠 경행에 그디 그냥 해난 이젠 그 빈도령은 경행 이 불기에 부스럼지¹¹⁾

1) 모셔네

2) 전부

3) 바닷고기로 제사 때 올리는 것.

4) 같은

5) 같이, 함께

6) 후에는, 나중에

7) 무당

8) 따로

9) 어떻게 해서, 왜, 어째서.

10) 여우인가

11) 부스럼. 종기

막 난 후젠 커내 그자 막 골만¹²⁾ 그디서 썩언 해노난 이젠 분명 당할망이 이거 나
를 이영¹³⁾ 허는 게로고 이젠 그디 저 그 집의 국 그튼 거 끊이젠 허민 송키¹⁴⁾ 써
는 칼. 칼 고지고¹⁵⁾ 현 후젠 그 거기 그 당 할망 모신 디 간 후젠 이녀대로¹⁶⁾ 콧
허게 찢러지난에 아주 된 고름 아주 썩은 고름이 나오랏주게. 그걸로 이젠 그 폭낭
그 귀신 그디 폭낭더레 밋밋 데겨십주게.¹⁷⁾ (웃음). 데겨네 해노난에,¹⁸⁾ 이젠 그만
해 됴 오라네. 아니 이 당 켓것¹⁹⁾을 날 이 뭇냥으로 고생을 시킴젠 바로 선 입담²⁰⁾
허멍 경헐.

이젠 그 그 때에 춤 버금²¹⁾ 다른 사름덜이 거기 춤 그 당 앞이 간 위허젠, 저
허영가기로 막 허난 밤이 꿈을 꾸었어. 꿈을 꾸는디 아미도²²⁾ 변도령 즉시²³⁾가장
허영 오라야 헐텐. 거 이상허다. 춤 허멍 이젠 경 꿈 꿰진게난 굴루이²⁴⁾ 아미도
그 때 허영 간. 경 정 꿈을 경 꿰지난에, 굴루이 변도령 적시 경 행 간 허난에, 그
때엔 춤 영 해네 춤 그디 갈 사름은 그 뻤 귀신이 성²⁵⁾ 헐거라게 미릿 그자 꿈에
시꾸와²⁶⁾ 변도령 적시 행오랜. 경헐 해나십주기.

12) 풀안, 고름이 생겼

13) 이렇게

14) 채소

15) 가지고

16) 자기 스스로

17) 칠해십주게

18) 던져서 해놓으니까

19) 귀신

20) 말

21) 가까이, 근방

22) 아마도

23) 몫

24) 더

25) 있어

26) 꿈을 꾸다.

2. 변도령(II)

제 보 자 : 강충희 (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3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그 변성보란 분이 그런 사람이다. 우리하고 사돈지간인데, 그분이 어렸을 때 그런 말이 있어. 워낙 직성이 세고 단대허기 때문에 감히 사름덜이 건드리질 못했어. 어렸을 때 그 할머니들이 서낭당에 갈라고 무슨 실과하고, 뭐 쌀도 조금. 서낭당에 갈 건 따로²⁷⁾ 나누주게. 아이 정성 들여서 헌다고, 그걸 따로 헨 모성 나누니까, 이 성보란 아이가 할머니 나둔걸 몰래 그냥 실과를 먹어 분거라. 할머니 나중에 알고 에이 께쌌한 놈 7트니라고, 이 놈 엉덩이에 그냥 허멀이나 듣지기 나라. 이렇게 그냥 말로 그냥 욕을 허멍 골아붙어서.²⁸⁾ 옛날 말이 당뎨단 말이서서. 아닌 게아니라, 이 놈이 엉덩이에 허멀이 그냥 나서 그냥. 부스럼이 나가지고 이젠 막 부어가지고, 앓지도 못 해가지고 허니까, 할머니가 거 잘 판다리여. 그 잘 허영 조심 행이네 그 정성허젠 그 축(추룩) 나둔 걸. 요놈 먹어부난에 죄 받안 허멀 난거여. 경헌거 마썸. 경헌거주.

하~ 이놈이 그러면 그런대로 보자. 워낙 단대헌 놈이니까, 쇠고창이 어디 가서 주워다가 서낭당엘 갔어. 가서 그냥 그 고름 탁 짚러서 그냥. 고름을 탁 짜면서, 할망도 나7치²⁹⁾ 잘 먹어봅세. 할망도 나7치 잘 먹어 보심. 허면서 그냥 서낭당에 막 뿌렸어. 그냥 그 피고름을 그냥 막 뿌려부렸어. 막 뿌려 붙었는데 다음에 무당덜 즉 신방이랜 허지. 신방덜이 간 그 뭐 기도하고, 빌고, 뭐 허는데, 신이 나타나지 않는거라. 신이 나타나질 않아. 아이고 이건 누가 장난했다. 신이 노해가지고서 도저히... 알고 보니까 변도령이 그렇게 했다. 이거라. 이거 큰일 났다고 그렇게 춤 빌어 가지고, 그런 사람인데.

27) 따로

28) 말해 버리다.

29) 나처럼

그 사름이 그 형의 집터를 빼앗아 가지고서, 그렇게 헌 때. 마침 그 납업³⁰⁾에서 과거헌 사름이 있던 모양이라. 있었는데 서울에 간 과거허니까, 나도 혼번 서울가서 과거 혼번 해야주. 글도 허나 못 읽고, 무식헌 사름이거든. 근데 갔더니, 마침 그 인척 따라서 갔는데, 어떤 대감이 지금 감찰을 땡길³¹⁾ 사람 모집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방을 헌거라. 방을 딱 보고 그 대감 집을 좇아 갔어. 좇아간 보니, 허이놈 짚신 신고 간 놈이라. 짚신 신고 갔는데, 강 보니까 좋은 신덜 신고 그냥 돈 저덜 간 그 대감님한테 가서 청을 드리는 거라. 이젠 방을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다 인사를 드리는데, 간 보니까 좋은 신이 시니까, 좋은 신덜 함께 싹 밀어두고, 짚신을 가운데 툇 벗어 놓고, 툇 올라가서 절을 툇 대감님 앞에 절을 하면서, 방킬 파하고 꾸는 거라. 방킬 팡해서 끼고 앞에 사름보고, 좋은 자리에 방꾸는 왜 이거. 어른 앞에서 왜 방구를 끼느냐. 이렇게 앞에 사름보고 말허니까 아 게니까 감찰과가 있다해서 왔습니다. 대감이 툇 보니까 혈만 허거든. 좋다. 아 그제야 앞이 아즌 사람도 저도 그래서 왔습니다. 감찰은 무슨 감찰 놈의 방꾸나 얻어 끼지. 아 이리니, 감찰이 됐어.

이 사름이 이 감찰이 되니까 아 좀 구경도 허고 있다 오겠다. 아 그 때 막 가름이 타 가지고 이제 이 임금님이 직접 기우제를 지낼 때라. 기우제를 지낼라 하는데, 기우제를 안 넘겨도 오늘 썸은 비가 올 것이다. 그래 예감이 된 때라. 그래 대신덜이 그냥 그 비옷덜을 가지고 나왔어. 기우제 지내는 그 장소에 아니라 기우제를 한참 지내는데, 아닝게 아니라 기우제가 채 끝나기 전에 소나기가 그냥 냅다 내리는 거라. 그냥. 근데 이 사름이 가만히 보더니 워낙 비위가 좋고 허니까. 전하께서 비를 맞고 계신데, 감히 어느 대신이 비옷을 입을 수 있을고 아 이렇게 한마디 우렁차게 소릴 질러 부렀어. 아 게 비옷 입었다가 임금이 비를 맞고 있는데 임금이……. 감히, 신하덜이 비옷을 입을 수가 없어. 그러가지고선 입었던 비옷을 벗어가지고, 그 늙은 대신들이 그냥 옷을 쫄닥 적힌거라. 아이 대신들이 요놈 어디 두고 보자. 어떤 놈이나. 아게 옛날은 무식헌 사름덜이 비위가 커 용기가 있었던 거주게. 근데 임금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사름 하나 죽게 생겼거든. 어젯께, 기우제를 지낼 때 그 큰 소리 헌 사름이 누구냐? 그 사름 부르라. 아 제주 유생 변성보란

30) 지명. 납읍

31) 다닐

사름입니다. 불러라. 불러가지고 니가³²⁾ 어젯께 기우젤 지낼 때 저렇게 소릴 질렀느냐. 예 그렇습니다. 너 빨리 제주로 내려 가라. 너 여기있다간 죽나. 옛날은 자기 네덜 조금만 못 전디게만 허믄³³⁾ 어떤 트집잡고 꼬투릴 잡아서 그냥 다 감옥에 집어 놓고, 그냥 영 좌천시키고, 막 그랬거든.

게 내려와서 제주 국마감찰있어. 옛날은 물을 길러 가지고, 나랏물이라고 해가지고, 물을 길러가지고, 나라에 상납을 했거든 국마감찰을 했는데, 그래도 이 대신들이 이거 어떤 놈이냐고, 조사해보자 해가지고, 무슨 핑계를 대서, 제주엘 어살 내려 보낸거라. 제주 도민을 안무하기 위해서, 안무사를 보냈는데, 아이 이 감찰이 물을 잘 점검하고, 이렇게 허는디 어떤 서울 손님이 와가지고, 아 서울서 관광왔는데, 말이나 한 필 좀 빌려 주시오 허는 거라. 하 말은 없소 나 개인적으로 여비나 보태 주겠오 허면서, 돈을 몇 냥 이렇게 보태주고 허는데, 며칠 후에는 또 역시 와가지고 아 노자도 다 떨어지고 걸어서 다닐 수 없으니까 빌려주시오 이 놈 그냥 뒤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멍살 잡고, 니 놈이 어떤 놈이냐? 너 신분을 밝혀라. 물을 나라엿 물이지 니한테³⁴⁾ 빌려주랜 헌 물이냐고 경헌 멍살 잡고, 그냥 곧 영 신분 안 밝혀믄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마패를 내나가지고 싹 보이니까, 아 그랬었냐고, 그러지만 물은 못 빌린다. 됐다고, 너 허여 먹겠다. 그래두고 그냥 올라가 버려서. 그 사름이 춤 그래서 유명헌 사름인데, 우리하고 인척지간이 되기 때 문에 춤 유수암 말이 아니지만은 내 애기허젠 헌거라.

3. 홍좌수(I)

제 보 자 : 강세부(남·79세)

조사일자 : 1995년 8월 3일

조사장소 : 강세부 할아버지 맥(금덕리 2019번지)

지일³⁵⁾ 처음에는, 홍좌수라고 이섯어요 좌수. 옛날 그 좌수라면 조금 권력이 세

32) 네가

33) 못 전디게만 하면

34) 너에게

35) 제일

안. 권력이 췌는데, 홍좌수가 여기 오라³⁶⁾ 처음 살기 시작하면서, 그 때가 종놈덜³⁷⁾ 많이 부렸어요 그 땐 노복. 요렇게 해가지고, 혼 십 여 명 이상 노복 탁 거느려 가지고 살명. 딱 집 지어 쥘 살 디,³⁸⁾ 니이³⁹⁾ 이디 집 지영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 노복으로 부려먹고 다 일은 뭐 그 사람들이 다 해주니까. 이렇게 해서 부려먹다가 홍좌수가 춤 말자에는⁴⁰⁾ 이제 늘 일을 이 사름의⁴¹⁾ 말만 들으명⁴²⁾ 살 수 없으니까, 그거 종놈덜이 죽여볼자고 그라가꼬 죽여버려야지. 죽여버리면은 모든 재산은 다 추지해가지고⁴³⁾ 갈라 앓을 테니까⁴⁴⁾ 그리허자고 혼번은 시(市)에 간 줄 아니까, 여기서 그 사람덜이 데모를 했단 말이여. 어디 나가 가건, 나갔때민⁴⁵⁾ 나갔다가 광령리 쪽에 어시내라고 어디 몰모린내라고 허는 디가 있지요 그 목⁴⁶⁾에 간 지켰다가 밤의 차로 돌아 왓시문⁴⁷⁾ 모다 들영⁴⁸⁾ 죽여버리자고 그니까는⁴⁹⁾ 경한 막히 약속을 했는디.

고만석⁵⁰⁾ 그 가운데 한 사름이, 한 사름은 지금 본인의 성(姓)이 뭐신지도⁵¹⁾ 몰라요 모르지만은 한 사람이 있었는디, 그 사람은 가만 아잔⁵²⁾ 생각을 해보난에⁵³⁾ 이렇게 해 노면은 일은 큰 일이고, 말래에는⁵⁴⁾ 즈기는⁵⁵⁾ 지일 쫄맹이니까,⁵⁶⁾ 저

-
- 36) 와서
 - 37) 종놈들을
 - 38) 살 곳
 - 39) 너희들은
 - 40) 나중에는
 - 41) 홍좌수의
 - 42) 들으면서
 - 43) 차지해가지고
 - 44) 나누어 가질테니까
 - 45) 나갔다면
 - 46) 굶이지는 부분
 - 47) 오고 있으면
 - 48) 모여들어서
 - 49) 그러니까는
 - 50) 가만히 있어
 - 51) 무엇인지도
 - 52) 앉아서
 - 53) 해보니까
 - 54) 나중에는
 - 55) 자기는
 - 56) 나이가 어리니까, 혹은 힘이 약하니까

놈덜 솜씨에 나를 살려두지 않을거다. (헛기침) 그러면 내가…. 저 놈덜 솜씨에 나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요 조기네만⁵⁷⁾ 모든 재산들 다 추지해볼거다. 다 관례를 거치고 허니, 하 이거 안됐다고 밤이 밤이 시에를 가사던거라⁵⁸⁾ 찾아가 가지고, 주인 양반, 좌수한테 가서, 사실이 이러니까 위급하게 현 일이 있으니까 그 뒷날 가십시오 아 그러냐고 그런데 좌수씨는 이가 그 때에 어사한테 말해 가지고, 이거 위급한 일이 이시니까 좀 도와줍센. 그러냐고 이거 알겠다고 목사 앞에서,⁵⁹⁾ 지금 목사면 도지사주. 무장, 무장군 수 십 명을 7짜 데려네⁶⁰⁾ 보내졌어. 영 허연 무장군이 아니까 나서거든….

4. 홍좌수(II)

제 보 자 : 강원학(남·88세, 금덕리 1863 - 2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3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여기 춤 아주 영웅질 해난 이가 이서났수다. 영 이가 춤 종덜은 막 하영 데령. 요쪽의 지금 살아난 터도 있다. 홍좌수라고 현 이가 춤 호령헐. 흐루는 저 동쪽으로, 동쪽으로 그 바른 아랜 고성, 상하귀, 이래 쪽 즈중이 7장, 글로 장작, 장작이엔 허민 지들낭떡⁶¹⁾ 허연 지들낭 싯경 가민.⁶²⁾ 이래 문 시꺼들여. 홍좌수가 그 종덜 와근에, 문 시꺼들여.

흐루는 게고 흐루는 저 서쪽으로 가민 저 장밭⁶³⁾ 우쪽⁶⁴⁾ 그디 해근에 그 바른 던 저 시길, 장전, 엄쟁이. 엄쟁이도 삼엄입주게. 구엄, 중엄, 신엄. 그 소방 수산에

57) 자기들만

58) 가야했던거라.

59) 앞에서

60) 함께 데려다가

61) 장작으로 쓰는 나무

62) 실어서 가면

63) 장전

64) 위쪽

그자 그래 시꺼들이곡. 그거 족족 현 사름 그거 해질 노릇시과. 종덜 춤 막 하영.⁶⁵⁾ 경헌디 그 중에도 종 허나이 힘이 춤 아주 강한 종이 셔난 말이라미씀. 난 굴안 들은 말입주게. 내가 압니까. 경 헌디 일도 당하민 그자 다섯개 허는 다섯 사름 허는 걸 그 사름 혼자만도 허여. 게문 연장을 당하지 못허여. 연장 기구를 문딱 부수와 근에 해 들어.

춤 말도 잘 들곡 허난 이젠 춤 착실함도 허고 허연. 에 이 놈 혼 번은 배부른 때나 혼번 헨 먹여보젠. 이젠 아주 큰 춤 술으로 두 술을 허여네, 큰 도고리에 무룩이⁶⁶⁾ 퍼반. 술가락도 안 해네, 우금⁶⁷⁾이엔 해십주. 저 밥 걸어 놓는 거 굴아. 그 그거 턱 걸치고 허면. 그 놈 오랜 불런. 너 원 심브람도 잘 허고 일도 잘 허고 느 혼 번 배부르게 이저 밥이나 멕여보젠. 이저 해심에 느 먹으렌. 계난 짓꺼진⁶⁸⁾ 후젠 그디 왓안 허고, 그 흥좌션 그때 좀 피해네 어디 땡기단⁶⁹⁾ 오란 보난에, 걸 문 짝 먹어불어서. 문짝 먹어. 간 보난에 그래 봐 저. 어떻 그걸 문 먹어나? 에 어떻 허니? 부듯⁷⁰⁾ 요기 되었수다. (웃음) 부듯 요기 되고랜.

5. 흥좌수(III)

제 보 자 : 강원학(남·88세, 금덕리 1863 - 2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3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옛날 그 흥좌수 경 처음 스방엔 지장되어지곡 경 헌디. 종이 나 알거니 또 멧이나 알커고 이 밑이 사는게, 에 - 누게 저 개동이엔 현 사름이 살아나고 어 저 우이 말잔 고지 간 살명 현 사름이 거 이름이 뉘시던고 둘이 여기도⁷¹⁾ 살아나고,

65) 매우 많이

66) 가득

67) 밥주걱

68) 매우 기쁜

69) 다니다가

70) 빠듯이, 조금 부족하게

71) 여기도

저 동쪽에 많이 살아났주게 좋아. 동쪽에 사는게, 에 흥내미, 이서괴, 에— 원내미, 강급회, 막미, 사대기, 쇠기, 재완이, 진상이, 그것덜은 내 살아난 디 민작 압주게. 진상이엔 현 거 살아난던, 그건 나 밧이 되었수다만은.

그 때에 종덜이 춤 막 으라개⁷²⁾ 되었. 느량⁷³⁾ 종을 못 전디게⁷⁴⁾ 끌어. 그 흥좌 수가 못 전디게 구난. 이젠 그 흥좌수엔 현 이가 시에 간 지금은 시 시 현디, 전인 성안. 성안 간 허난에 그 종덜이 아잔에 이 흥좌쉬 우리 손에 돌메기⁷⁵⁾ 몰아근에 으시 해뒤근에⁷⁶⁾ 우리도 우리대로 어떻 살아보게 영 행. 결의가 되어. 결의가 되 난, 우리 저 어디 가근에 저 가다근에 질레에⁷⁷⁾ 어디 굽양⁷⁸⁾ 목 질렀다가 오라가 거드네 추막행 심주기.⁷⁹⁾ 이젠 이제 해네 경 가는다, 광령 무시내⁸⁰⁾ 넘어 가민 저 그 동쪽이 정진내에 현 그 자그만해도 지픈 내가 있수다. 그 내더레 숨언. 오라가 건 거기서 으시힐 걸로, 그 종덜이 이제 그 여남은 명 넘은 종덜이 경해연. 그디 종 하나이 영 생각해보니, 이거이 그 영 허다근에 원 이거 어떤 일사 될 티. 원 이 거 원. 어디 대변 보래 나가는추룩⁸¹⁾ 흔 후젠 나간 이젠 나간 후젠 이젠, 에 저래 가근에 오람꺼느네, 허다 글로⁸²⁾ 오지 못허게 해근에 다른 딜로 돌령 오젠. 저 그 디 고라 대한이모루엔 홀 츠렌가. 현 디가 글로 저랜 시레 수거되고, 글로 이쪽더 랜 그디 저 무슨 저 그 범 헐 거 무스거 어떻해네 지금 그디 경헌디가 셔.⁸³⁾ 그 대한이모루랜 헌디가. 그디. 범 글로 허노랜 허연, 지금 그 해연 셔. 그디 큰 소낭 이⁸⁴⁾ 이서났수다. 그디. 이 무슬에도⁸⁵⁾ 높은 요 동산에 사민,⁸⁶⁾ 그 소낭이 흰허게

72) 여러명

73) 늘

74) 견디게

75) 돌맹이

76) 없애두고

77) 길가에

78) 숨어서

79) 잡자고

80) 지명. 무수천

81) 나가는처럼

82) 그쪽으로

83) 있어

84) 소나무가

85) 마을에도

86) 서면은

뵈여. 이젠 그 종 하나이 그 대한이모루랜 헌 디 가난 이젠. 절로 이래⁸⁷⁾ 오라도 저런 비틀어지난에 바리지 못 허연.⁸⁸⁾ 그디 가난에 특 허게 여기 앞이 당허여 맞 걸어.⁸⁹⁾ 특 당허연. 이젠 그 홍자수엔 헌 이, 이요로새끼 이저 어땡행 이디 오라시 니? 그 집이서 일이나 허지 안해네. 뭘 허레 여기 오란다. 바로 큰소리치난. 이래 좀 와 줍센. 나 무슨 얘기 허쿠다 허니까. 혼끝은 듣는 체도 안허고 욱만허여. 욱 만허연. 요라번 설득청헨 아미면지⁹⁰⁾ 조금만 요래 조금 와 줍센. 이제 춤 여러번 경 말허난에 그디 아잔. 이제 저래 가다근에 춤 좌수님 생명을 잃게 되었수텐. 이젠 준짜허주게.⁹¹⁾ 생명을 잃게 되었수텐 허난 준짜. 이젠 저 아무썸에 오라네 저 래 굽아네 줍복했수다. 그 디 피해근에 어땡행 갑주. 이젠 그 덜 피해네 다른 덜로 돌아 오라부난에 이젠 그 디 줍복헌 건 왓악허도록, 어둡도록 거기 이서불고해도 오라. 다른 디로 오라분 증은 모르고, 행에 춤 모르게 그냥 다른 디로 오라불언.

이젠 뒷날은 흥좌수가 그 종덜 오늘날은 내 너내덜 일 시키켜매 일 헐 데로⁹²⁾ 출 령나서랜.⁹³⁾ 남녀노소 아이덜⁹⁴⁾ 전부 나서랜. 이젠 나세운 후젠 요 알팸이⁹⁵⁾ 요 알팸이 지금 벨랑이⁹⁶⁾ 주거미 굴이엔 헌 벨랑 붙였수다. 그디 주거미 굴이엔 헌 벨랑. 이젠 나 즈롬에⁹⁷⁾ 오랜 뒨막 그걸 춤 젊은이, 늙은이, 아으⁹⁸⁾장 문 돌아 정⁹⁸⁾ 간. 이디 이 굴 파랜.⁹⁹⁾ 이젠 굴을 영 파는디 막 저래 질게 지피 알러래 지 핀 아니허고, 저래 막 그자 멀리 지피 막 그디 나 곤는 대로 프랜.¹⁰⁰⁾ 그걸 그자 그 종 식귀, 전부 아이덜⁹⁴⁾장 막 지피 저래 가가가난 그 도¹⁰¹⁾ 탁허게 그 흙 더꺼

87) 저쪽에서 이쪽으로

88) 보지 못 하니까

89) 마주걸어

90) 어땡던지

91) 놀라주게

92) 일하는 데로

93) 차려서 나서라고

94) 아이들까지

95) 아래쪽에

96) 별명이

97) 나 뒤에

98) 데리고

99) 굴을 파라고

100) 내가 말하는 대로 파라고

101) 입구

정 막안. 그자 그디 문짜 그디 문언. 그디 헨 물어부난 그디 벨량이 주거미굴 주거미굴 그자 벨량이 졌주기. 그 종덜 그디 경해내 그자 탁 헨 물어네. 경해네. 종 하나 경헌 종은 춤 살아난 그간에 연락 부지런히 헨 거. 헌진디 원 여기 저기 허난에. 어느 종이 어떻 된 츠렌 몰란헌디

내 춤 혼 열댓 넘은 때라서. 이 므슬¹⁰²⁾ 이장이 이 문에 치는 발이엔 헨 거, 저 숙잇대 좀지롱이¹⁰³⁾ 꿰어근에 더그랭이¹⁰⁴⁾ 문에 영 치는, 이서났주기. 그걸 햄성게 날그라, 그 델 하나씩 아사도랜.¹⁰⁵⁾ 제헨 그건 그 델 아사냄시난에, 어디 외방 사름이 오라. 어디서 오란딘 허난. 저 동귀, 분맹히 동귀엔 허주기에. 그디서 오고랜. 어떤 오란디 허난. 옛날 지네¹⁰⁶⁾ 조상이 이 므슬 살아났젠. 이 므슬 사는다. 홍좌쉬¹⁰⁷⁾ 종으로 이서났젠. 에— 이걸 어떻헨 허연? 이젠 호적을 보젠 오고랜. 이젠 원 춤 그 어떻 된 츠레 몰랑. 에 호적이나 보젠. 그 사름이 시냐 어시냐. 진상이엔 헌 이름으로 이젠 호적을 헨에 옛날 호적 꺼내 호적을 좇안 보난, 그 전에 저어— 편질. 그 전에 서나서. 종일 진진허게 해근에¹⁰⁸⁾ 그자 영 해근에. 똑 호적을 그 므냥으로 해서고 백지 영 이신 후젠 진진허게 해난 오래여노난에 그자 누렇게 허연 막 종에가¹⁰⁹⁾ 누렁헨. 영 보난에 아이 진상이엔 헌 이가 그기 서. 허난에 그 지네 조상이엔. 허난 그 진상이엔 헌 이가 홍좌술 살린 거 닳아뵈여. 그 원 이제 원. 그 종 주손이 그자 진상이 하나 경해네, 그거 동기 분해해서 그 진씨가 막 벌어져서. 옛날 헨 거 보민, 에— 독단으로 권릴 경 그 추록¹¹⁰⁾ 헨 수 서? 민¹¹¹⁾ 므슬 그 장 작 해가는 거 문 시꺼드리곡(호호—) 어떤 거 보면은 옛날엔 춤 해네.

그 홍좌순 무(無)해불고 홍좌순 춤 홍좌수 경 영웅허다네 딸, 아들은 없고, 딸 하나 서난생이라.¹¹²⁾ 딸이 우리 옷대 하르방 그 홍좌쉬 사위로 들어왔주게. 경해네

102) 마을

103) 잘게

104) 덩그라니

105) 가져 주라고

106) 자기네

107) 홍좌수의

108) 길게 해서

109) 종이가

110) 처림

111) 모든

112) 있어난 모양이라

그거 홍좌수 그도 그만 죽언에, 경 정 행에 무해불언.

6. 홍좌수(IV)

제 보 자 : 강충희(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3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그 홍좌수에 헌 사름이 그렇게 부락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사름이 그 촌 그 좌수거든. 현직 좌수라면, 좌수가 뭐냐면 아마 지금 썸이른 도지사 자문위원 썸 된 모양이라. 옛날 목사 앞에 이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건의도 허고, 뭐 영허는 거……. 주로 모이면 그저 향청이란 디가 이서서. 향청에 가서 모여가지고 좌수들이 이제 의논해 가지고서 이제 뭐 건의도 허고 고철건 고치기도 허고 이렇게 허는데, 이 세력이 막강 허단 말여. 허니까 위세가 등등헌데 이 사름이 그렇게 사름을 모여 놓고 이 마을 안의 사름덜안테는 마 그런대로, 너는 여기 가서 밭을 갈고, 너는 저기 가서 뭐 소를 키우고 이렇게 다 그 좀 분배해주고 했는데, 이게 종덜도 많고 이러는데, 이게 남의 재물 빼앗는 걸 아주 그냥 여반장이다게.¹¹³⁾ 손바닥 뒤짚는 모양으로 쉽게 한단 말여. 하루는 여기가민 저 동쪽내, 동쪽 내에서 그냥 해변 사름덜 아니 마을 사름덜이 그냥 뭐 숲이나 뭐 농자재나 기타 땀감 나무 등 등을 해가지고 가는 것이 있으면 막아서 가지고서 종놈덜이 가서 지키고 있다가 너희덜 가진거 다 내집에 놔두고 가져라 호령을 한단 말여. 그러면은 겁시 나가지고서 만일 촌 상을 찌푸리거나 불편을 하는 사름이 있으면 종놈덜이 가서 그냥 행패를 부리고 그러니까 홀수 엇이 그냥 가져다 밧쳐두고,¹¹⁴⁾ 내려가거든. 허 다음 이쪽 뒷날은 이쪽 고달천 위쪽 서쪽에 가서 그렇게 해. 사름덜이 그냥 이 원성이 자자하게 되고 그 촌 통장마음이 사뭇쳐 서린 민초덜이 이 사름때문에 살 수가 엇어. 원망이 자자헌데.

그러니까 그 수하에 종놈덜이 이거 없어야겠다. 이 사름은 죽여버려야 우리 서

113) 밥먹듯이 한다. 쉽게 한다.

114) 밧쳐두고

민들이 살지 이건 토호 나쁜 토호가 이 지역 이렇게 호령하는데 우리가 이거 못 산다. 다른 사람도 살고 우리가 이 사름 죽여 부령, 우리 이거 중으 신세를 벗어난다. 그러지않으면 안된다. 이래가지고서 그 죽일 계획을 모의를 합니다.

모의를 해가지고서 현대, 흐루는 아 나 오늘 향청에 불 일이 있어 가는데, 너희 덜 잘 이렇게 허고 있어라 허연 나갔어요 아 그때에 종달이 야 이제 기회가 왔다. 어떻게 허자. 이걸 모의해 가지고서 어떻게 헐까 허니까. 오늘밤에 안 올 것이고 틀립엇이 내일 아침에 돌아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어시내, 어니새 허민 저 무수천 동쪽 내가 어시내라 속칭 어시내 허민 무수천 동쪽내, 바로 동쪽내 해 안드래¹¹⁵⁾ 가는 길 바로 우짜¹¹⁶⁾ 쪽에 그 있잖어. 내가 하나 있잖아. 그디 가서 이제 매복했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 그때는 거기서 시도를 하자. 이렇게 여러 사름 이 딱 모의를 해가지고, 그럼 얼른 나가자. 이에 그제 홍좌수는 시에 갔거든.

제주 성드래 들어갔는데, 그디 앉안 이것을 가만히 눈치채고 알아차린 그 늙은 사름이 있어서. 김창남이엔 현 종인데 안된다. 하인으로서 주인을 죽인다는 것은 이롭지 못한 일이므로 만약에 일이 성공된다 해도 너희들이 나중에 그 화를 어떻게 면하겠느냐? 허니까 말렸어. 아닙니다. 이 사름이 살아있는 한 우린 숨도 크게 못 쉬고 또 다른 민초덜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으니 죽여야 됩니다. 해가지고 말려도 듣지 않고 여섯 사름이 있어. 가서 딱 매복을 했는데 이 김창남이엔 현 사름은 이거 큰일났는데 어떻게 할까 허다가 가서 고백을 허겠다고 자기도 사잇길을 돌아서 밤에 그냥 제주성 그 향청에 찾아가서 고해버렸어 그냥. 그 흥칙헌 음모가 있어서 주인님을 해어고자¹¹⁷⁾ 합니다. 들어보니까 홍좌수가, 아이 놀라가지고서 뒷날 아침엔 날이 밝는대로 관아에 들어가서 제주목사에게 저를 해혈랴고 허는 음모가 있습니다. 저 신변을 보호해 주십시오 허니까, 그디 목사가 꽤히 그렇겠다고

대 관졸 군졸 현 십여명을 돌려 보내 가지고는 돌아오는 길에 아 기다리던 어 시내에서 기다리던 여섯 사름은 이제야 올 것인가 저제나 올 것인가 기다려도 오도 안허고¹¹⁸⁾ 해는 중천에 떠 오는데 하도¹¹⁹⁾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되니까 좀 무료해가지고 모여 앉아가지고 잡담하고 있는데 아 뒤에서 그냥 벽력같은 호통소리

115) 해안쪽으로

116) 위

117) 해치고자

118) 오지도 않고

119) 오랫동안

가 난다 말이야. 내 이 놈덜 꿈쩍 말고 게 있거라. 확 돌아보니까 아 이 기다리던 홍좌수는 아니 나오고 관병 칼을 들고 자기들을 노려보고 있는거라. 아 그러니 꿈쩍 못 하고 그디서 그냥 이 관군이 휘돌르는 칼날 아래 죽었어. 그냥.

그 뒤 홍좌수는 그런 척도 않고 푹 시치미 떴고 여기 와서 그 방 사람덜 보고 저 밑에 가서 굴을 파라 이렇게 했거든. 그 굴을 막 파니까 다 들어가라 이거라. 들어가니까 입구를 탁 막고 혼 수십여명 그냥 여섯 사람의 식솔 다 죽여버렸어. 생매장 한 다 죽여 버렸어. 참으로 엄청난 일이지. 그래서 했는데 그 굴 그렇게 매장당한 곳이 지금도 속칭 주저미 굴왓이라고 저기한다. 속칭 주저미굴왓. 그리고 그 홍좌수가 살았던 바로 요쪽이라. 요, 지금 요쪽 길. 카두지고 현 그디 그 옛날에 조상을 모셔가지고 사당을 지셨던 거. 사당묘향. 감나무를 심었던 곳을 감낭이 영, 유자나무를 심었던 곳을 유자다르 꽃나무를 심었던 곳을 고장밭. 옛날은 토속으로 고장이엔 했거든. 고장밭 이렇게 속칭 절메오름인데.

그 홍좌수 앞에는 좁 옥심이 과 허고 그러다 보니까 혈육이라고 헌건 무남독녀 외딸 하나만 있었거든. 그 사람이 양씨헌테 가서. 양상대라고 당시 풍용, 풍용이엔 허민 당시 면장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람 앞이 시집을 가서 늙영 봉사허다가 양씨마저도 삼대절손 해가지고, 손자??지 가다가 겨우 결손 해가지고서 그냥 끊어지니까 촌 이 지역에서는 홍씨. 양씨는 다 사라지고 지금은 강씨, 이씨, 변씨가 이름을 이뤄 가지고서 하나의 마을을 형성했는데, 물론 김씨도 있고, 문씨도 있긴 있지만은 혼 두 가호 정도 것 밖에 안되니까 그건 이를 수가 없고 그 지금 당허니까 삼성이 지금 부락을 이룬거라. 그래서 실촌일화가 홍좌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마을형태가 만들어졌다.

7. 택일 잘 보는 사람(I)

- 장지 잘못 찾은 여인 -

제 보 자 : 강원학(남·88세, 금덕리 1863 - 2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3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전이 또 이상헌 때가 서나십주게. 저 어디 어림비, 저 서쪽이. 어음. 그디 사람

이 여기 양오란, 양오란 했는디, 이젠 저쪽에선 결혼77장 행오란. 납업¹²⁰⁾ 새각시
 랜 현 말이라. 허난 그만 처가집이 저 춤 성오가¹²¹⁾ 죽어네, 육소장 간에 산을 받.
 경헌디 이젠 이 무슨 아는 어른 셔났수다. 춤 느랑 이 무슨 청년은 전부 그 제
 디¹²²⁾ 여라시¹²³⁾ 이 수정 저 헌디. 춤 전부 몇 년간 선생질을 해십주게. 겨난 전부
 제주되멍 헌디. 택일을 잘 해 마썸. 택일을 해도 그믐 불연. 일 저물 때 어떻허켄.
 그때에 춤 육소장 당하게 된다. 택일을 해 주멍, 하관시간에 난 데 어슨 곡친 시개
 가¹²⁴⁾ 여자 곡친이 오켄. 하관혈 시간에 (헛기침) 이제 그자 들음뿐 해네.

이제 그디 간 하관 허젠 허난에 시간이 어느 시간 된 츠레 몰란. 그 겨울이라도
 난게, 해가 전인 해로 가름해그냉에¹²⁵⁾ 시간을 해나십주게. 이젠 시간 됐져, 안됐
 져 허멍 허는 중엔 그디 살던 형이 영 택일해쥬. 거 택일하는 시간엔 난데 어슨
 곡친 시개가 오켄 험게. 허난에 게른 시간이 아니되신가 곡친 안 뵈엿시게 허멍
 허난. 이젠 아리도¹²⁶⁾ 시간 되어서. 하관허자, 하관허자. 하관허노렌 허난에 어디로
 여자 시개가¹²⁷⁾ 제물 허연 저아지고 허연에 하관 험시난에 그자 치메¹²⁸⁾ 확 해네,
 테구리에¹²⁹⁾ 둘러 쓴 후젠. 아이고 아이고 허멍, 곡을 허여. 이젠 경 헌디 이거 어
 디 어떤 오란 영험신고 이젠 그디 조금 거속해지난에, 그디 둘째기,¹³⁰⁾ 둘째기허
 난 이제 그만 곡해근에, 이 작지,¹³¹⁾ 작지덜이나 주수랜. 이젠 그 치메 확 걸영보
 난 아는 사람 허나셔. 그디 아니 외똥디 가궐 그딘가푸텐¹³²⁾ 오라네, 그자 영 보난
 에, 그냥이라도 곡해시민 허주만은 치메 영 행 탁 둘러쓰고 해부난에 이제 사름
 몰라져네. 말잔¹³³⁾ 마 작지 줍젠 현 거 보난허주. 아마싯땡어리!¹³⁴⁾ 이디 아니로구

120) 납읍(지명)

121) 형이, 여기서는 언니가

122) 제자인데

123) 여러 명

124) 세명이

125) 판단해서

126) 아무래도

127) 세 명이

128) 치마

129) 머리에

130) 둘째기

131) 둘째기

132) 그 곳인가 보다

133) 나중에는

134) 잘못 와서, 놀라서 하는 감탄사

나 (웃음) 허멍. 이 스방에 장 허는디 싶젠 헛데가? 원 모르쿠다. 이젠 제물이영 저 래 그정. 거 어평이네 올린 제물은 게 조금 있당이라도 노리웁주게. 제물은 경 제 개¹³⁵⁾..... (웃음)

8. 택일 잘 보는 사람 (II)

제 보 자 : 강원학(남·88세, 금덕리 1863 - 2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3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이디 춤 그 이가 느량¹³⁶⁾ 귀문 부척근에 느량 알아. 혼번은 이 동네에 요디 새 집을 허게 되언 마씀. 새집을 허게 되어네, 훌어멍인디, 그 그 때에 이디 살다네 하귀 간 살안 택일 해주멍헌디. (조사자 : 화북마씀?) 양? 하귀.(조사자 : 아, 하귀.) 살멍 그디 간 택일헨. 이젠 아척이¹³⁷⁾ 택일인디 시간 되었져 안 되었져 허멍. 그 땐 시계, 그 때도 어신¹³⁸⁾ 때라십주게. 영 허난에, 그 여자가 허난. 어 택일해주멍 하관하는 시간엔 붉은 옷 입은 사름이 놀¹³⁹⁾고정 오켄 헛디다. 영 허여. 붉은 옷 입은 사름이 놀 고정... 어느 아흐,¹⁴⁰⁾ 그 땐 아히덜이나 붉은 옷 입었지. 뭐 어른 은 붉은 옷을 입어나지 안해십주게. 이히나 칼 그정¹⁴¹⁾ 그자 영 행 올쨌가 허멍. 에, 시간 돼서 시간 돼서.

우리 부친님이 전이 저 나무로 무슨 거 그자 홀(?) 맨들아났수다. 낭 해근에. 전 인 그 소개¹⁴²⁾ 느려난게 집이 뭐 빨래¹⁴³⁾ 허젠 해야 그런 마께¹⁴⁴⁾ 홀 것도 없고

135) 빨리

136) 늘, 항상

137) 아침에

138) 없는

139) 칼, 칼날, 낫.

140) 아이

141) 가져서

142) 적화를 피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일정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4.3사건때 있었던 일

143) 빨래

144) 빨래할 때 쓰는 나무로 된 방망이

그 무신(청취불명)이 동네 사름이 우리 부친님이 가가저드네 그찌 가근에 허젠. 우리 부친은 이웃시난에 그집 세우는데 반 가젠. 그 가네 허난에. 아니 감 들인¹⁴⁵⁾ 새옷 볼경헌 옷을 우알로¹⁴⁶⁾ 입은 사름네 걸옷 직아지고¹⁴⁷⁾ 하여네 그디 오란. 그 런 거 보민 그거 춤 택일하는 사름도 보민 춤 경허기로 이름나나십주게. 멀리 립툼난¹⁴⁸⁾ 현디, 그 때에 경해나고…….

9. 택일 잘 보는 사람(III)

제 보 자 : 강원학(남·88세, 금덕리 1863 - 2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3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흐번은 먼 디서¹⁴⁹⁾ 춤 소문들어네, 택일허레 오란. 게고 그 선생질 호고 택일호 고 허난에 그 집이 언제던지 이 방이 느랑 그득게¹⁵⁰⁾ 춤 사름덜은 아자십주기. 마 침 나도 어떤 하귀 가지건테,¹⁵¹⁾ 에 그디 간 보젠. 강 보난 구들이¹⁵²⁾ 줍씩 사름덜 이 아자선게. 아잔현디 이거 강선생님 덕이우까 호명 좃안 오는 사름이 서. 경허 텐. 어디서 오란딘 허난. 저 남군에서 오고랜. 남군 어디서 오고랜. 거 어뎡이네 이 77장¹⁵³⁾ 오란디. 윈 택일을 잘 헌텐 허여네, 윈 이젠 윈 굽급헌 일도 시고해네¹⁵⁴⁾ 이거 윈 택일을 오란 허젠 오랏수텐. 택일을 어뎡 경 굽급헌 일? 장은 허였수다만 은에, 윈 허명해도, 윈 어뎡 허민 좋곤 해네, 택일 잘 헌텐 허연 다시 택일 오란 허영 가젠 이거 멀어도 영 오랏수텐 허여나서. 게난, 이젠 그때 택일 헌 거나 그정

145) 감물 들인, 감물로 염색한

146) 위 아래로

147) 잠아서 가지고

148) 이튿날

149) 곳에서

150) 가득히

151) 가지고 하건테

152) 방이

153) 여기까지

154) 답답한 일도 있고해서

오란디야¹⁵⁵) 허난. 예 그정오란. 거 이래 내노라보게. 내낭 영 본 후젠 어째네 그 날은 스방이¹⁵⁶) 바로 갓 시빨경 해나시니. 그젠 그 사름이 스몫 안더랜¹⁵⁷) 현 게 알알수다. 이젠, 저 우이 먼 디 꽃밭 가차운디¹⁵⁸) 소낭덜 막 싱근 디 그디 헨에 장을 헨디. 추우난에 불덜 살랑¹⁵⁹) 그디 저디 불살난에 니러올 뎨 그 불을 땀딱 끼와된 오랐는다,¹⁶⁰) 집이 오난, 이서시난 동네 사름 하나이 온 후젠 저래 바라보랜. 바라보난에 그 땀딱 그 스방이 매우 왓왓이라.¹⁶¹) 하이구 이거 이거 안 되켤, 이젠 상들 올려가난 것도 그 스방 문짝 그 슬¹⁶²) 카부러어네¹⁶³) 이젠 그만 인역¹⁶⁴) 재산으론 흘끼¹⁶⁵) 원 당치¹⁶⁶) 못 허여. 이젠 그디 춤 반상천 사름⁷⁷장 문 치르게 되언. 경해네, 이거 원 예이 이거 이래도 천리해 나불젠. 경해네 이디 오랐수다. 아 그런 거 보민, 아는거 아니우과게. 이거 어떻 그 스방이 별경해 나시니?(웃음) 그 추룩 허멍 해부난 춤 경해네 소문난 어른이 이십주게. (조사자 : 아.) 그거 춤 그런 거 보민 춤 그것도 춤 그걸로 아는 어른이엔 춤 허연. (조사자 : 그 어른은 성씨가 뭐시엔 해났수과?) 강, (조사자 : 강 마씀, 아. 아까 강씨) 으 촌 이름은 그 뭐시더라. 강정혁이(조사자 : 아 정확) 예, 강. 정혁이 건 이름이 들어우다만에, 첫 일름¹⁶⁷)은 그 뭐사헌디, 저 서당에 덩길¹⁶⁸) 때 부르는 일름 이랴주게. 강정혁이엔 현 거 (조사자 : 다른말 이름은 뭐가 또 있수과?) 다른 일름? (조사자 : 예예, 아까 돌이있텐...) 게고 저 뭐시던고 거 뭇 혼이라산디. 그자 보통 부르른¹⁶⁹) 정혁이, 정혁이, 정혁이 불러났수다.

-
- 155) 가져왔느냐
 - 156) 스방이, 그 근처가
 - 157) 매우 잘 안다고
 - 158) 가까운데
 - 159) 불을 지퍼서
 - 160) 불을 전부 꺼서 내려왔는데
 - 161) 어둡다
 - 162) 소나무
 - 163) 불타버려서
 - 164) 자기
 - 165) 조금도
 - 166) 당하지
 - 167) 이름
 - 168) 다닐
 - 169) 부르기는

10. 흐리물

제 보 자 : 강원학(남·88세, 금덕리 1863 - 2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3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흘래물. 이, 이 우쪽의 우쪽의 흘래물이 아니고 흐리물이라. 느랑 물이 흘러. 경헌디 그자 그 샘을 흘래물 흘래물. 그거 흐 춤 해¹⁷⁰⁾ 흘래물이엔 허여. 전이 그 부락 그디 있주게. 이 무슬보단 그디가 먼저 부락이 먼저 되나서. 그던 크고, 이던 작안 했단에 이디가 크난에 거기서 거기 향사, 향사도 거기 있단에 이디가 커노난 에 그 향살 이래 원견.¹⁷¹⁾ 경해네 해난디. 그거 흐리물인디 저 흘래물.

전이 전인 집 지붕 덮으는, 새¹⁷²⁾로 집을 덮어났주기. 새로 집을 덮어난. 새가 아주 귀히여. 저 엄쟁이 엄쟁이 허민 엄쟁이도 구엄, 중엄, 신엄 삼런디. 전인 마 새벽이 붉기 전이덜 오란 막 새 도적질 허젠 마 그 인칙덜¹⁷³⁾ 오는거. 마 그 경헌 전이 그디 사름 서히¹⁷⁴⁾ 엄쟁이꾼이¹⁷⁵⁾ 오멍 헌디. 그 거문턱이 여자 할망이 물 질어당 조반 허젠 허벅 저네, 이래 오멍 헌디, 그 사름은 혼 사름이 처음으로 그 아미도¹⁷⁶⁾ 오란난 것 그타.¹⁷⁷⁾ 서히가 오는데 그 혼 사름고라¹⁷⁸⁾ 이거 거문턱이. 흘래물이엔. 흐리물이엔 헨젠디, 흘래물이엔 해노난 그 여자가 경허난에 이젠 허벅 확하게 부러 데끼곡,¹⁷⁹⁾ 이거 어느 느 어멍 나 아방이 이디오란 헐리해나시난. (웃음) 웃으른 헌 후젠 스믈¹⁸⁰⁾ 그 여자한테 춤 죽을 뭘 맞안. (웃음) 어느 느 어멍

170) 많이

171) 옮견

172) 역새

173) 빨리, 새벽에

174) 새 명이

175) 엄쟁이 사람

176) 아마도

177) 같아

178) 한 사람에게

179) 던지고

180) 아주, 매우

나 아방이 이디 오란 헐리해나시넌 허멍 그젠 막. 뒤센¹⁸¹⁾ 대답을 못 허여. 그 물도 이젠, 저 그디 질¹⁸²⁾ 허멍 영 경 해네... 이 촌 지금 흐리물도 수방에 알기로... 그 물도 이젠 으서져서.¹⁸³⁾ 그래 질 해불고 뭐해노난.

11. 도채비 이야기(헛불)

제 보 자 : 강원학(남·88세, 금덕리 1863 - 2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3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도채비엔¹⁸⁴⁾ 현 건 헛불이라. 헛불. 옛날은 헛불 저거 현건디. 이 군. 무시¹⁸⁵⁾ 죽 어난 디도 군 군들덜 있고, 사름 죽영 현디도 그 군. 저 사름 화단 그튼거 씨워근에 그 어딜 내불민, 군으로 그디가 도채비가 되곡 현디. 옛날은 생사름¹⁸⁶⁾은 허고 도채비허고 그째 말고르멍¹⁸⁷⁾ 땡겨¹⁸⁸⁾나시메. 그디 솔더래도¹⁸⁹⁾ 흘리와근에, 그냥 귀신이 생사름 흘리와당 들이치고, 어디 그디 어염¹⁹⁰⁾에단 건 밀려 불고, 솔에 들어 간 거 보민 어디 방더레 들어간 거 보민 신 벗어근에 나두고 해근에 그 솔에 드몰어나 심에.

도채비는 경허고 영 말고르멍 해근에 그 생사름은 달밤이 굴메¹⁹¹⁾ 굴메가 있고 그 귀신 떠잡이 현 건¹⁹²⁾ 굴메가 어신 걸로 굴메 어신 걸로 그 때 알아났젠 허여.

181) 무엇이엔

182) 길

183) 없어져서

184) 도깨비

185) 말

186) 산 사람

187) 말하면서

188) 다녀

189) 솔에도

190) 구석, 한쪽 모퉁이

191) 그림자(影)

192) 귀신같은 것은

그 귀짓. 춤 굴메가 어서. 게고 그 도채비 경 질 문 돌궤물¹⁹³⁾ 돌궤물 그 어
명 이제 어중간 허믄, 돌을 영 닥닥허민, 그 돌궤물이에 허민, 그 귀신 도채비가
사가졌주게.¹⁹⁴⁾ 경 해나서. 전인 춤 그 도채비엔 현 귀신이 사름 흘려당 어디 그디
어엿더래도 놓고 솔에래도 드밀르곡 여부가 아니어났주게.

12. 줌 풀고 산 이야기

제 보 자 : 강원학(남·88세, 금덕리 1863 - 2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3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옛날은 또 이상헌 디가 하나 셔. 고성펜이.¹⁹⁵⁾ 고성이 춤 아무 디로 가당 줌¹⁹⁶⁾
많은 사름이 셔. 이따근에,¹⁹⁷⁾ 영 줌도 잘 허고, 잘 허영. 혼 여자가 춤 그디 해근
에, 줌 현디 정간¹⁹⁸⁾ 풀아블랜게. 줌 어디 살 사름 셔. 요 아무디 줌 사는디 그 설
덕. 설덕 그디 뒤 저 돌 어기¹⁹⁹⁾ 그디엔. 이젠 그말 들은 후젠 그디 간 후젠 원 줌
을 사주게시리. 줌을 막 사주게시리 허연. 춤 허여네 경 허난에 그디 어떻 주라와
뵈여.²⁰⁰⁾ 그 영 자난에 줌 을매나²⁰¹⁾ 풀뻔? 줌을 민짱 풀쿠텐. (웃음) 이젠 경한에,
한에, 깨나보난 꿈이난 경 골아져라.²⁰²⁾ 줌 자지 못 현 거 줌 많은 것보다 더 우터
더랜²⁰³⁾ 험디다. 원 노시게 밤이 뉘도 줌 영 아니 오란 붉도록 원. 원. 제 줌을 풀
지 말걸 현 후젠 원 이거 원. 그냥 뉘보당 원. 영 혼 줌 자지 못허여네, 이젠 드러

193) 돌가루

194) 없어지다. 사라지다.

195) 고성 쪽에

196) 잠

197) 가끔씩

198) (등에) 지고 가서

199) 어귀

200) 돌려 보여

201) 얼마나

202) 말해지더라

203) 전디기 힘들다고

닝 헨 경 허멍 해. 제 줌 풀지 말컬. 그디 강 풀지 말컬. 줌 해부난에. 그디 가근에 더러²⁰⁴⁾ 사오랜. (웃음) 이젠 에이 영 해보젠. 그디 간 후젠 다시 윈. 줌을 그만 더러 냉기컬²⁰⁵⁾ 현 후젠 윈 된 폴아냥이네, 곤란허덴 허멍 막, 아미편지 이저 미안해도 줌을 더러²⁰⁶⁾ 돌려줘사켄. 경허멍 해낫젠 험니다.

13. 부자(父子)가 소 찾으러 가서 강록 잡은 이야기

제 보 자 : 강원학(남·88세, 금덕리 1863 - 2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3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전의 소덜은 이 여름덜 나민 저 우이 곳बाट 메났주게. 이젠 소 추지래²⁰⁷⁾ 가는 디, 애비 아덜이 소 좇안 간. 그 소 사는 바딤 가지난 가로 나산. 현 아방은 서쪽으로 가고 아덜은 동쪽으로 영 간 보난 그디 저 숙물이에 현 디 그디 춤 물이 너르주게. 그디 간 보난. 그뻐 강록덜²⁰⁸⁾ 신 때에 숫강록 둘이 짚레블젠 와당 와당 햄주게. 사름 가도 짚레허연 물란, 그냥 아덜네미가 고로든 후젠 흔착 손에²⁰⁹⁾ 흥나씩 영 심엉²¹⁰⁾ 허난. 그젠 강록이 가로쳐 돈젠²¹¹⁾ 허주. 허난. 이젠 내불긴 아스롭고²¹²⁾ 그냥 영 잡젠 허난 가슴이 벌어져 갈 판이라. 이젠 아이고 가슴이여 아이고 가슴이여 허난. 아방은 제 가로간 저디 허난에 아덜 소리나난. 쇠 이디 있수다. 쇠 이디 있수다 하는 소리로 알아들언. 이젠 그냥 영 오란 보난. 마 아덜이 마 강

204) 조금
205) 남기컬
206) 조금은
207) 찾으러
208) 사슴
209) 한쪽 손에
210) 잡아서
211) 도망가젠
212) 아깝고

록을 심은 후젠 마 아이고 가슴이여 아이고 가슴이여. 그걸 다대기라게²¹³⁾ 다대기
라. 경 안해도 버청허는디²¹⁴⁾ 영 다대기랜. (웃음) 다대기라. 다대기라. 허멍 막 다
올런. 아방이 활짝 나신, 아방은 오란에 영 허라 보게 헨. 심은 후제 그자 영 다닥
다닥 달으난 회뜩회뜩 자빠지난²¹⁵⁾ 애비 아덜이 혼마리씩 저아정 오랏젠.

14. 힘센 사람 이야기

제 보 자 : 강원학(남·88세, 금덕리 1863 - 2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3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요 우의 그 사름에 바티 우리 밧쪽으로 영 넘어근에 조금 올라간 디 있는디. 그
도²¹⁶⁾엔 그 안 바되서, 막 으라²¹⁷⁾ 사름이 텡기멍²¹⁸⁾ 돌 잘 안허여. 여러 사름이
경허난. 왕석²¹⁹⁾을 둥그려다네, 탁 마구타²²⁰⁾ 버렸주گی. 그 힘센이가. 이젠 그 때도
해변도 우뚜리 간 무멀²²¹⁾을 갈아 나서. 이젠 불철²²²⁾ 물린 후젠 허연에 물에 잔
뜩 싯그고 물에 싯근 것 만이 깊어 지고 헨 그디 간 보난에 돌 마구탸주게. 영 큰
돌로 허난, 이젠 짐도 부리지 안 헨 양 그 돌을 영 영 해보므로 어드레 노시 왜게
져.²²³⁾ 그냥 올리켜. 짐 진 양,²²⁴⁾ 물 짐 싯근 물을 옷곳²²⁵⁾ 들른 후젠 그자 그 우
터래 해근에 (웃음) 경헌걸 귀경해났주게. 윈 심 씨어났주게.

213) 부딪히라게

214) 힘들어서

215) 넘어지난

216) 입구

217) 여러

218) 다니면서

219) 큰 돌

220) 막아

221) 메밀

222) 재

223) 옮겨져

224) 그냥

225) 그대로

15. 풀씨름 헌 이야기

제 보 자 : 강원학(남·88세, 금덕리 1863 - 2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3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경해도 그것 춤 우스는 거라. 이제 이 우리 일가의 풀씨름 잘 허는 어른이 셔나 서. 그 어른이 저 가문동 논을 산. 이제 그던 논에 가노랜 허난, 그 허귀 그 춤 경 썬 사름 사는 디거든. 그디 그 질레에²²⁶⁾ 신작로 한질가에 혼해였다네 이디 사름 덴겨가난 양희비 양희비 일름은 그자 양희비주게. 양희비 오랏져. 저 부서방 저 사 름 강 풀씨름 허여. 풀씨름 허여. 허멍 허난. 양희비엔 헌 므슬 어른은 춤 막 저 그기 다 원강²²⁷⁾ 치외송나난에²²⁸⁾ 뭇시언계²²⁹⁾ 그 의례 질걸로 알아네. 해도게 막 권허는 브름에 춤 계겐 해보카 허멍 헌 후젠, 이디 보난에 전인 이 알로²³⁰⁾ 신작 로도 린 돌 혈때, 돌이 바로 막 튀어난 디가 셔. 그 바르디²³¹⁾ 간 이제 우리 해 보 자. 그 부씨 영 손 영 심어가난에 힘 내기 전에 이 유수암 이 우리 긴당이²³²⁾ 앓 아 잡아가당 돌리레 탁 허게... (웃음) 나 윈 허난. 유수암 강영학이 한티 풀씨름 졌져. 와! 허게 허난에, 바로 허민 혼귀²³³⁾ 착수 못 혈게주게. 이거 그자 확 해부난 권허는 브름에 그자 경헐 경해났주گی.

226) 길가에

227) 워낙

228) 소문이 나난

229) 무서워해서

230) 아래로

231) 그 근방에, 그 근처에

232) 친척이

233) 하나도

16. 설촌 유래

제 보 자 : 강충희(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3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여기서 언제 사름이 살았느냐, 설촌이 언제 됐느냐 이렇게 허면은 그 고려 원종 12년에 이 향파두성에 김통정 장군이 이끈 삼별초군이 들어올 때 그때 그 어떤 늙은 스님이 같이 따라왔어. 따라와서 요쪽 물 있는데 있잖아이. 그 물 바깥에이.²³⁴⁾ 여기 샘물. 샘물 그 때는 조그만한 샘이었거든. 샘을 발견해가지고 좋겠다 싶어서 거기다 조그만한 암자를 세웠어. 암자를 지어서 그 이름을 태암감당(太庵龕堂)이라 했어. 큰 암덕 태암감당 (조사자 : 무슨 감자?) 감실 감자텐 모들락 아래 용용자가 감실 감자라. 그 부처님을 뜻하는 말이라, 모들락 아래 용용. 아주 쓰기 힘들어. 그 감당이라 해가지고서 암잘 하나 이제 지었어. 이것이 처음으로 이 지역에 인적이 닿은 사름의 발자취가 닿은 그 시초 그때는 이디 다 산림지역 그냥 아주 그냥. 옛 말로 꽃밭. 그런 거랐지. 그래서 거기 그 음락 아래 암자를 지어 가지고 태암감당 이렇게 이름을 허면서, 아 실은 삼별초 군에 그 무군장굴을 빌기 위해서 그렇게 암자를 지은 거겠지. 그래서 그 태암감당이라서. 불사를 그때 처음 일으켰는데, 이것이 아주 제주도에 최초의 그 불사 우린 이렇게 봅니다. 그 전인 가장 오래 되었다고 하는 모린당사가 언제 지었나면 그 후에 고려 원종 때가 아닌 고려 충렬왕 때 지었거든. 그걸로 봐서 이건 고려 원종 때니까 최초의 불사다. 그렇게 우리 주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사름이 처음 인적이 닿았는데, 그 향파두성의 그 여몽연합군에 그 함몰될 때에 그 와중에 김통정 장군의 처가 있었거든. 이화선이라고 이화선의 어머니가 그디 같이 있었어. 이화선의 어머니가 김통정 장군에게는 장모가 되는 거지. 그 옛사름 아래 종달 수하를 데리고서 어떡 왔느냐면 여길 와 가지고 그 지금 물이 흘러 가는 저 밑에 저 밑에 가서, 지금은 동네 바깥디지. 거기 가서 흙으로드

234) 바깥에

가 돌로 토막을 지어가지고서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명을 다하게 되니까 이 토막 안에 불이 꺼짐에는 이 축을 막아달라, 도를 막아달라 해가지고 거기서 사름이 살았는데, 이게 사름 살기 시작한 처음이라.

그래서 그 거기를 지금 종신당(終身堂) 마칠 종지, 몸신 지, 집당이라서, 일생을 마쳤다 하면서 일생을 마쳤다 해서 종신당이라고 불러와. 속칭 마 이렇게 해서 사름이 살았는데, 그래 사람이 살았다고 해서 마을 형성이 다 된 건 아니거든. 옛날에 마을이엔 하면은 고려시대는 약 이십개, 이십개 호, 스무남은 호 쯤 되민 촌이엔 했고, 오십호 정도 되면은 리, 마을이엔 했고, 칠십호가 넘으면 향. 그러니까 지금도 큰 마을에 가면은 이장말고 향장이 있어. 이장말고 향장이 있는데, 칠십 호 미만에는 이장만 있거든. 또 이십호 미만이면 이진 촌. 뭐 옛날은 그렇게 했어. 촌도 아닌데는 소, 몇 소장 몇 소장 하지 안 해? 그 소 소라. 소, 촌, 리, 향 이렇게 옛날은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애. 그렇게 했는데 그 때 사름이 살기는 그렇게 살면서도 마을 형태는 갖춰지지 않았거든. 그거허믄 고달천, 극락천, 샘물이 많아야 되거든. 생수가 경 많은데 이디 저디 사름이 많이 흩어졌어.

이조 개국 초기에 그 확실헌건 모르지만은 우리가 추정하건데 이조 명종 시대로 추정하고 있어. 그 때 이 지방 토호의 한 사름인, 아주 옛날 토호의 한 사름인 아주 옛날 토호란 아주 지방 세력 모양 세력이 셋잖아. 그 토호의 한 사람인 흥덕수란 사름이 이섯어. 이 사름이 사름덜을 다 이래 이주시겼어. 뭐 극락천 부근에 살던 사름. 고달천 부근에 살던 사름. 뭐 기타 등 등 살던 사름을 다 이주 시키고, 자기덜 일가 그리고 옛날은 그 토호 쯤 되면 비복 종, 종, 종덜을 많이 거느렸거든. 다 데려 가지고 와서 여디 살아라 해가지고는 그 터가 지금 요쪽인데, 딱 살면서 이제 그때 마을을 형태는 갖춘거라. 현 오십여 호 이상 딱 맨들어 놓고²³⁵⁾ 이거 유수암이다. 허연 딱 갖추어 놓은거라. 유수암이란거 어떻게 유수암이냐 허믄 여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허믄 영실 그글담있는데 거기서 울래악을 통해서, 불래악서 천백고지를 통해서 천백고지가 노루악에서, 노루악에서 다시 이쪽으로 흘러 온 거라. 그래서 여기 도체²³⁶⁾ 생수가 많이 나고 언덕이 여기는 이 우에 가, 이주 그냥 이렇게 막 도체에 그냥 그 봉우리가 많해. 거니까 이렇게 물이 흐르니까 물이 흐르는 언덕이 그런 산세때민에 이 유수암엔 현 이름이 켜 붙은거 같애.

235) 만들어 놓고

236) 도체에

17. 예조 좌랑이 된 이부성

제 보 자 : 강충희(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3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이부성이라고 원래 대정 고부 이씨라서. 대정 고부 이씨인데, 어떻게 어렸을 때 이 마을에 장가를 왔거든. 이 마을 강씨 집안에 참 장가를 들었는데, 나이가 열 일곱살 때 장가를 들어서. 장가를 들었는데 그 장인되는 분이 바로 우리 조상인데 아주 문장이 좋고 험 뭐했거든. 헌데 대정서 여기 장가와 가지고 해서 그자 처가 집에 와서 먹고 놀고 그자 허는 일이 없어. 아는게 없는데…….

하도 곱게 잘 입고 그냥 잘 차리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하루는 그 옛말로 저 뭐이나 사령놈이라고 했어 사령놈. 아 저기 포졸 알아져. 그 관에 그 뭐야 그 그때는 포졸이랜 했지. 포졸. 그 사령놈이 지나가면서 도련님 이거 좀 봐 주십시오 쪽지에 뭐 써 가지고이 이거 어디로 가라 헌건지 이것 좀 봐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 말여. 그니까 열 일곱살 난 그 도령이, 이 도령이 난 글 몰라요 이러니 아 차림새는 보니까 그래도 부자집의 귀공자 같이 차렸는데 글 몰라요 허니까 그 사령놈이 가면서 뭐라고 했다면은, 부현관 집에 청나라 말이군. 그랬단 말이여. 그 무신²³⁷⁾ 말이냐 허면은, 옛날 어떤 부현관이 있었는데, 그 집에 말이 좋은 말이 하나 있었어. 근데 이 말이 너무 좋다 보니까 부현관이 그 말을 너무 아껴서 이 말은 뭐 일도 안 시키고 타지도 않고 먹고 놀기만 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말 자체가 쓸모가 없는 말이라. 이 말은 너무 아끼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현관 집에 청나라 말이군. 그 말은 알아들어 가지고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런 뜻으로 알아들었거든. 그래서 하 내가 참 일개 관졸 앞에 말이여. 옛날은 포졸이면 참 상놈시했거든. 저런 하찮은 인간 앞에 내가 이런 모욕을 당했으니, 이거 다시 글을 좀 읽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자기 처한테 와서 나도 글을 읽을테니 장인한테 좀 글을 가르쳐 주도록 이야기해달라.

237) 무신

그러니까 딸이, 아버님 저 사위 글 좀 읽으켄 험수다. 좀 그르쳐 줘봅서 이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 큰 놈이 무슨 글을 읽겠느냐. 그래도 노느니 그거 한번 해봅서 하니까, 그러면 그러지 험. 천자문 써가지고서 익히는데, 뭐 현 열흘이 가도 읽었던 건 까먹고, 까먹은 건 다시 모르고, 이렇게 험 도저히 되질 않거든. 글 못허켜. 그래도 이놈이 하도²³⁸⁾ 그 외부의 충격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할려고, 그 집요한 마음을 가지고 혼 보름 그렇게 혼 이주일 동안 막 읽던 거 또 읽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머리가 터졌어. 그냥 어떻게. 다음부턴 그냥 이제 제대로 되어 그냥. 한 번 골아주민²³⁹⁾ 잊어먹지도 않고 잘 되고 또 혼날 골아주민 다음부턴 두 세 가질 더 알아. 그냥. 그래서 나이 수십줄에 거이 들어서 삼 십 일곱일거라. 삼십일곱에 과거 시험을 봤는데 춤 득과를 했어. 득과를 해가지고서, 예조좌랑까지 했는데, 그 사람 무덤이 아마 여러분 영실로 등반해 봤으면 알거라. 영실에 거기 묘가 있어. 거기. 등산할 때 보면, 거기 가면 예조좌랑 이부상 묘가 조그만케 그저 영실 아주 우에 올라가는데 거기 있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이제 과거를 험 분이야게. 그래서 이디 시조지. 경헌 이디 와서 살았는데, 그렇게 그 외부의 충격과 자극에 의해서 춤 과거를 한 분이라 해가지고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어주게. 그거 춤 심든전데.²⁴⁰⁾

그 분이 대정서 자기 집에서 처가집에 올때는 말 안장에 책을 탁 퍼 놓고 말이 걷는대로 말이 걷는대로 그자 이 책을 탁 퍼 놓고, 일절 삼천 경계를 살피지 않아. 그자 가만히 말 안장에서 책을 꺼내 보는데, 말은 이 유수암 바른대로 오면은 이래 와야 될텐데, 시에 저 향교에 갔던 물이기 때문에 그만 무수내 지금 무수천... 그기 가다가 말이 그냥 어떻게 발목이 그냥 가웃 했는데, 떨어질 뻔 했어. 그래서 바라보니까 이제 유수암을 넘어왔다 말이야. 말 하는대로 그냥. 아이 잘 못 와졌구나. 다시 말을 돌려서 유수암을 향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드디어는 과거를 험 그런 사람인데, 춤 입지전적 그런 식으로 춤 추앙받는 분이주게. 경헌 과거를 했다.

238) 매우 많은

239) 가르쳐주면

240) 힘든 일인데

18. 이대상

제 보 자 : 강충희(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3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다음에는 그분 손자가 있어. 또 그분 손자가 있는데 이대상이라고 춤 할아버지가 과거를 했으니 나도 과거를 꼭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는 그 향교, 향교가 유일한 학교였거든. 이 지역 학공데. 향교에 가서 그때 접 산다고 했어. 지금 말로는 기숙사에 산다하는 말이지. 접 사는데 옛날에는 글을 읽을라면 목청을 봐서 그냥 소리내서 읽었거든. 그런데 그 글을 읽다보니까 목소리가 좋아서 그 향교를 지키면서, 거기 수복이라고 하여 수복이 딸이. 수복이라하면 향교에서 청소도 하여주고 심부름도 허곡 뭐 그런 지키는 사람이서. 그 사람이 그냥 그 반해가지고서 그 여자가 반해가지고 아 글을 읽는데 이렇게 달이 툭 비치는데 창가에 그림자가 어둑어둑 비친단 말이야. 글 읽다 말고, 게 누구냐 허니까, 예 저기 수복이 딸이우다. 왜 왔느냐? 허난 도련님 글소리가 하도 춤 좋아서 글소리 들으러 왔습니다. 거기서, 들곡 들고가라. 이러니까 그날 밤에 거기서 그자 바깥에서 글 읽는 소리를 듣고 갔는데, 다음날엔 또 그렇게 그림자가 달빛에 어른거린단 말이야. 누구냐 허니까, 예 어저께 왔던 계집아입니다 허난, 들어와서 들고가라 헨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서, 글 읽는 소리만 듣고, 읽는 거 보고 듣고 헨 갔는데, 아 다음에도 또 그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서 보니까 이번엔 뭐 술 허고 뭐 술안주 허고 가져와서, 이거나 잡수시면서 읽으십시오 현다 말이야. 그제는 네 이년 이 꽤 씩 혼 년, 내가 글을 읽어서 과거 급제 할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유혹하려 하느냐, 허여가지고 좋아리 걸 어라 해가지고 회초리로 그냥 여자를 때려 붙었어. 다시는 이래 오지 말라. 이렇게 그냥 여잘 물리치고 글만 쪽 읽었지.

읽었는데, 글을 다 읽어서 과거 시험을 볼라허니까. 이렇게 옛날엔 한라산이란 명제로 합격을 했는데, 그뻐 합격을 못했지. 처음에는 아 이렇게 시상이 떠오르려고 가만히 이렇게 허면 그 여자가 떠올라. 그 여자는 상상병 걸려서 으웃 죽어볼

있어. 그만 그때 그 과거 혈 무렵에 도저히 못 잊어서 그냥 죽었는데, 여자 얼굴이 떠올라. 시상이 그 시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여자 얼굴이 떠올라. 안되어 그냥. 두 번째 과거도 그렇게 떠올라서 안되어. 아 이거 큰 일났다 싶어서, 그 유골. 여자의 유골을,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내가 거두어 줘야겠다 해 가지고, 선양 앞에 가서 그냥 묻었어. 그냥. 시집 장가도 안 가고 그냥 유골만 갖다 묻었는데, 그 다음에 과거가 되었어. 에 그 빈홍록에도 올라 있는데, 그 그 제목은 한라산으로 지어 있는데, 춤 유명한 분이었지.

그렇게 집님이 춤 강한 분인데, 그 분이 과거 허기 전이며 과거 헌 후에도, 역시 그랬지만은 이 서당을 개설했어. 자기 집에다가 서당을 개설해가지고서 많은 젊은이들을 모아 가지고서 글을 가르치고 이러는데, 그 서당이름은 매월서당이었어. 매월. 매월서당이라고 해가지고서 그 때부터 유수암에 그 학문이 일어나고 학문이 일어나서 그냥 그 여파로서 유수암은 옛날부터 문촌이라 허는 말이 이제 생기게 되는, 그분 때문이라.

19. 허당장이야기

제 보 자 : 강충희(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3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여기에 그저 선현에도 나오는데 강계우라는 훌륭한 분이 한 분있었어. 이 사람이 병조 참지까지 받고 처음이 강봉사라는 사람과 함께 순조 때에 과거를 봤는데 참 훌륭한 사람이라. 훌륭한 사람인데 에 강참지허고, 허당장. 허당장은 소길리 사람인데, 에 어느 걸 애길 허카? 에 소길 사람 애길허자.

소길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허당장이라고 나이가 혼 칠십 가까이 이제 된 사람이 돌 형제를 데리고 살았어. 돌 형제를 데리고 살았는데, 그 부인은 일찍이 사별해 버렸거든. 마침 육지에서 온 어떤 손님이 지나가다가 그 집에 들러서 하룻밤을 이제 유숙하게 되었는데. 좀 부자집이었주게. 아 저녁 상 차려온거 보니까, 좀 보통이 넘어. 아주 융성하게 잘 차려왔어. 아 이거 보통 촌에서 이럴 수 없는

데, 어떤 일인가 헐 보니까, 사람은 잘 사는데 마누라가 없고 딸 형제만 있어. 딸들이 차려온거라. 아침에도 역시 그렇게 잘 출려줘. 아 이거 좀 이 공을 좀 갖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 주인보고, 당신 보아하니까 나이가 이제 근 칠십이 다 되는 모양인데 딸만 형제 있고 아들은 없는데, 아마 후가 없는 걸로 아는데, 당신 이래도 되겠느냐 헐. 아 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 내가 당신네 집에 후를 잇게 해줄테니까 나를 따르라. 그래 아이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그때는 그 그 나그네가 육지 사람이었는데, 그 허당장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면, 이 유수암 경 저디 큰 동산이란디 왔어. 거 산에 탁 헐 묘자리를 보니까, 여기가 고목생춘(古木生春), 고목봉춘(古木逢春)이엔 허여. 고목봉춘이다. 늙은 나무가 봄을 만난 그런 형국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산을 자기 아버지 산을 갖다 이장해라. 그러면은 좋은 수가 있을 것이다. 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허는 말이 여기에 자기 아버지 산을 이장해 놓고 무덤을 만든 후에 내려가다가 그후엔 내려가든 어떻게 하든 간에 처음 만난 여자를 놓치지 말라. 처음 만난 여자를 놓치면은 이전 이장해도 그 묘자리를 써도 소용없다. 이거 허난 당부를 잘 했어. 명심하라. 예 알겠습니다 허연. 손님이 떠나고.

이젠 날짜를 받아서 자기 아버지 묘를 이장해 가지고서 그 큰 동산 거기완 썼는데, 자기 생각은 그런거지. 처음 만난 여자를 놓치지 말라 했으니까 그자²⁴¹⁾ 어떤 과부가 하나 걸러가지고, 그자 얻어 가지고, 어떻게 춤 자식이나 하나 낳아서 대나 이었으면 허는 그런 마음만 있었는데, 거 장을 딱 끝내고 이제 다른 역군들을 썩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만 좀 그 좀 감회가 깊었겠지.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저 웃동네 마을로 썩 내려오는데, 물둥이를 그 진 여자가 눈에 썩 비치는 거라. 아 보니까 처녀라. 육십 다 된, 육십이 넘엄 칠십이 다 되는 그 노인네가 그 정씨가 말하기를 처음 본 여자를 놓치지 말라 했는데, 이거 큰일났다. 이거 그래도 혼 삼십대가, 혼 사십대가 된 과부라면 몰라도 이거 젊은 처녀를 어떻게 이거 칠십 난 노인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야. 마음에 근심이 태산 같지. 그래도 놓치지 말라 했으니까 어떻게 해봐야겠다 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는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집에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가는데 가서 이제는 그 색시 어머니 아버지 보고, 그런 얘기 했지. 나 소길에 사는 허당장이란 사람인데, 저한테 딸을 주십시

241) 그저

오 허니까, 이 망령들린 노인네야 아니 이게 말이나 될 법이냐고, 누구 신셀 망칠려고 이러느냐고 그냥 호통을 하고 그냥 망령들려서 이러는 거겠지만 이제 생각을 했어. 그래 말도 못하고 나왔는데, 참 이거 기가 막히다 말여. 처음 본 여자를 놓치지 말라. 그 말만 자꾸 머리에 떠오르고 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허나,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기다리다가 마음을 고쳐 먹었지. 날이 어두워서 밤이 이속해지면은 틀림어서 이 여자가 나이가 든 여자니까, 처녀니까, 자기 방을 따로 쓸 것이다. 옛날에는 작은 구들²⁴²⁾ 그때는 침입해서 여자를 강제적으로 겁탈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이런 독한 마음을 먹고 이제 해가지고, 밤이 이속해지기만 기다리는거야. 아 기다리는데 아니 한밤중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 이 여자가 그 다 잠이 들고 뉘웠을 때 밤중에 이 여자의 방을 침입한거라. 침입해가지고서 그냥 강제로 겁탈 할려니까, 이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소릴 지를거 아니? 그제는 부모가 일어나서 어떤 일이고 보니까, 낮에 왔던 그 노인이라. 그젠 거기서 따귀를 때리고, 그냥 발길질하고 또 막, 아 이런 미친 영감이 어딴느냐 해가지고는 얌전히 그 좀 저 비칙(귀체)를 쥐서²⁴³⁾ 그냥 내보냈는데, 그래도 이 영감은 좀 마음에 이걸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일념만은 가지지 뭐.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건 잘도 안하고, 어떻게 하까 헌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유수암에 가면 강침지 어른이, 가면은 참지 어른이 일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허곤 뒷날 아침에 참지 어른한테 와서 천후사정 이야기 꼭 이야기 했어. 참지 어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참 조상을 위해서 대를 잇겠다고 그 춤 성심이 성²⁴⁴⁾ 놀랍거든. 내가 어떻게 해 보겠다. 그때 참지가 하인을 시켜서 저 상동에 가서 누구 오라고 해라. 탁 불러다가 그래도 허당장이면 양반이고 너넨 쌍놈인데, 양반 사위해졌으면 됐지 뭐가 그렇게 아니꼽냐? 그리고 저런 사위 맞으면은 너의 집도 좀 많이 보호를 받고, 좀 후원을 받을 건데, 그러면 살림도 늘고 좋을텐데, 하겠느냐 못 허겠느냐? 옛날은 쌍놈덜은 양반 말을 거역을 못했어. 못 허겠습니까 했다가네 이놈허든 그냥 이젠 죽어나는 거주게. 네 그자 분부대로 따르겠습니까 행. 그래서 혼인을 했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으면, 당사자인 여자의 마음은 어떻겠냐 말여. 그랬는

242) 작은 방

243) 창피를 쥐서, 부끄러움을 쥐서

244) 있어서

데 춤 일년 후엔 아들을 낳았지. 아들을 낳아놓고 춤 그 여자아이 한 맥허가지고 한이 맥허가지고서, 그냥 두사람 중에 그 엄마는 병이 나서 죽고... 그 딸들이 그 런거라. 우리 아버지가 칠십인데 어떻게 칠십에 자식을 볼 수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 아버지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허는거라. 그래도 춤 그 당시 돈있고 현 집 이니까 유모를 이제 정해가지고 젖을 맥이면서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딸덜이 도 저히 이진 자기의 그 아버지가 혈통을 받은 자식이 아니라 해가지고서 춤 냉대를 허여가니까, 내가 죽으면 그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참지 영감한테 와서. 사실 집안 형편이 이러 이러 합니다. 그러냐고, 그러면은 내 지시를 해준다.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뭐 글 하나 써줬어. 글을 써주고 너의 아들이 분명할진 데, 마 제사지내는 병풍, 그리고 그 입는 도복 이런 것 등을 다 그 아들에게 주고, 아들이 남의 집살일 허든 어떻허든 하여튼 뒤라. 그리고 딸들 앞에도 다 재산을 주고 이렇게 나중에 알 도리가 있다. 이렇게만 지시를 해줬어.

그로 후제²⁴⁵⁾ 몇 해 어선 그냥 그 허방장은 죽꼭 딸들이 이제 다 재산을 차지해 버리고, 뭐 우리 오래비가 아니다 해가지고, 다 차지해 버리고, 그러니까 그 허도령 은 병풍허고 무슨 옷가지허고 종이허고 붓허고 뭐 그런 것만 이제 가지고 남의 집을 이제 살았어. 남의 집엘 가서 일해주고 그자 얻어먹고 이러면서 춤 사는데, 나 이가 현 열댓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너 그러지말고 관가에 가서 그 등장을 들라. 옛날엔 소송하는 걸 등장이엔 했거든. 등장들어 가지고 사또한테 사정을 얘기하면 혹 좋은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병풍허고 그 붓과 또 옷과 무슨 그런 아버지가 준 그런 걸 이제 가지고 가서 저도 분명히 허씨 집안의 자식인데 누이들이 다 재산을 차지하고 저에게는 이런 거 밖에 없습시다. 이를 알려주십시오²⁴⁶⁾ 이렇게 했어. 아 병풍을 가졌으니, 가져오랜 한 퍼보니까 아무 흔 적이 없어. 자기 자식이 아니라면 병풍이나 이런 걸 줄 리가 없다 말이여. 자식이 니까 그 당시 제를 지낼 땐 그런 유물을 반드시 주었을텐데, 병풍엔 아무것도 없어. 뒤를 가만히 보니까 병풍 뒤에 무슨 쪽지가 하나 있어. 뭐 저건 현 병풍이니까, 이거 무슨 구멍 뚫린 것을 갖다가 떼웠는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떼어보니까, 그 뭐라고 써졌는가 하면 '칠십득남 비오자'(七十得男 非품

245) 그로부터 얼마 뒤

246) 잘 해결해 주십시오

子), 칠십득남. 칠십에 얻은, 득남. 얻은 애는 비오자. 아닐 비자에 오자. 나의 아들이 아니다. 해석했어. 칠십득남 비오자라, 칠십생남이엔 허여. 칠십생남 비오자. 칠십에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이진 한자로 딱 한자만 써져 있어. 일곱 자가 딱 써졌어. 아 이상하다. 이젠 그 목사가, 사또가 가만 생각허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어떻게 칠십생남 비오자, 칠십에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병풍을 주고 도복을 주고 제기 같은 이런 걸 주었겠느냐. 목사가 판정을 못해. 생각을 못해. 한나절을 그렇게 생각해도 도저히 이거는 이치가 맞질 않아. 근데 이진 누가 쓰기는 써 췌는데 참 이거 무슨 곡절이 있는거다.

헌데 이 목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만나니까, 낮에 점심시간 때까지도 만나는데, 그 목사 똥이 아버지 앞에 점심상을 들여와도 점심을 들질않아. 그것만 이제 해독을 할려고... 아버님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목사딸이. 니 알 바 아니다. 그러지만 이야기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사실 약시약시허여²⁴⁷⁾ 등장이 들었는데, 병풍에 그랬더라. 칠십생남 비오자다. 칠십에 낳은 아들이니 내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을 썼드라. 그러니 이게 어찌 된 일이나? 이걸 해독을 못하겠다. 자기 아들이 아니라면 왜 이런 것을 췌겠느냐. 딸이 가만히 생각하다 생각해보니, 아버님 말이라는 것은 토를 달고 읽어야 될게 아닙니까. 토? 토를 달아 보십시오 칠십에 생남은 칠십에 생남인들 비오자라. 칠십에 토를 달면 그래. 칠십에 생남인들 비오자라 하면 칠십에 낳은 아들인들 내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 말이여. 토를 달고 읽어 보십시오 했거든. 아 토를 달아 가지고 읽어보니 그거라. 칠십에 생남인들 칠십에 낳은 아들인들 내 아들이 아니라. '랴' 자가 탁 들어가니까 말이 바뀌는 거야. 그냥 목사가 존등일²⁴⁸⁾ 탁치고, 아 됐구나 해가지고, 똥들 잡아들여라 해서, 이게 다 니 아버지가 해둔건데, 칠십에 낳은 아들인들 내 아들이 아니냐 했는데, 어찌 니 오래비가 아니냐. 갈라줘라.²⁴⁹⁾ 그래서 그 재산 누님들이 가진 재산을 좀 얼마 회수를 해가지고, 에 아들에게 주고 허씨집안을 지켜나가도록 해서 그 묘가 지금도 있어.

근데 그 당시 그 허당장이 참지 어른한테 고맙다는 사례로써 그제 밧 훈 필질

247) 이리이리한

248) 무릎을

249) 나눠줘라

켰어. 밧 한필지를. 이렇게 해서 촌 사람들이 그 밧을 참지왓이라고 해. 왓이라는 말은 밧이란 말이다. 그런 일화가 하나 있어. 이게 촌 우리 마을에서 생긴 일인데, 참지가 그렇게 글 잘 허연 아주 문장이랴주게. 그 분이 지금 제주향교 명륜당을 지어서 그 말하자면, 걸 뭐라해. 지어서, 그저 상항문. 상항문. 상항문을 바로 써서 지금도 그냥 현판이 있어. 아주 오랜 현판이 지금도 향교가민 있어. 그런 분이주게. 그런 일화가 우리 마을에서 생겨난거라. 옛날 어른덜 많이 이야기해. 칠십득남 비오자라 헌 말을 …….

20. 강계우(I)

제 보 자 : 강충희(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3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이 윗동네 옛날 목자²⁵⁰ 이서나꺼든. 목자는 뭐시냐면 그 향과두성과 함락됨과 동시에 원나라가 여기에다가 십, 십 개소의 목마장을 설치헌거라. 일소장에서부터 십소장. 거기다가 상장 녹상장까지 붙여서 십삼 개소의 목장 이제, 소장으로 십개 소장이라 허연. 여기가 오소장이 되거든. 이래 애월읍 관내가 오소장 되는데, 윗동네가 목자덜이 설치는 땅이주게. 자기네들이 관리허기 좋게. 니히들 여기 살아라. 그리고 말덜 납부허라. 그래서 인제 경했는데.

그 목자 가운데, 김 무시거 하나 있었는데, 그분네가 살 때 그랬어. 그분네가 살 때 촌 아주 어렵게 살고 이리는데 육지사람 다니다가 아 그 저녁밥을 잘 해 주고 뭐허니까, 내가 그 공을 갚겠다 허면서, 그 자리에서 저 지금 마사회 경마장 있는 우쪽에 그 봉쟁이틀. 봉쟁이라면 벌 봉자, 싸움 쟁. 벌 싸움허는 디라 말이야.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큰 나무라고 하는 건 가시나무가 있는데, 저 가시나무 앞에 가 산을 쓰면 당신네 뗏대 안 가서 발복한다. 이렇게 했는데 고맙습니다 허연.

그 때 산을 썼어. 썼는데 촌 아닌게 아니라, 어떻게 살림이 피어 가지고, 혼번은 지금은 그저 산디. 그 저 산디 있잖아. 산디. 육도 이 사람이 한 으든 섬을 해 먹

250) 목동

었어. 이 산디 으든 섬 해먹었다면, 그렇지 않아도 양반들이나 관가에서 이 산디 많이 해 먹었으니까 좀 내짜라. 옛날은 다 그랬거든. 거 착취한다고 토색질하고 착취하면은 이거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 무을 그 옛날엔 그 경륜당이지, 이젠 경륜당 앞이²⁵¹⁾ 가서 아 소인네가 금년에 산디를 으든 섬이나 해 먹었으니까, 헨디 이걸 무을에 바치겠습니다. 아 그 기특하다고 거 잘했다. 근데 그 정도만 얘기하니까 어떻 이상해. 느낌이 그자 기특하다. 착하다. 그 소릴 들으려고 내가 이걸 바치나, 에- 참지 어른이 모든 걸 잘 지시 지도를 잘 한다 하니까 이 어른한테 가서 의논을 해야겠다.

영감님 제십니까? 누게냐. 나 웃동네 사는 누깁니다. 저 금번 산디를 팔십 섬 해 먹었습니다. 이걸 무을에 바칠려고 합니다. 영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뭐허래 무을에 바치느냐 바칠려면은 관가에 가서 백 섬만 바쳐라. 아 이렇게 허거든. 무을에 바쳐봐야 뭐 헐 일 없는데. 관가에 가서 백 섬은 바쳐쳐라. 으든 섬 밖에 못했습니다. 어떻게 백 섬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이놈아 관가에다 바칠 때 그것을 일일이 마련해 본다더냐 그 으든 섬을 백섬으로 묶어라. 그리고 가서 관가에 가서 바쳐라. 그러믄 좋은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도를 잘 해줬어.

아 관가에 가서 목자 앞이 저 소인네 금번 산디 백섬 해먹었습니다. 이 백 섬을 관가에 바치겠습니다. 이거 사또는 안 그래도, 지금 어디 가서 요놈을 조지코 이렇게 생각을 허고 있는데, 자원해서 와서 바치겠다 허니까, 아 기특하다고, 니가 뭐 허는 놈이냐 허니 저 목자 놈입니다. 아 그러냐고, 너 목자 신세 면하라. 목자는 벗어라. 양반 되어라. 그래 탁 일러서 참지 어른때문에 그 사람 양반됐다. 이렇게 헨 춤 아주 훌륭한 분이주게. 참지 어른이.....

21. 강계우(II)

제 보 자 : 강충희(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3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251) 앞에

그러기에 훌륭한, 근데 그 분도 그렇게 과감하고 그렇게 문장이 뛰어나고 그래
도 나아가 들고, 그래도 여기 오민 갈옷입고, 이 샷샷 쓰고, 그냥 소도 맥이고, 춤
그러거든. 하루는 오월 그 장마에. 오월 장마에, 지금 저 산업도로 그 옷한질이엔
해거든. 거기 가서 큰 소를 갖다 떡 맥이면서 이제 아침 늦은 나절인데, 소를 맥이
면서 샷샷쓰고 우장입고 우장 알아져? 우장이란 옛날에 따로 만들어 가지고서 입
은 비옷 그 이서서. 우장 쓰꼭 이제 가서 소를 맥이고 있는데, 아 동쪽으로부터 말
방울 소리가 덜랑덜랑 난다고 아니 젊은놈이 콧노래를 부르면서이 온다고 이 말
을 타고 오는데, 참지 영감은 진 담뱃대²⁵² 해가지고서 담배를 빼끔빼끔 피우고
이셨주. 그 참지 나무밑에 가 아셨는데 그렇게 넘어저다가, 말에서 떡 내리더니,
영감 담뱃불 좀 빌려주십시오. 아 이런단 말이야. 담뱃불을 누구겐 아무 말없이 빌
려 줬어. 담뱃불을 붙이더니 다시 말에 휘딱 올르고 나갈려고 할 때, 참지가 어떤
말을 했느냐면, '고얀 놈' 하 이러니까 그 목소리가 보통 사람 목소리같지가 않아.
고얀 놈. 이렇허니까 그러면서 별일 없겠지 허고 그냥 들락들락 이제 대정 사람인
데, 대정을 갔어.

대정을 갔는데, 아버지가, 그 뭇허래 제주 성에 갔더니만 제주향교에 분향할라
고 대정서, 분향할라고 갔다가 그날 아침엔 분향을 해두고 이제 느지막히 돌아 가
는 찰라에 그렇게 한 거라. 아버지가 대정 갔으니까. 그때 날이 어두워진 기자 삼천
경계 구경하면서 대정꺼정 갔는데, 날이 거의 해가 뉘엿뉘엿 할 무렵에 대정 도착
해서 허니까 아버지가 어째 이렇게 늦게 왔느냐. 갔다 오는 도중에 무슨 일이 없
었느냐 이려고 허니까 예 아무일은 없었습니다만은 유수암 옆엔 오니까 어떤 노인
네가 우장쓰고, 샷샷쓰고, 가랑비 맞으면서 소 먹이다가 담뱃불을 빌렸더니 고얀놈
이렇게 한마디 험디다 허난. 용모가 어떻더니 허니, 역시 역시 헌분닙디다. 아무래
도 좀 보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난, 이 놈 큰일났다. 우리집 망했다. 너 빨리 가
서 사죄해라. 제주 향교에 가서 어느날 누가 분향 했는가 들으면은 벌써 우리집
안다. 우리 쌍놈 밖에 아니된다. 큰일났다 허니깐 들어보니까, 겁이나거든.

그냥 밥도 안 먹고 큰 자국에 그냥 타고 온 말 타서 그냥 달려라 하고 그냥 채
찍질 가하고 돌아오니 뚝이 그냥 흥근하고 막 했지. 그 유수암 와서 참지 어른네
집을 찾아서, 소인놈 죽을 죄를 지고 대령했습니다 허니까, 아 이제 봤거든. 바닥

252) 긴 담뱃대

에 딱 꿰어서 허니까, 거 누구고? 예 오늘 낮에 저 한질²⁵³⁾에서 뵈었던 젊은 아입니다. 봐려보니까²⁵⁴⁾ 얼굴에 뭐 뚱으로 범벅이 돼고, 등어리에 그냥 이 뚱이 그냥 팔팔이 막 흐르고 있어. 그냥 팔팔 흐르고 있는데, 하 이놈이 그래도 뭐가 깨달았구나 해가지고, 그 부엌에 그 할망 있거든에, 아까²⁵⁵⁾ 먹던 밥이나 갖당 주라. 거 수고 많이 했다. 괜찮으니 돌아가라. 밥이나 먹고 가라. 하이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용서해주면은……. 괜찮다. 돌아가라. 밥을 주난 밥을 먹을 수 이서? 그래서 들고 갔는데.

그 분이 그렇게 제주 삼읍에 유명이 떨친 분이랴거든. 그분한테 잘못 보이른 자기네가 그렇게 집안이 풍지박살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인자한 분이니까 그냥 돌아가라.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쾌ષ한 놈 멍석 말이하라. 이렇게 헐 거랴지. 근디 그렇게 안 해가지고, 춤 인자하게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22. 강희룡

제 보 자 : 강충희(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3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옛날에는 여기서 인재도 좀 많이 나고 춤 군량도 많이 났는데, 근래 와서는 이름을 금덕이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인재도 안 나고 재물도 안 나고 뭐 문장도 없고 이래가지고, 초라한 마을이 돼 버렸는데, 예 춤 여기가 이 처음 개화 옛날에 개화란 말이 있었어. 개화가 켈²⁵⁶⁾ 먼저 된 곳인데, 강희룡이라고 강희룡. 강희룡씨가 예 갑신정변 나는 해에 서울 한성시를 봤거든 한성시를 보는데, 한성시 가기 전의 이야기인데, 그 분 얘길 좀 허자.

253) 길가에서

254) 쳐다보니까

255) 방금

256) 제일

열 여덟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여기 강씨가 많이 살거든. 제주도에 강씨가 많이 살아. 파가 삼파라. 헌데 어떤 협작군이 제주 목사를 꺾어서 이렇게 이렇게 허면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여 가지고, 목사를 이제 꺾어서 목사하고 짜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가지고 거짓 문서를 만들어서, 이 문서는 뭐냐면은 지금 강씨 분이 진주거든. 진주에 강씨 시조 할아버지를 모신 제곽이 허물어졌으니까, 아주 낡아서 허물어졌으니까, 이것을 이제 새로 수선하기 위해서 다 성금을 받고 있으니까, 제주 강씨들은 다 모여서 성금을 내라. 이런 거짓 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 목사를 꺾가지고, 제주 강씨들은 전부 관덕정 앞으로 모여라. 이렇게 했거든. 관덕정 앞으로 다 모여라. 허 옛날이야 목사가 이렇게 호령허면 뭐 안 갈 수없다 말여.

다 모였는데, 이렇게 진주에서 이렇게 회람이 왔는데, 이 회람을 읽어보고 다 열마씩 들 내라. 사람이 빼잉 이렇게 아즌 모양으로 빙 둘러 있는데, 이 사람은 이쪽으로 냉기고,²⁵⁷⁾ 이 사람은 이쪽으로 냉기고 다 둘러라 이거라. 둘러는데 보니까 그런 회람이라. 성금을 내라는 거라. 보기만 허고, 다 뭐 돌리고 돌리고 이러는데, 이 강희룡 그 대 열 일곱살 젊은 소년때거든. 자기안티 오니까 이렇게 보더니만 북북 찢어가지고서 영 몰아서 입더래 넣어서, 삼켜붙었어. 돌아가던 회람이 안 돌아. 게 목사가 딱 행 관덕정 그 그랫들 위에 앉아서, 보는 거라. 지금 그 회람이 반쯤 돌더니 회람이 안 돌아가는거야. 그대 보던 사름이 놀라가지고 이거 어뎡 헐 거냐 허난. 아 이제 어떤 일이냐 허니까 그 열일곱살 어린 사름이 그렇게 했을 줄은 모르고 거기 앞에 있던 사름을 잡아다가 이거 회람을 어쨌느냐 허니까, 저 아이가 찢어버렸습니다. 저 아이라니 그 기영²⁵⁸⁾ 키도 자그마허고 헌데, 이거 어쨌느냐 허니까, 그런 가짜 회람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런 고안놈그트니라고

채워다근에 그냥 관장에 관장 끝에 묶어서 그냥 불기짜를 때리는데 허 이놈이 맞기만 해? 여보시오 사또 이렇게 무고한 사름을 함부로 쳐도 되는 거요? 조정에 서 당신을 목사로 내보낼 때에는 선정을 베풀라고 했거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 대든다 말여. 아 이런 보통이 아니다고 말여. 가두라. 옥에 탁 가두왔는데, 춤 증거가 없단 말여. 그냥 그 배속에 이미 들어가 버렸는데, 허 이런 법에 맞쳐²⁵⁹⁾

257) 넘기고

258) 그렇게

259) 맞추어

이거 춤 돈벌이, 관장이 돈 좀 벌어 보라고 그랬는데 일이 틀렸 말이어. 아 그지 대어드는 폼이 보통은 아니라. 똑 잘 못 허다간 서울 가서 어떻게 좀 자기를, 목을 칠 것 같으니까 달래서 나켰어.

갑신년인데, 그 몇달 후엔 과거를 보러 갔는데 그 때 지방 향시가 있었는데 향시가 다 폐지되고 오직 한성시 하나만 남은 때라서. 한성시 보래 그디 가는데 서울 가서 혹시 어디 가서 고백이나 해버릴까 봐서, 겁시 나니까²⁶⁰ 노자에 붙여 쓰라고 그 때 비단 한필 보내와 가지고서, 이 봐줘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때 합격을 했어. 합격을 헌 사름인데…….

나중에 그 사름이 춤 그 중국을 가서, 그 춤 노나라 공자님 모신 디라든가, 맹자님 모신디 다 답사를 허고 춤 나중에는 일본을 거쳐서, 춤 미국을 갔다 말이어. 가니까 저기는 이미 개명이 되가지고,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춤 앞으로 서양문명이 틀림어서 동양에 와서 전파가 되서 이제 그걸 다 알고, 구년만에 돌아왔어. 계년 천구백 수년에 돌아 온거라. 천구백수년에 돌아 왔는데, 오라서 그런 말 했지. 아 덜덜 보고, 너희덜도 후에 크면은 다 자동차를 탈 것이며, 이 동네도 자동차가 올 것이고, 비행선 비행기가 다 뜨고, 다 이렇게 할 것이다. 아덜이나 일가 어른덜 모인 앞에서. 비행선. 비행기사 뒤신지도²⁶¹ 모르겠습니까만은 자동차가 유수암에 뭐 하래 읍니까? 아버지 거짓말을 해도 동트게 거짓말을 잘 험수다. 이렇게해서 아니다 두고봐라. 틀림어서 너희 대에 이런 초가도 없어질 것이고, 틀림어서 자동차가 금덕에도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그런 말씀 허면 아버님 놈 앞이 욱들읍니다. 아 이거야. 이렇게 했어. 그러던 분인데…….

춤 나중에 정계에 득신해가지고 에 그 좀 전라남도 지방관을 하나해서 그때 그랬는데, 천구백십사년도에 우리 신우면이 애월면 헐 때주게. 그디 초대 면장이 김도현씨라. 제헌의원이던 분. 김도현씨데, 그 김도현씨를 이제 춤 추천틀 해가지고, 면장 사령을 내게 뻤는데, 그 김도현씨가 그랬지. 제가 아무날 면장 취임을 헐텐데, 선생님께서 부디 참석을 해주십시오 그랬거든. 그러냐. 내가 간다.

게서 면장 취임한다는 날은 몰 타고 채찍들고 허고 춤 갔어. 가니까 춤 아직 식장에 들어 오기전에 아 선생님덜 오셨습니까? 선생님덜. 절을 막허고 환영을 허는

260) 겁이 나니까

261) 무엇인지도

데, 식당에 딱 들어서고 보니까, 어떤 늙은이 사름이 제일 높은 상석에 아자있더라 이겨야. 속으로 생각했지. 저 사름이 틀림어시 김도현의 부친일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도 일어서서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한다 이겨야. 패쌌허단 생각이 들어서, 몰채로 저기 앉은 늙은이는 누군고, 이렇게 호령허니까 아이 김도현의 부친도 몰채를 들어 자기를 가르키며 그런 소리허니까, 아무면 어떠냐? 내가 오늘 앉을 만 허니 앉았다. 자기 아덜이 면장 취임을 허는데 아버지가 당연히 앓지 뭐, 뭐 아즐께 어떻 허리. 그런데 인사를 안해부니까 몰채를 가르치면서 저기앉은 자가 과연 누군고, 이렇게 호령을 했던 말여. 자기를 알아서 그런 줄 알고 오늘 아즐만 헌 사름이 아졌다. 이렇게 허니까 그래 오늘 면장 취임 못 허내. 확 돌아서 와 붙었어.

확 돌아서 와 부니까, 이겨 전라남도 지방의원이 말여, 면장 취임 못한다는데, 해박야 강회룡씨가 추천해서 이렇게 된 건데……. 기가 막힌 거라. 다른 사람같았으면은 아버지 때문에 나 면장 못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버지 원망을 허고, 아버지에게 막 그 화풀일 하고 이럴텐데, 그 대중 앞에서 조금도 아버지 앞이 불형허는 기색도 없이 그자 오늘 아버지때문에 면장 내가 취임식을 못 한덴 헌 건만 이제 띄웠다가 헌 삼일 후에 밤에야 찾아와 가지고 이제 그 강선생을 강회룡 선생을 설득을 허는 거라. 선생님 저의 아버지는 글도 모르고 집에서 밧이나 갈고 일어나 그자 일어나 허는 그런 농반입니다. 무식한 노인네가 결례 헌 것을 선생님이 트집을 잡는다면 오히려 선생님이 누가 됩니다. 따라서 제가 면장을 못 헌건 좋습니다. 만은 면장을 못 한다면 후에 주손덜꺼지라도 유수암에 누구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님네 면장 못 했다면 주손덜까네도 불화지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날 날짜를 잡을테니, 선생님 부디 참석을 하셔서, 우리 김씨 가문이나 강씨 가문에 후일에도 서로 불화지는 일이 없도록 허기 위해서 참석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허니까, 그딤 말이 맞네. 그래 날짜 통보해주게 가겠네.

다음날 날짜를 정해서 허니까 갔어. 허니까 그제야. 도현이 부친도 저번 날은 잘못했습니다 허연. 사죄를 허고 이제 춤 면장취임을 했는데, 나오면서 헌말이 있거든. 애월면 인물은 김도현이다. 자기 애빌 노 시치고, 자길 출세했으면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 보다 더 혈 수 있겠느냐. 마 이렇게 한마디 허난 점점 김도현이만 올라 가는거라. 그래서 나중에 김도현이가 제헌의원이라. 초대 제주도에서 제헌의원게. 그런 분이주게. 마 그런 일화가 하나 있는데…….

23. 여죽인 흙

제 보 자 : 강충희(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3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여기 형제봉 보이잖아 이. (조사자 : 형제봉 마씨?) 어. 큰 오름 죽은 오름 허주게. 그 형제봉 뒤 트멍에가 뭐센허냐민, 여죽일 흙이엔, 여죽인 흙. 여죽일 흙이엔 여찌는 무슨 여찌면, 되 여찌라. 되여. 되놈 죽인 곳이다. 이거지. 되여찐데. 되놈 죽인 곳이다. 되놈 죽인 곳이랜 허는데, 여기가 싸움터 주게. 여기가 싸움탄데, 것 도 고려땅이라.

해안 사름인데 내 이름이 뭐산다. 해안 사름인데, 저기 상가에 장가를 들었주. 장갈 갔는데, 혼번은 보리가 막 무성할 무렵에 처갓집엘 가보니까, 처부님 뭐 별일 없습니까 허니까, 아 그게 아니고 여기 웬 물이 하나가 나왔는데, 워낙 물이 거세고 사나와서, 잡지도 못허고 춤 요즘 말로 야생마지. 그 야생마가 나왔는데 이 물이 보리를 다 먹어 가지고, 좀 보리가 안 되게 되었다. 경허우까?²⁶² 처부님 짚이나 한 모만 줍서. 목대 만들앙 강 그 물을 심으쿠다.²⁶³ 물을? 니가 어떻게 물을 심을 말이나. 경해도 허는 냥 돕서. 산디 짚 헌 댕 개니까 그걸로 새끼를 꼬아서 목델 맨들아 가지고 간, 어러러 허니까 물이 사름 소리가 나니까 달려와서 물려고 허는거, 물려고 달려오니까 슬쩍 비켜사서²⁶⁴ 손바닥으로 뺨을 탁 붙이니까²⁶⁵ 물 카죽이 싹. 이 가죽 버겨갔어. 아무리 미물이엔 헌들 제 주인을 모르고, 그제는 물이 끌러가지고서, 물이 끌러가지고서 허니까. 목델 탁 썩완. 뭐 그제는 주인을 알아보고 이 사름이 나의 주인인가 보다 아마 헌 모양이지. 아 이제는 끌러가지고, 처갓집에 와서 올레에²⁶⁶ 메어두고 아버지님 안장시면 좀 빌립서. 내 물을 타쿠다

262) 그렇습니까?

263) 그 말을 잡겠습니까.

264) 비켜서서

265) 뺨을 딱 때리니까

266) 골목에

허니, 말을 타니까, 하 이거 허는데…….

나중에 그 되놈덜이 쳐들어 왔을 때, 저 명월포로 쳐들어 왔을 때 춤 그 이병을 모집해 가지고 이제 지는 듯 지는 듯 허다가 그 형제봉 그 여죽인 흠, 그 흠에 와서 그디 매복 시켰다가 그냥 그디서 들이쳐 가지고 죽인, 그래서 여죽인 흠이라. 여죽인 흠이란 그런 말이 있어.

24. 변경우

제 보 자 : 강충희(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3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제주도에서 가장 옛날에 벼슬이 높은 벼슬이 뭐냐면은 저 참판. 참판이엔 허든 지금의 차관이라 차관. 제주도 사름 그것 밖에 못 해서. 변경우라고 그분이 나중에 유수암엘 왕 살았주게. 유수암 오랑 살았는데, 유수암 변참판이 원래는 태어나기는 대정서 태어나고, 에 대정서 태어나고, 그 본은, 그 아버지는 납업이라서, 납업. 그 번씨가 우리 유수암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이서. 아주 그냥 인척관계를 허니까, 그 분 이야기를 할께.

거기 변도령이라고 변성보라고 감찰를 했거든. 감찰을 했는데, 변성자허고 변성보가 형제라. 변성자가 큰 아들이니까 에 문재²⁶⁷⁾ 장가를 가서. 이제 따로 살고, 변성보 측은 아덜은 이제 엄마허고 7치 사는데, 하루는 집에 있으니까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밥이나 있으믄 좀 주시오 이러니까, 옛날엔 그 동그랑이런거 대나무로 조그만하게 이제 그 맨들아²⁶⁸⁾ 가지고, 이제 점심 놓고 밥 놓고 그런 게 있거든. 그러가지고 그걸 먹으라고 허다가 약두리^(?)에 담아서 공장²⁶⁹⁾에 탁 걸어뒀다가 자기네가 점심 먹으랴고 헌 밥이 이섯거든게. 그 밥을 주니까 잘 먹었다고 하면서 고마웁게 잘 먹었으니 보답해두고 가겠다고 하면서, 내 얘길

267) 먼저

268) 만들어가지고

269) 벽에 걸어둘수 있도록 만든 곳

하나 혈테니까 잘 들으라고 하면서 여기서 상가라고 하는 밑에 가라. 집터. 거기 가면 어떠 어떠한 밭이 하나 있는데, 그 밭에 가서 집을 지어서 살면은 당대에 발복해서 과거한다. 이런 말을 해줬어.

그래 형이 생각에는 그 어머니 한테 가서 저 상가가서 살겠습니다. 오늘 약시약시 해가지고 춤 어떤 지나가던 스님이 이러 이러한 이야기를 험디다 허니까, 또 그걸 이야기하는 걸 동생놈이 가만히 듣다가 내가 먼저 욕심 생경²⁷⁰⁾ 내가 먼저 가야겠다. 그래가지고서 바로 자기 오막살일 뜯어가지고서 그 상가 와 가지고선 그냥 오곳 집을 지어 붙였어. 집을 지어 부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생이 먼저 차지행 지어 붙렸거든. 이젠 형제간에 싸웠어. 이럴 수가 있느냐. 일가 어른덜이랑 다 모여가지고, 뭐 형이 저라. 형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는 이런 땅에 못 살겠다고 말여.

떠나서 대정, 중문으로 간 살았는데, 춤 중문에서 그 이제 살면서 아덜을 하나 낳아가지고 이제 키우는데, 어떤 협작군 앞이 걸러가지고서 사궐당했어. 어떤 논을 사라고, 논이 있으니까 논을 사라고 해가지고, 저 했는데 아 이 논이 좋으니까 백냥을 받아야겠다 해가지고서 백냥이른 논을 팔겠다 했는데, 옛날에는 뭐 지적 지원이 없으니까, 뭐 동쪽에는 뭐 식고, 서쪽에는 뭐 식고, 이렇게 있다 말여. 그래가지고서 그걸 문서에 허는 책²⁷¹⁾ 해가지고 그자 논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사궐 당한거라. 춤 백냥이란 돈을 날린 것을 생각허니까 너무 억울해서 내가 글을 몰라서 이러니까 이 자라나는 이 경우라는 이 아이만큼은 아무 일도 시키질 말고, 글만 가르치자. 이렇게 헌거라. 아 이젠 그렇게 부인 허고 약조를 했어. 했는데…….

흐루는 아버지가 밭 갈러가곡 이제 아덜은 서당엘 가게 됐는데, 아버지가 밭 갈래 지금 어느 쪽으로 니가 서당에 가는 길에 아버지 점심 밥을 니가 갔다 드리고 가라. 어머니가 그랬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경우가 이젠 혼쪽에는 책가 방을 들고 혼쪽에는 아버지 밥. 들고 헨 갔더니 아버지가 니가 점심밥을 네 옆치로, 네 생각으로 해서 가져 왔느냐, 어머니가 가져가라고 시키더냐 이러니까, 가는 길에 어머니가 갔다두고 가랍디다. 그래 갈던 밭 설러 치우고²⁷²⁾ 글라.²⁷³⁾ 집에 와

270) 욕심이 생겨서

271) 책

272) 집어 치우고, 제쳐 두고

273) 가자

서. 내 마음 같아서는 난 당신을 죽이고 싶다. 그렇지만 난 살인잔 될 수는 없다. 내가 죽어붙어야겠다. 내가 이러한 모욕을 당하고 이 아이만큼은 아무 일도 시키지 말고 글을 가르쳐서 과거를 시킬라고 했는데, 당신이 이러니까 이게 될 수가 없다. 나는 죽어야겠다 해서 그냥 도마 칼 갔당 그디서 갈라서 탁 배를 채어근에,²⁷⁴⁾ 활 복해붙어서. 몸에 피가 나고 그러니까 그냥 모다 들엉 그냥 막 몰리고 그러는데, 다음부터 일체 가이²⁷⁵⁾ 보고 그냥 뭐 심부름도 안 시켜. 그래 이놈은 글만 읽는거야. 서당에 간 날은 뭐 물론이고, 서당에 안 간 날도 여름엔 그 보리 날레 널어가 지고선 뭐 낮에 소나기 오고 그리잖아. 그러면은 소나기가 와도 날레가 젖건, 명석 이 젖건, 전²⁷⁶⁾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헐, 글만 읽어 가지고 나중에 대정 향교에서 살고, 나중에는 제주시 향교에 와 살아서. 살았는데, 춤 글을 춤 잘 읽었지. 잘 읽었는데...

그 때가 정조 14년일 거라. 정조 임금때 이 아마 제주도 과거가 처음일 거라. 그때가 그때 박찬영이라고 하는 그 어사가 어사가 저기 안무사가 돼가지고 제주도 도민을 좀 안무해 줄라고 와가지고, 과거를 베풀었는데, 그때 경우가 시험을 봤어. 봤는데, 그런데 어사가, 박찬영어사가 가만히 보니까 글이 되기는 된 것 같은데, 별로 시원치가 않아보여. 그런대로 뽑아가서 이걸 가지고 갔어. 갔는데 제주도 글이 이것 밖에 없더냐 허고 정조 임금이 물으니까 여기 가작으로 하나 가져 왔습니 다만은. 누구 꺼냐? 보니까 변경우 글이라. 그 정조가, 정조 임금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가작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게 장원이야. 어 임금이 장원이라고 허는 거야 뭐 어떻게 허겠나. 아 그렇습니까? 행이네 그 때 장원 급제 해본 거라. 그냥 거기서 장원급제 해놓고, 옛날에는 그 복시(覆試)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향시에서 그렇게 했으면 광주에 가서 다시 시험을 보꼭 끝난 다음에 전시(殿試)²⁷⁷⁾를 봐야 되는데, 아 정조 임금이 특별히 그 부제학에 명해가지고서 제주 유생 변경우를 전시에. 그치도록 허라.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냥 그디 해서 허니까 그때 십칠명 중에 일인으로 변화에설 득과해가지고, 그 분이 그 뒤에는 이런 고산찰방. 무슨 정의

274) 잘라서

275) 그애

276) 그것은

277) 초시에 급제한 사람이 다시 보는 과거. 조선 왕조 때, 문과의 복시에서 선발된 33명 및 무과의 복시에서의 28명을 킬 내에 모아 왕의 친립하에 보던 과거.

현감 하면서, 허다가 강원감사 무슨 동지 이렇게 하시다가 그 뒤에는 순조 때 가서는 참판까지 지내가지고, 제주도에서는 이제 유일무일 허게도 그 분이 이제 벼슬에 올랐는데, 이 변씨 지금 유수암 사는 변씨 사름 조상이라. 그래서 춤 유수암 온 후에 참판을 해주게. 유수암하고 사돈을 맺어 변씨 사름 조상이라.

그래서 유수암 온 후에 참판을 해주게. 유수암하고 사돈을 맺어 가지고 했는데, 그 과거살이 갈 때 그 정동 별립이라고, 정동으로 만든 별립을 갈 때 딱 걸어 두고 갔다 말아야. 한 오륙 년이 된 과거살일 다 끝내고, 벼슬살일 다 끝내고, 와 봐도 자기가 떠날 때 걸었던 모자가 먼지가 폭 허게 묻고, 누구 하나 건들이질 안았어. 그러니까 개탄했지. 벼슬이 무어며 과거가 무어나. 내가 이렇게 있던 걸 누구하나 손바 줄 사름이 없느냐. 춤 인생이 허무허다. 이렇게 하면서 춤 나중에 구십이세로 세상을 마쳤는데, 이분이 우리 마을에 처음 그 정승 그튼 벼슬을 현 분이라. 예 변참판 변경우. 그 분 제자가 바로 강계우, 강철지라. 수제자가, 그 분 제자가…….

25. 강성모

제 보 자 : 강충희(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3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강성모 이야기길 허자.

그 강성모가 어째서 춤 유명한 사름이냐 허면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다 세상 떠나 버리고, 자기 혼자만 살아서. 일곱살 때. 그렇게 조실 부모 해 붙었지. 자기 혼자서 어린 놈이 뭐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어때서? 자기 혼자 사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허면은 옛날은 여기 대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런면 어른덜 허는 걸 봐서 이 대를 비어다가 걸 다듬어 가지고서 샷갓도 잘고, 그 추롱도 잘고,²⁷⁸⁾ 도구랑(?)도 짜고, 골채도 잘고, 바구니도 잘고, 이런 걸 맨들어당 풀면서, 자기 낭

278) 바구니도 만들고

으로²⁷⁹⁾ 양식 받아다가 먹으면서 때때로 서당에 가서 이제 글 배우는 거라. 글을 배워가지고 허는데.

그 때 한 분이 가만히 보니까 애야 너는 글을 읽질 말고 나랑 밧되 가서 역사 해가지곡 농사를 지어라. 그러면은 내 밧은 그냥 빌려준다. 농사를 지으면, 네가 곡식을 많이 허면은 니가 먹고 살 수 있을께 아니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헐. 밧되 가서 그 더운날 그 뚝 흘리면서 뭐 돌맹이 치우고 뭐 검질 기우고, 이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 지쳐서 못 하겠다 말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젠 안되겠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그래도 도포자락 휘날리며, 갓쓰고, 혼번 남자의 기상을 뽐내는 선비가 돼야지, 이런 농바리가 돼선 안 되겠다. 나 안 허겠습니까 허연에.

도저히 종일 구할 수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그 때 정이해서 당나무 종이라고, 종일 만들 때라. 거기 가서 일해 주고 그 나머지 휴지된 것덜 못 쓸 종이덜을 그냥 혼 집 저가지고 와서, 자기대로 글씨 연습하고, 모르는 것은 대충해서, 독학을 해가지고 드디어는 좀 글을 했지. 이 글을 했는데, 그때는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가지고 과거제도도 이미 없어져 버린 때라. 과거도 못 허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춤 그 어린 나이에 춤 이 남자가 향교에도 혼 번 가야겠다 해가지고, 향교에 가서, 그 장의 직함을 맡아가지고 장이도 이제 허고, 이렇게 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허다가 일을 잘 보아가지고, 유수암에 강성모 허면은 명성을 떨쳤지. 떨쳤는데, 하루는 집에서 가만히 무슨 걸 치우면서 그냥 방안 정리하고 옛날은 이제 어떤 사름이 와서 저 대정서 왔습니다. 헌데 무슨 일로 왔소 허니, 예 아전 벼슬 옛날은 이 형방, 이방, 그 무슨 거 허는 있잖아. 옛날 놈들은 그걸 쌍놈들이엔 했거든. 아전을 좀 허기가 싫어서 어딜 가도 일이가 안 되가지고, 유수암에 강성모씨를 찾아가면은 꼭 이것을 면탈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찾아 왔습니다. 아 그러시오 다른 댁에 가도 물어 봤을 텐데, 얼마 달라 하던가요 허니까, 예 다른 댁에 가니까 백냥 주면 해주켄 험디다. 아 그러디가. 그거 날랑 여덟냥만 줘서. 난 농사를 안 짓고 이렇게 글만 읽으니까. 여덟 냥만 주면은 제가 그거 면탈시켜 드리겠수다. 아이 고맙수다. 그럼 언제 갔다 올리겠습니까? 내일은 볼 일 있고, 모래 나 글 펴 썸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험주. 그러면 어느제 다시 들리겠소 허니까, 아무날에 오겠소 허니까. 그러다면 그 때 곡식을 갔다 주겠다 이러니까, 그럼 그렇

279) 자기 스스로

게 하시오

아 그거 갔다 주겠다 한 날은 가만히 기다려 봐도 오지도 않고, 허는데, 날이 저물막해야 아 그 소엿 곡식을 씻은 짐체에 것 올레에 들어 오는거라. 아 이것이 올레 오는 거로구나. 내한테 오는거라. 그 집을 탁하게 받아서 천하반 미치게, 천장 미치게 그냥 곡식을 쌓아 놓고, 사내 대장부가 이만 하면 됐다 보니까, 돈 스무냥도 더 가져 왔어. 그냥 아 돈은 안 받아도 되는데. 아이구 괜찮습니다. 가서 일을 발해집디강. 나 무슨 소정있던 못 갔는데, 내일랑 당장가서 내 해드리겠소. 그 래가지고서 그 돈 스무냥을 받고, 춤 가서 그 요즘 말로 로비라고 하는 거지. 가서 로비를 해가지고, 그 사람시키질 말라 뭐 이런거지. 상전을 통허고 해서 그 아전인살 시키질 말라. 헐. 춤 그 삭제시킨 거주.

그래서 했는데, 아 거 돈 스무냥 이제 받고 허니까 그냥 여자를 그냥 데려다가 그냥 식을 안 올리고, 사는 처지라 그냥.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소년장에 소년장에 헐 댐데, 아주 힘이 장사고, 옛날은 부싯돌을 있었거든. 부싯돌을 어금니에 물면은 부싯돌이 깨졌어. 그렇게 헐 분인데, 힘이 장사고 헌데, 그 도포를 만들어서 그냥. 비단 도포를 입고 난생 처음 그 입어보는 옷이거든. 입으니까 춤 뭐 기운이 난다 말이야. 에라 어디가서 거리나 들고 좀 자랑도 허고 산보도 허고 부름도 썩어야겠다. 그 옷을 걸치고 다니다가, 에 이왕이면 광령 가서 벗들도 만나고, 광령가서 놀당 오자. 광령까지 가니까, 에이 광령 가서 뭐 하나, 이왕이면 주석에 들어가자. 경헌 주석에 들어갔단 말여. 주석에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그 향교 부근이 성역으로 해가지고, 한천에서 한천 있지, 지금 한천에서, 병문교까지 담뱃대를 물고 넘어 가질 못했어. 옛날은 그 공자 그 문묘가 있다고 해가지고, 일절 못 넘어갔어. 그런데 이 강성모는 호기가 나서, 나는 물고 간다. 허명 담뱃대를 딱 물고 탁 이렇게 어깨에 걸치고, 한천에서 그냥 병문천까지 가는데, 누구 하나 뭐라고 트집잡는 사람이 없었주.

그런데 병문천을 넘어 갈려니까 그 주막 집에서가 저 놈 잡아라 허면서, 허고 보니까 헐 육 칠 명이 그냥 술 먹다 말고, 니가 감히 어디서 담뱃대를 물고, 지나가느냐. 이렇게 호령을 허는거라. 담뱃대를 물었으면 어떨거냐? 그래서 싸움이 붙은거라. 보니까 지금 말로 허면은 그 건달패덜이라. 건달패였는데, 건달패 두목이라는 그 그 당시 옥룡 고선달이라고, 헐 사람이 이서서. 등치가 보통 사름보다 두 갑절은 허고, 키가 헐 팔척이 넘어. 양반가에서 태어났으면은 그야말로 춤 대장갑

이지 뭐 그런디 제주시 건달패 두목 노릇을 하는, 그 제주도에서는 그 제주도에서
는 왕초주게. 그 때 들어선, 그 소문난 사름인데.

춤 그 옛날 어떤 황반성이라고 그 관상보는 사름이 관덕정 그랫들 위에서 딱
보니까 그 지금 한일은행 터가 옛날 그 송송지라고 송정회랜 했지 송정회. 송송지
이렇게 했는데, 아이 춤 호남 갑부라. 호남 갑부. 그 사름이 그 주막집에서 나온다
말야. 황반상이 그랫들 위에서 딱 보니까, 아 사람이 복 좋게 잘 생겼어. 관상을 딱
보는데, 춘수만사택(春水滿四澤)이라고, 딱 그렇게 했어. 춘수만사택이라고 두번째
나오는 사름은 딱 보니까, 하 사람이 잘 생기고 춤 그 사름이 교성관관이라서, 교
성 관관인데, 제주도에 관관을 지낸 사름이라. 사름이 춤 보기가 좀 기특해서, 하
운은 다기봉일세(夏雲多奇峰)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세번째 나오는 사름이 그 옥
룡 고선달이 나온 단 말야. 건달패 왕초 옥룡 고선달이 나오니까, 하 추월양명월세
(秋月揚明輝). 그렇게 해붙었어. 추월은 양명해서, 추월 가을달은 느닌다. 그렇게
그 뛰어난 인물이다. 이 말이지. 옥룡 고선달이가 그 관상가가 그렇게 평을 헛거
라. 송정회 송정회 한일은행 집터 주인을 춘수만사택. 네개가 컷등해 못 물이 보면
은 못물이 니개가 컷등허지²⁸⁰⁾ 안해게. 뭘 데가 없이 네개가 춘수만사택이요 이렇
게. 교성관관은 나오니까 하운은 다기봉일세, 사름이 미운 디가 없어, 침착허여. 옥
룡 고선달은 나오니까, 추월양명월세. 가을 달은 그렇게 들어나다. 그을 달처럼 들
어나다.

그런 사람들 만나 싸우는거라. 이 옥룡 고선달 패는 골목으로 끌고 가자허고,
강상모는 골목으로 끌고 갔당은 죽싸게 맞음만 허고, 누구 몰려 줄 사름도 없고
허니까, 싸워도 놈이 알게 세상이 알게 싸졌다 해가지고, 큰길로 나올라 그러고
그러니까 싸우고 싸우고 막 허는 것이 병문천에서부터 관덕청까지 막 온거라. 관
덕청까지 와서 그 십팔명광²⁸¹⁾ 싸우는데 어떻게 그 이제 그 그릿들 위에 올라갔
어. 올라갔는데 옥룡 고선달이 잡아서 끌어 내릴라고 따라 들어온 걸 혼 계단 내
려서면서 그냥 옆어쳐서 그냥 그릿들 아래 내려다 눕진 거라.²⁸²⁾ 그러니까 옥룡
고선달은 세상의 놈 앞에 손맛 혼 번 본 적이 없는데, 이 놈 앞에 내다치니까, 분

280) 가지런하다

281) 십팔명광과 함께

282) 눕힌거라

통이 터지거든. 그래서 그냥 풍기중천 해가지고서 그 때는 옛날에는 그 뜰돌이런 게 있어서, 그 골목 어귀에 나가가지고 그저 드는 돌. 그런 것도 있어서. 지금 뭐 사라져버렸지만 관덕정 어귀에 그런 뜰돌이 있었는데, 뜰돌을 들러가지고, 이 모사 죽일라고 그냥 그 막 사름 joke들이 뵙는데, 사름을 뵙는데, 그냥 뜰돌 들렁 들렁 간단 말여. 허니까 그 때 싸움을 구경허던 어느 사람 중에 그 사름 우수암의 강성모 아니냐고 허난 강성모 하면은 제주 향교에서 명성을 떨치는 사름인데 짐작하는, 귀가 들었다 말여. 뜰돌을 놓는 것이 이 다리 트멍에 간 팍 배때기에 간 무시젠 헌 것이 배때기엔 못 못고, 그 강성모 아니냐 허는 그 순간에 존작해가지고, 그냥 돌을 그 다리 가운데 떨어트린거라.

그런데 그 옥룡 고선달도 잘못 전드리지 않았나. 옛날은 양반 거시면은 이전 큰 일났지. 잘못 전던게 아닌가 허는데, 누가 관가에 간 고발해붙었어. 강성모 아니냐 한 고발해부니까 관가에서 포졸들이 나와 가지고, 다 잡아 갔어. 자초지정 그 헌말을 다 이제 목사가 들고서는 똑 같은 놈들이군 허면서 때리는거라. 옥룡 고선달부터, 너부터 맞아라 해가지고, 곤장 열대씩 때려라. 때리니까, 아이 강성모란 사름은 나는 쌍놈 엮더져²⁸³⁾ 난 디 안 엮더지겠소 형틀이 아니고, 열 대니까, 그냥 땅 바닥에 엮드렁 때렸거든. 저 놈 그 자리에 엮드시오 경헌 그 엮전 석대 만 맞고 나와서 이 소문이 제주 삼읍에 그때 이 목이 건, 정의, 대정 삼읍에 옥룡 고선달이 우수암 강성모 앞에 내다쳤다 허는 소문이 나니까 그 명성이 그냥 자자해 버렸거든. 떨쳤는데.

아 그 향교에서 그냥 이젠 제주 향교는 칠면이 했거든. 칠면이 허는데, 그 선비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허는데, 인척에²⁸⁴⁾ 말한 그 회룡 선생은 향교 도훈장인 때주. 향교 도훈장인 뎨디 신임에 지금 구업국민학교 그 학교 틀을 회사한 성 여훈이엔 헌 분이 있어서, 그 아주 그냥 쾌척해그네 구업 국민학교 그 운동장 부지, 학교 부지를 그냥 회사한 분이라. 이 사름을 훈장을 시킬라고 허니까, 하 뭐 그런 쌍놈한테 훈장을 줍니까 해가지고, 칠면 선비들이 그냥 다 반대하고 못하게 하는 거라. 도훈장은 그 사름 앞이 게도 술도 얻어 먹고, 인척지간도 되고 허니까 어떻게 시켜야겠는데, 아 선비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허니까 그럼 할 수 없다 해가지

283) 엮드려

284) 먼저

고, 어떻게 각 개 각 층 한 사람 한 사람 격파해서 어떻게 좀 설득을 해가지고, 찬성하는 쪽으로 뻘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성모란 사람은 뭐 어디 다니다가 술집에 가 술이나 먹고 다니다 보니까, 도훈장이 강희룡 도훈장이 이렇게 선비들이 반대해가지고서 일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아 그것 좀 가지고, 못 하느냐. 내가 가서 얘기한다고 명륜당에 탁 가서. 아니 성여훈씨가 어째서 쌍놈이며, 훈장 못 혈 이유가 뭐냐? 어째 쌍놈이냐. 성삼문의 후예라면 너희덜 보다도 더 양반이다. 이거야. 그런데 너희덜이 한다 못 한다 혈 수가 있느냐고, 아 성삼문의 후예를 가지고, 탁 대들어 놓니까, 혈 말을 잃은 거라. 선비들이. 오늘 날짜로 훈장 자리 확보혈테니 그리 알라. 일거에 딱 묵시적으로 동의를 얻어 분거지 이거야. 그제 그 도훈장이, 야 나는 못 했는데, 그거 위력의 흥계 좀 빈 거지게, 일거에 일순에 성삼문을 끌어다 끌어다 가지고, 성삼문의 후예인데, 어째서 야 쌍놈이 되느냐. 뭐 이 한마디로써 그냥 잡아서 여론을 확 돌린 걸 보면 보통 기지가 아니라. 유수암에 이 만한 인물나기가 어렵겠다. 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춤 그런 훌륭한 분이 춤 오래 살지 못해가지고, 그 일제 때 그 국권이 그냥 일본 놈 앞에 강탈당하니까 나의 시대는 끝났다 해가지고, 춤 아까 말한 그 일본 놈 앞에 머리 숙여가지고 춤 요즘말로 벌을 받아라. 내 얼마든지 굶혀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음에 병을 얻어 가지고서 이제 집에서 시름시름 춤 앓다가 뭐 그렇게 죽을 병은 아니었는데……. 동네사람들이 이제 병문안을 갔어. 갔는데, 저녁 때 갔는데, 아이 뭐 대단한거 아니우다. 그저 몸살로 행이네 났수다. 이렇게 허는데, 아 마침 그집에 그 사냥개가 탁 이렇게 헌 큰 사냥개가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는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냥 누운 그 주인 머리 밑에 그냥 머리 옆에 와서 딱 술 거스리고 그냥 이를 그냥 벌리면서 그냥 으흥 소릴 하면서……. 헌단 말이여. 아 이 개가 왜 이러냐고 말여. 아 이 놈이 개, 그디 갔단 주먹으로 개를 탁 두드리니까 개가 짹 소리 내며 나가 버린거라. 그 뒤 그날 밤 그냥 정말 저승 차사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그 날 밤 세상을 떴어. 마흔 아홉살에 그렇게 했던 분이여.

26. 이현모

제 보 자 : 강충희(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3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다음 일랑 이현모 이야길 허자. 이좌수라고 있어서. 이좌수. 이현모라고 후한말 댜데, 현직 좌수. 그 때 제주도가 어떻게 했냐면 에 그 목사로 쪽 내려 오다가 후 한 말에 관찰사라 이년동안 관찰사 해났어. 관찰사 허고, 형방, 이방, 그런 그 방을 폐지허고 육방관속을 폐지허고 열 세 사름이 주사를 뒀어. 주사가 그 대신 장학 한 때였어. 그래서 그 형방, 이방, 그런 관졸을 폐지허고 그때 경무청이란 걸 두 었어. 경무청이란 걸 두었는데, 그 때도 그 좌수는 이섯어. 이 좌수 이야길 허는데, 이좌수가 상당히 그 나이가 늙고 좀 그래도 워낙 지혜가 있는 분이렸어. 그 당시 그 목사덜이 어쨌냐 허면, 그 관찰살 허다가 다시 또 폐지해서 다시 목사로 돌아 갔어. 이 년 동안 관찰사를 허다가 했는데 탐관오리들이 그냥 아주 그 도적질이 많았거든게. 했는데 장세, 전세가 있었어. 장세란 뭐냐면, 목장세를 말허는 거고 전세란 화전세, 목장밭. 장세, 전세란게. 화전 밭세를 몰라. 목장 밭세를 몰라 해서, 장세 전세엔 했거든. 이게 상당히 독해서 이 촌동넨 살 수가 없었거든.

그런데 한번은 그 사름이 상을 당했는데, 모친 상을 당했는데 하귀리 김진사가 왔어. 그 사람 김 뭐이나. 김 무슨 뭐지. 아이 기억력이 없어. 김 머시라 했어. 김 진사라고 헌 사름이 이섯어, 김지. 김지. 김지라는 하귀리 진사가 이섯어. 김지라고 허는 그 진사가 있었는데 조문을 왔어. 여길 딱 와가지고, 조문이 끝나서 상을 받 으면서 당신의 이제는 상도 끝났고, 현직 좌수데, 이렇게 관속들이 도적질이 너무 심한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걸 좀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허 니까 알았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좀 바로 잡자. 이래서 에 하귀리 김지허고, 유 수암에 이좌수허고, 또 저 오라리, 가라리, 가라리, 강풍원 강요운이라고 강풍운 또 저 동촌 어디야 초천인가, 거기다가 아 신촌, 신촌에 송 무슨 반이지. 아이 무슨 잊었네, 송 무슨 반인데... 하여튼 그 송씨 허고 헐, 네 사름이 이걸 바로잡자 말이 야. 이렇게 결의를 했어. 바로잡자. 해서 목사한테 항의를 허자.

이렇게 했는데, 김지라는 사름이 이증성격이라. 혼 번은 그 관청에가서 그 관속 덜 보고 너무 먹단 배 터진다이. 이렇게 허멍 한마디를 해서. 아이구 큰일났구나 해서 밤 내로, 그냥 돈 몇 백냥을 그냥 김지 한테 가서 뇌물을 바쳤어. 바치니까

김진사가 그걸 먹고 그냥. 그 모의가 없었던 것처럼 조기는²⁸⁵⁾ 시치미 뚝 떼고 그냥 그 거사에 동참을 안 해버리는 거라. 겐디 이좌수가 이 이런 걸 아니까 불쾌하기 짝이 없거든 같이 이제 거사를 할 걸로 이렇게 했는데, 선시 뇌물을 먹고 이렇게 뭐했다는 거를 알았거든. 너희덜 너무 먹당 배 터진다. 이렇게 혼 마디 허니까 관속덜이 알아차려 가지고, 그냥 돈 몇 백냥 탁 바치니까 자기는 들어 아자분 거라. 이 김지부터 때려 잡아야겠다. 이 세사람. 남은 세사람이 송기반, 송기반이엔 허던가, 그 사름도 힘이 장사거든. 그때 마침 단발령이 딱 내린 때라, 고종 황제가 머리 깎아 가지고서 다 백성덜 다 머리 깎으라 이렇게 그런 때주게. 아이 방을 딱 부친거라. 관덕청 내에다 그 방을 머리 깎으랜 방을 딱 붙연. 단발령 딱 내린 허니까 아 이젠 누가 그 모의허래 이 어평 어떠 어떻게 하자고 땡기다 보니 방이 붙었단 소문들으니까 강 보니까, 방이 붙어서. 아 성질이 급한 분이니까, 거기서, 불평을 해볼었어. 그냥. 아니 신체는 부모로부터 준 건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정부 비판하는 그 해버리니까 거기서 경찰이 그 일본 놈 순사가 좀 번장허연 있다가 이런 불평분자는 잡아야 한다 허영, 잡아서 그냥 갈혀 분거라. 잡아다가 고문실에다 경무청에 갈렸어.

남은 사름은 이젠 그 송 혁씨허고 강문 그 사름이 남았다 말여. 이거 안되겠다 고 말여. 도저히 이 사름을 구해내야 될텐데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말이여. 그냥 민란을 일으켜 가지고, 그냥 관청으로 들어가서 옥문을 깨부수고, 그냥 목사를 내쫓고, 그냥. 이좌수를 구해낸거라. 구해내가지고 그냥 뭐 삼인이 잡당해가지고, 그냥 김지를 잡아다가 그냥 김지네 집 불 다 태우고, 김진사 다 죽이고, 이젠 원 하 이 것이 그냥 일단은 성공을 했지게. 일단은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 대정서 창의군이 나오고, 정의서 군대가 오고 그러가지고, 이걸 진압을 허는데, 이좌수가 죽어요. 그냥 관군 앞에 죽고, 송씨도 춤 자결해 버리고, 그 오라리 강풍원운 도망쳤어. 도망치니까, 동생 아들 다 잡아다가 그냥 다 처참히 거리에서 그냥 죽여 버렸어. 그냥 죽여가지고, 목 메달아 가지고, 영한 그 강요훈엔 헌 사름은우리 원래 우수암 강씨 다 말여 우수암 사름이거든. 숨어서게 그 집 다 불태우고, 아들, 동생 다 죽여 부렸으니까, 어떻게 해 볼 락이 없어가지고, 이 근방에 와서 밤에 간 사름 긴당덜²⁸⁶⁾

285) 자기는

286) 친척들

밖에 가시른 점심 밥 가져 가시른 밥 흐끔 도랜 행 언어 먹으면서 살다가 춤 마지 막에 처참한 죽음을 춤 살지 못허주게. 그러니까 경헌 죽었는데…….

그 이좌수란 분이 거 민란을 일으켜 가지고, 춤 해가지고, 그저 어디야 어디갔 으면 금덕 이좌수 말을 허는데, 이좌수가 좌수 때 고성(高城)이 원래는 상귀에 속했던 마을이라, 이좌수가 고성을 분리시켜서, 고성 木을 맨들아 췌거든. 경헌 분이 이제 이좌순데, 춤 그런 강직한 분네가 이섯주만은, 그 성공을 못 허고 실패로서 끝 내가지고, 그 난리에 죽은 일이 있주게

27. 힘 썬 거문턱이 여자

제 보 자 : 강원학(남·88세, 금덕리 1863 - 2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4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조사자 : 그 부대각 말고 이 동네는 힘썬 사름이 어서 났수과?) 부대각? (조사자 : 예. 그 사름 말고는 힘썬 사름이 어서 났수과? 이 동네에.) 무사 옛날 이디 저 흥좌쉬. 좋은 춤 그 사름 처럼 힘 썬 사름은 어서 났주게. 그 때 인식에는 헐디. 그 분 당치²⁸⁷⁾ 못 해나서. 원강²⁸⁸⁾ 힘이 세기로, 게고 여자가 이 우이 거문턱이엔 헐 디 사는 여자. 원강 힘 썬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혼번은 힘 자청허젠 거문턱이엔 헐 디 그 흐린물이엔 헐 물이 생수 아주 좋은 물이주게 (조사자 : 예) 그 물도 있는데, 한 허벅지고 이디 요디 물 질레 오란.

마침 춤 그디 형제 어른이 힘이 원강 썬 사름이 서나서. 형이 아시²⁸⁹⁾ 보단도 힘 써고, 전인 이 들방에 그 돌 방에 돌 방에 해근에, 돌로 텅그링 그런 방에로 방 옛 쓸 떠났주게. 이젠 그 처음 그 방에 나올 적의 저 알팸이더래²⁹⁰⁾ 가젠 허민 질 이 아주 나빠. 늦아. 빌레 돌로 허영게 그디 간 후젠 그 방에 우작. 우작은 동글랑

287) 당하지

288) 워낙, 매우

289) 동생

290) 아래쪽으로

헌거 맨들어봐네, 전인 그자 이 양반이 노랜 허멍, 이 한규(?), 한규레덜만 들어서 난디. 성제가²⁹¹⁾ 한 그 물들이엔 해 놓고, 한규덜만 가. 이젠 부친은 저 물그래가 저기 어떻허다뒤근에²⁹²⁾ 하 이 이거 어떻허랜. 육질허난 성이 아시 신디 간 후젠, 이젠 아침²⁹³⁾ 강 물그래 저거 어떻 등그러다뒤근에 우리 가게. 아침 곧 붉으난 성제가 간 후젠, 양펜이 사네²⁹⁴⁾ 이래 오란 춤 얼케라 지금 혼진네²⁹⁵⁾ 그래 자처적, 이래 자처적 험디전 어츄츄 어츄츄 양펜이 상 그저 허멍. 그저 식전이 그걸 형제가 땡글어 오란. 그걸 힘 좋은 어른덜 아닌가. (조사자 : 예) 아 경해네 땡글어 오라났는다. 이젠 그 부친되는 인 일어난 보난 아덜덜 성제가 봐지주거. 요노로 사기덜 해그넵에, 물그래 어떻 들러 오랜 허난에 물그래 들렁 오랜 헌 건 여깃구나. 들러 오랏수다.²⁹⁶⁾ 영 허주기 물그래 땡글어 오란? 어느제 땡글언?²⁹⁷⁾ 아침 마씀. 혼꿈은 달마봐질 안허여.²⁹⁸⁾ 아침으 무슨 물그래. 그저 땡글언. 간 보진 땡글어 오랏주거.

경 헌 춤 형제 어른이, 힘 썬 사름이 서난네, 거문덕잇 여자 그거 힘 자처허젠, 거문덕이 막 미깃물 신걸 이딧 물 질러 온 핑계 헨. 허벅지고 헨 여기 오라서. 그 아시 되는 이 아시 되는 이가 형만이 힘이 없주게. 형은 춤 천당?장 허영 뱅핑이 처건. 뱅핑이 뱅괴천당(?) 뱅괴천당. 춤 소문 아나랏주게. 힘이 세텐 허는다... 아시 여기 오란에 게 그 거문덕이 여잔 그 아신줄 알안, 이야 니 봐점저 오라 씨름이나 해 보게. 허난에, 그 남자가 시상 천지에 기집년이 아니 처마가라 이거 봐지난 씨름해보게. 원 아니 허켄 허기도 곤란허여. 기여²⁹⁹⁾ 니 테어들라. 이젠 그디서 씨름을 틀어 불던지. 그 여자 콧 후리면 록 박아정. 콧 흔들면. 게고 원 짐승이나 사름이나 다 여자 남자 다른 생이라. 여진 그저 흔들엄 주자. 이 쇠굴은 것도 암선³⁰⁰⁾

291) 형제가
292) 어떻게 해 두어서
293) 새벽에, 이른 아침
294) 양쪽에 서서
295) 한참동안
296) 들러 왔습니다.
297) 언제 등그러서 왔느냐?
298) 하나도 사실같지 않아
299) 그래
300) 암소는

그냥 밀림 주지 안허고,³⁰¹⁾ 밧 갈 쉰 자락자락 부추고, 몰도 싸움허는디 우매덜은
 곱작 영 사근에 붉으고 흠치 경허고, 자매덜은 그자 그냥 발질로 싸우고 다 거 사
 림이나 짐승이나 다 다르는거. 바로 경허는디 확 흔들면 콧 박아정 나아더리 뉘 여
 자광 어떻 행이네 그거 내가 이 여자한테 켜서. 내 한 지붕이 다 아시원 발힐 수도
 없고,³⁰²⁾ 무시거 현제 영. 허 손 그 여직 이길 생각은 아니허고, 그자 늙지만 말아
 보젠. 막 춤 맹심행이닝에³⁰³⁾ 발로 그자 확 흔들르니까…….

왕 보난 성이 어떻 행이네 올려레 영 나상 보난,³⁰⁴⁾ 지 아시가³⁰⁵⁾ 그 거문턱이
 여직광 씨름 붙은 후젠 그자 영 파장 파등허젠. 아시가 똑 그 여펜안티 물림직허
 여.³⁰⁶⁾ 이젠 으상으상 춤 그센 멀지 안허주게. 오디서니까 영 그 여자가 본 후젠,
 야 저 큰 거 오랐저. 이거 큰 거 오라. 이제, 이거 싱겁다. 허멍 내분 후젠, 이젠
 큰 것광 대보저. 아 큰 것은 춤 춤 선달도 허고, 아주 춤 힘이 강허연, 큰 것도 확
 흔들민 그자 콧 박아진다, 콧 박아전. 나아덜이 무스거 허젠 나 이디 나오랑. 이
 놈의 것광 영 해전고 하마떠니 그자 내 늙지랑 말젠, 막 허당 아명 심세도게,³⁰⁷⁾
 그거 여자가 오래 해가난 조금 지천. 지쳐내 영 허는 것 닭앙, 어떻 행 열두보로
 확 채우치난, 그 여자가 콧 박아지난 이젠 탁 끊어 아장. 이노로 생긴년 츠마가라
 나와 해보젠. 큰 게 큰 거여. 아미도³⁰⁸⁾ 큰게 났다. (웃음) 경 허멍해났젠 허여.

28. 귀체헌 이야기(I)

제 보 자 : 강원학(남·88세, 금덕리 1863 - 2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4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301) 밀리기를 하지않고

302) 되돌릴 수동 없고

303) 정신을 바로하고

304) 나서서 보니까

305) 자기 동생이

306) 질것 같아.

307) 아무리 힘이 세도

308) 아무래도

전인 그 때 어느 모습 차례고, 이 동 그 어느 모습이여만은. 이젠 그자 벗 경행 가는다, 느이³⁰⁹⁾ 벗을 허게 되여. 느이 벗을 허여. 이젠 영덜 해 가는다. 영허난에 시간이 일렀젠. 시간이 일런 담배나 붙영 가젠, 브름어지에³¹⁰⁾ 아장 영 아잔 담배 부... 소변보래 오난에 저래강 소변간 뉘동 오명, 빙삭빙삭 웃으명 오라. 오라. 뭐 반가운 일이 신³¹¹⁾ 생이로고 바로 웃으명 오란 영 아잔. 내야덜이 난 이상헌 일이 이서네, 무사?

하는 말이 우리 아시 제계 해부난.³¹²⁾ 그만 아시 유복지 유복지에 허민 아방 죽 은지 후계 난 건. 배안해 주식이엔 현계 그 유복지 난에 행계, 이제 춤 큰 아방네 동네로 그 느랑 걱정해근에 춤 그 조케된 걸 춤 느랑 그 축허고, 춤 이젠 그것 행이네, 말잔 춤 여가네 결혼허게 되언. 이젠 그 모친되는 인 춤 이저 알아근에 어디 결혼은 시겨주게시리. 경허난에 춤 어명 어명 행이네 춤 여자 허날 행이네 결혼은 시길 걸로 허연.

그게 아리도 춤. 돈 욕심은 허는 놈이로라. 원 장계 가근에 헨 산디 어명 허면 막 부지로 살아집니까? 삼춘 앞이 요런 말을 허여. 요놈이 것 돈 욕심 헐 거 생이로고, 이 모습이엔 행 뉘게가 제일 부지 닳아 뵈니? 춤 그이가 춤 부지된 일 거느려.³¹³⁾ 아무 것이 부자 아니파. 경헨 이젠 삼춘, 큰아버지이런 행 곳는 거엔, 제일 그 추룩 부자 되영 살켜드네, 니 결혼시키젠 허민 집에서 둔비³¹⁴⁾ 헐거여. 둔비를 헐거매, 비제길, 전인 대엔 허민 그 쓸 걸이는, 명 놓는 건 춤 뭐 그 것고라 디악씨기엔 허는 거 뉘. (조사자 : 예. 예.) 디악씨기로 열개만 비제길 해근에 그 놀 비제길 그걸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걸 먹어근에 그자 그냥 놈 모르게 영 허민 이 모습 추시로³¹⁵⁾ 부진 된다. 굳는 게 경 끌어 붙였어.

경허난에 이젠 게문 춤 그 둔비 헐 날은 며틀 안 되어 혼 이틀 지남 이젠 아잔 둔비허게 되난 동네 여자덜이 영 오란. 춤 둔비덜을 허는디 이젠 가가난에, 모친덜은 맨딱 그 비제기, 비제기엔 헨 거 걸으명 민딱 쥐가. 쥐가난 경해네, 가가난에

309) 네명이

310) 바람을 피하여

311) 있는

312) 요절하니까

313) 부자인 사람을 말해

314) 두부를

315) 최고로

이젠 그 놈을 막 인역 먹어근에 부지로 되젠 현 죽신 어시 킨 쥐가주기 (웃음) 이젠 막 비제기를 킨 줍젠. 뭐 어머니 신더레 오죽하여. 뭐 그 춤 신랑되는 놈은 뭐 비제기 경 먹영 정해네 뭐 무슨 촌지로 부지로 살아보젠 허난 마, 어멍은 뭐 비제길 킨 쫘대로 쥐가. 이젠 비제길 킨 줍젠 뭐 어머니한테 대드난 비제기 그정 가젠 허는 여자가 그냥 내버려 둠 가. 아 그 신랑될 노미 게 경 뒤흔들어가난... 허난에 이제 그냥 해부난에 어멍도 모르게 그 비제길 춤 윤미간 (청취불명) 많이 그저다네 헛간에 간 곱전.³¹⁶⁾

이젠 그 결혼 할 날은 아척 아척도 요새 시간이른 새로 댕 시쯤 되난에, 일어난에 그 놈을 분명 먹어근에 쑤실거³¹⁷⁾ 아니라게 비제기 놀 비제기가 그원 단 혼 술가락도 먹음 곤란할 겐디 그걸 무슨 촌실로 부지로 살아보젠, 아준 후젠 그자 그걸 먹음 먹음 현 게 아척도 많이 먹은 모양이렇게. 이젠 경 먹어네 허여네 이젠 그냥 아척. 이젠 그메³¹⁸⁾ 탕 가젠 허난에 조반밥 허영 쥐야 흙치³¹⁹⁾ 원 조반밥 뭐 먹음 생각도 어서. 그 비제기 경 먹으난에 못 전담도 허고, 그냥 현 후젠 그냥 그출려 아전에 이젠 새각시 집까지 갔주. 간 허난에 새각시 영 그디 준방이 있주게. 준방이, 그 준방이영 그짜 아잔에 그짜 아장. 흙치 원 밥 먹음이랑 대소반 허고 정신이 그만 원. 놀비제길 게 우야로³²⁰⁾ 먹어네 하마 어멍 이거 원. 놈을 모르게 해야 헛건디. 그디 춤 준방은 이제, 상 받은 신랑은 원 허여네. 밥도 안 먹으난 그준방이 어멍 몸 괴로우넨 허난. 어 몸 괴로완 경허난에 이젠 준방등인 이젠 지만 아장 먹은 후젠 상들러내 킨길디 나간. 이 자리에 누우렌. 해네 이젠 그 준방이 이거 신랑은 괴로운 모양이우다. 괴로운 모양에 이제 누랜 햄수다. 저디 이불이나 그저당 덮어줍세. 그냥 그자 이불 더경³²¹⁾ 내부려네, 잔치를 했주. 오란 그 신부펜인, 신랑 그 모양 행이네 병 경행 뉘노난 여간 아니 걱정이라게. 근심. 게고 그 부모네 깃장이라도 원 저거 톱 이디서 죽어나그네 이제 스몹 새각시 노릇 허도 못 허고, 그자 공연히 춤. 그날 친척덜이영 잔치해야 잔치해사집신디 뉘사 햄신디 저거 저

316) 감추어두다

317) 배가 아프다

318) 가마

319) 도저히

320) 잘못

321) 덮어

디서 죽어노민 원 이거 원 말이 아니주.

말자엔 즈물어 가난 잔치 그축헌 흐른 거난 그 신부된 이가 예 이거 술썩이³²²⁾ 영 문이나 열앙 보젠. 영 문을 저 지게 문을 영 여난. 내무사리가 원 팍 헌게 들어 왕 사름 죽은 내가 원 이자락도³²³⁾ 원 더럽는가 원. 영 곧는가 허연 게도 인역 게 당헌 일이라. 예 술썩이 이불이나 영 뵈려. 이불은 영. 얼굴 영 우태래 더경 뉘서. 이불 영 술썩이 영 보난. 눈이 뵈롱헌 서. (웃음) 어 죽진 안 헌. 어떻 크게 괴롭수 과 허난. 크게 괴롭된 대답은 안 허고, 우리 부지로 살아질게라. 그 비제기만 먹으면 부지로 살아질 거엔 요런 말을 허여. 우리 부지로 살아질 거라. 거 무슨 말이파 게. 우리 부지로 살자지메 영허는 거라. 저 내 비제길 먹어근에 지금??장 아무도 모르게 삼켰으니가니 우리 무슨서 내 제일 부지로 살아질게메. 원 신부는 어찌 속이 좋지 못 헌디. 어떤 삼춘이 경 시겨내. 삼춘. 어떤 삼춘이? 상객으로 간 그디 헌 삼춘. 저디 온 그저 우리 삼춘이 게. 삼춘이 경 골아부난 해주게. 예 영 보거든에 알웃은 흠치 원 볼침이 어서. 이젠 알, 웃웃은 괜찮으고, 알웃은. 그 알웃을 이젠, 걸름시겨난 걸름 착 골아네 헌 후젠 그건 어디 가네 아무도 모르게 놔 어신 무똥에 묻어 똥. 이젠 뒷날은 신랑으로 초령 가야 험 모양인디, 알 웃이 어서부니 이제 안 될 형편이라.

원 이 노릇을 어찌 허코? 원 이거 원 아미도 이결랑 놔덜 모르게 어떻 헨에 이젠 그냥 비끼던 나간 영 하늘을 영 뵈려 봐. 영 허난. 영 그 우시간 삼춘 그 자는 디 간 상 영 허난 우로 강 춤 알 웃을 술썩이 영 손 내밀영 그걸 7져다네, 역시 신랑펜이 입져서. 입져네 이젠 자당, 말짱 그 입지고 행이네 영 일렁 왔전 맛 상대 해가난 춤 아주 미남자라 이제 삼춘되는 인 아게 일어남이 어서 일어나지 안행 이젠 그 신부가 저 일어남 시수허십서. 이래 시숫물 떠다 남수다. 으음 장식만 (웃음) 허여. 허여네 말짱 그자 그 신분 그 시만 맞지젠 저 어떻헨 영 보난에 웃도 없고 헨. 그 상객으로 가젠 허민 도복, 그 도복이엔 헌 큰 웃을 입어야 된거주. 마 알웃³²⁴⁾ 안 입고 우에 그 큰 웃 입어네, 시수허니까게 어찌 우스운지. (웃음)

에 경해네 이젠 허여네 아미도 그뻔 해네 오ندي 춤 그냥 알 웃 어시 어떻 어

322) 살썩이
323) 이쳐럼, 이렇게까지
324) 아래웃

평 헌 후젠 춤 그디 오라네 그냥 우의 옷셔내 입영 헌디. 이젠 말짜안 신부테령 이래 오젠 허민 사돈님 신디 하직을 해땡 오라야 헐 노망이라. 하직을 해땡 오라야. 이젠 그냥 이젠 사돈방에 간 후젠 이젠 해네 경 게 알웃 아니 입영 조심 영 영 행이네 영 해네 아줌아자. 이젠 그디 아자네 영 헌디 그디 아히 조금 여근 아이 영 행 땡기다 보난에 강알에 것, 그 아이 눈에 띄여. 건감 쥐. 건감 쥐. 꽃감 쥐. 꽃감 쥐. 이노로 생긴 놈. 꽃감이 지금 어디 시냐. 저 나그네 강알에 꽃감 쥐. 꽃감 쥐. (웃음) 이젠 화닥닥 일어난 출런 나완

훈 사름 경 그 버금엿³²⁵⁾ 사름인디. 에이 에이 그만 썩 헌 귀체. 어디 그 보단 더 헌 귀체가 실거라게 허연 헌디. 그 때에 내 그거 니 사름이난 헌디 그... 하 그 거 춤 전인 경 그자.

저던 가민 전인 양반만 봐근에 사둔허기로 이 대정 혼사가 많허서. 그자 양반. 양반만 차자근에 해난디 대정. 춤 혼사라 난디 이젠 오민 춤 방에 좀 자근에 헌디 춤 이젠 밤인 그자 사둔이영 7째 자근에 이야기 하단에 뵈는데, 이젠 밤인 뵈다 근에, 뒷날 아척인 뒤가 무려와 뒤 무려왕이네 미리 붉은 때에 어디 그 화장실 변소 곁은 거 뵈 나두지 안행 그냥 있다네, 밤이 어두커니는 화장실을 차사져 게 노시 못 차잔 막 땡기당 보난에 춤 어떻 행이네 화장실 들어 간.

이젠 뒤 반 오라네. 이젠 인역 뉘 난 자리, 어느게 인역 뉘난 방인 츠렌 이걸 영 행 좇지 못 허여. 원 그디 강 영 박, 저디 강 영 박, 허멍 어느 방인고? 마당에 이젠 영 산 생각해난, 내가 들인 영 7째 뵈는디 내가 안목에 뉘 났으니까니 이젠 슬째기 문 연 후젠. 손을 영 내밀어네 이젠 영 보난에 그 백장. 백장 그디 그디 트멍어가 조금 나서. 어 요거 나 뉘난 방이로고 이젠 그디 간에 영 늣젠 허여. 줍아 띄여. 이젠 그디 영허난에 조금 밀려뉘네, 그디 누어서. 누언 뒷날은 이젠 붉안. 붉아네 영 띄려 보난 그 초저녁에 놀 땡 영 공장에 보난 남자 옷덜이 공장에 덜 걸 어져서. 그때는 붉아네 영 보난에 남자 옷이 걸어졌는디, 영 보난 여자 옷덜이 걸 어전 서. 분병 언치낙³²⁶⁾ 남자 옷이 걸어진 것 닳았는디 여자 옷이... 거 이상허다. 영 옆더래 헐 보난 안사둔이영 간에 컷징이,³²⁷⁾ 안사둔더레 밀리멍 해근에 뉘 졌주거. (웃음) 아 경허연 영 헐 보난 안사둔 마주, 영 해네 마주 영 띄려져. 안 사

325) 근처에

326) 어제 저녁

327) 가지런히

둔이 이젠 아마시평허리 허멍 활딱 허게 일어난 후젠 제게 옷 입어근에 고쳐사 볼
 져, 견디 영 제게 입으젠 현 건 혼 가달에 양착 종엘 그만 급허연에 디물어난³²⁸⁾
 그 사둔 누운 우터레 와당허게 쓰러져. (웃음) (청취불능) 쓰러전 허난에 이젠 또
 시 일어난 후젠 그장 입으멍 치매도 입을 나후 어시 치매 영 입어가멍, 저래 창문
 열앙 저래 간디 치매가 돌착에 걸린 후젠 영 해근에 그만 영 현 후젠 위알러래
 것 박아져.³²⁹⁾ 박아지난 그만 콧등이 그만 돌에 건 밀어네, 피가 나주게. 이젠 경
 헨 조반을 해야 헐 모냥이주게. 그 조반 밥을 그 새각시 아시도, 있었는데 어머니
 무사 코에 피난? 어머니 무사 코에 피난? 그추룩 허멍 해났젠 허어.

그런 일 십테가? 그보단 더 현 귀체가 어디 시린. 기영 허멍 허고, 그 버금 그
 버금 혼 늙은. 에 에. 난 그보단 더한 귀체해나서. 나도 춤 조채 푸는디 상객으로
 간 경 허멍 그디 아잔 (청취불능) 춤 외방서 영 가민 춤 변소 곁은 건 그 인척 잘
 좇지 못 헐 게주게. 헨. 변소 좇지 못 허연 허다근에, 물짜에 되니까는 오난 춤 변
 소를 좇아져. 그디 해네 그 저슬리, 저슬리 막 언디고, 현디. 경해네 뒤 뺑 일어서
 져 허당 그만 니끌인 후젠 그 알러래 털어져 변소 오란 털어져. 그만 그 잔치허젠
 한 한 사름덜 행에네 뒤 막 봐 놓으난 그만 옷이 형편아니라. 변소판 아래로 털어
 전 해노난 하 이 노릇을 어찌허라 원. 이거 원. 의복에 막 똥칠 헨. 어평허리. 막
 그 드딜 판 아래 해 놓고, 허멍 막 밀어. 경해노난 건춤 날은 붉안.

문을 박 허게 여는 소리가 나. 아 이거 어떠허난 주인 일어남신가? 안사둔. 안
 사둔은 마 변소 익숙으난 마 문 으라네, 통통통통 문을 잡을러본 후젠³³⁰⁾ 마 인역
 그 드딜판 아래 영, 그 우터레 타 아즌 후젠 그자 뒤으론 똥, 앞으론 오줌. 바로
 작작작작. (웃음) 영 해근에 피허젠 피허젠 헨게 상통이로 그 안사둔 그 강알 트멍
 을 강 툭 박아부난 자락 겁 낸 후젠 뭐 그 안사둔나올라 털어전. 두 사둔이 부섬
 부섬 허야갈 판이라. 마 이젠 마 날은 경허난 푸지거니 붉주게. 그제 그 돼이지
 통시엔 그 그 거름해근에, 그 문 파 네불민, 물이 저 혼근히 급주게. 이제 마 두
 사둔이 그 우의 타 아잔에 해노난에 그저 어디래 제게 겨나젠 허는 쫘엔 그 남자
 사둔이 이젠 영 일어난 보난에 아니 드딜판 아랜 두 사둔이 거기 선 허난. 이거
 어떤 일인고 허난 우선 원 아맹헌 일이 돼고, 제게 비꼰데래 나가도록만 허젠 삼

328) 답으니

329) 넘어져

330) 두드러본 후엔

텐가, 무슨 사드레가 흰 걸 거저다네 그래 턱 걸쳐서. 허난에 게 그 우의 그 안사
둔 시난에 안사둔이 문저 그 사드레 영 허연 그 스나 사돈 말짢 천천히라도 올라
질테면 그디 고만허 앓을 수 서계 굳지 업음 업은 양 오란에, 영 헨에 그 사드레
영 허난에 영 회칙걸젠 허난에 안사둔을 푹허게 영 심언 허난 안사둔 심언 허난
들이 그찌 그 통깃³³¹⁾ 물더레 영 허연 자빠질거 아니라 (웃음) 그 추록 허멍 옛날
은 춤 벌벌시가 다 해놔주.

(조사자 : 거 한 사름 귀체헌 애긴 모르고 마씀? 네 사름이.)

경허난 네사름이던가? 혼 사름은 또 어뎡 되던고? 혼 사름 그자 혼 사름인 추
레지. 혼 사름은 거 생각 못 허켜.

경헨 느의 니의 경해네 이젠 향의허래 감은 그만 시간 늦어부련. 그 경허난 마
그디서 결의 헐 것덜은 마 결의 헨. 그 때에 경헨에 헨디 말짢 어뎡 경 늦언던 허
난 니 사람이 허난 땀막 인역 경 헨 말 허난에, 그 때 니 사름은 막 책망 받고, 혼
사름은 책망 안 받아놔젠 해나서. 혼 사름, 거 어뎡해네……. 춤 니 사름이 경해놔
젠 허매.

29. 귀체헌 이야기(II)

제 보 자 : 강원학(남·88세, 금덕리 1863 - 2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4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알터가리가 진 사름은³³²⁾ 수염이 질어근에 알리레³³³⁾ 들락허고, 그 알터가리 어
신 사름은 수염이 그디서 하늘에 들락허지 안허영 그디서 감아지주제. 전이 알터
가리가 춤 어서네, 수염이 그속헌³³⁴⁾ 하르방 그 하르방이 어디 상객 춤 글도 좋고,
상객으로 잘 가젠 허여. 상객으로 가민 잘 얻어도 먹고, 상객으로 잘 가젠 허영.

331) 화장실

332) 아래 턱이 긴 사름은

333) 아래로

334) 가득한

놈의 일에도 그자 영 가민 꼭 무신 분시어신 말을, 귀첼 반 오라. 귀첼 그자 느랑 방 오랑 허난애.

이젠 아시네³³⁵ 집이 춤 결혼을 아시네가 허게 되언. 놈이 집이도 춤 느랑 상객으로 땡기는디 뭐 조캐 손진 으레엇이 그자 우시 가겔 곁로 생각했주게. (조사자 : 아 아시네 집이?) 아시네 집이 (조사자 : 아시네 아덜 풀게 되언 마씀?) 결혼허게 되언. 이젠 아신 성 경 허는 것에 춤 소문 들으멍 좋아보질 안 허여.

이젠 잔치 아시날은³³⁶ 형 신디 간. 간 보난애 방에 누엇당 아시가 가가난, 아시가 날그라 저 상객으로 가게시리 허젠 오람젯다. 경헨 영 일어난 아즈난애 형님 마씀. 무사? 형님 저 이번 우리집이 저 결혼애 형님 상객으로 가지 마셔. 이젠 뭐 얼굴이 뭐 스뭇 뜰려.³³⁷ 지 뭐 상객으로 헨디 뭐, 상객으로 가젠만 막, 얼굴이 거 멩케……. 아신 경해네 생각해보니 원 형을 상객으로 안 보냈다근애 어떻 집이 어떻 불안이 생김직 헨 생각이 나. 이젠 헨 수 어시 형님은 상객으로 가커드네 원 놈덜 아장 별 이야길 허꼭 경해도 그자 음식이나 주저드네 그자 밧아근애 그자 춤 춤행³³⁸ 그자 음식이나 밧아근애 오커저드네 갑셔. 게민 경헨케라. 경행이네 경 정 약속허연 갔주게.

상객으로 해근애 이젠 그디 가네, 상객 방애 춤 경 아잔 헨디 그디 신부 사춘. 사춘 오라방이 있는디, 그 사춘 오라방이 방애 들어 간 술잔 비와네 춤 그이 심부름써 허멍 헨. 그 뒤엔 그 이야기 저 이야기 했자 상객으로 간 인 원 영 아무거엔 도 원 이야길 안허여. 이야길 안 허난애 이젠 저 삼방더래³³⁹ 간 톱 아즈멍,³⁴⁰ 저 상객으로 온 넘은 입이 으신고라 원. 말을 영 안 곱압쨌 허난. 그말은 어떻허난 알 아들언 술가락 통 나뒤네 그딘 간 후젠 수염 양 손으로 영 헨 뵈어싼.³⁴¹ 이진 입 아니 느 어떻 씹과? (웃음) 경 곱아. 경 곱아난애 와 헨 후젠 바로 허여네, 경헨 그때도 노시 춤 큰 귀체를 쥐났젠.

335) 동생네

336) 전날은

337) 달라

338) 조용해서

339) 마루애

340) 앉으면서

341) 꺾어 보이며

30. 흥선 대원군과 민비

제 보 자 : 장충희(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4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대원군 시절에 민비가 있었는데, 그 고종이 그 대원군 아덜인데, 아버지 앞에 매여가지고, 도저히 그 정치를 못하니까, 그 며느리되는 민비가 이거 안되겠다 해 가지고, 자꾸 그 고종을 꼬드겨 가지고서 대원군을 이렇게 물리치고 자립허라고 하는데, 그 고종이 그 그렇게 허다보니까 춤 이도 저도 못하고 하는데, 그 민씨가 그 무당을 많이 좋아했어. 무당을 많이 좋아해 가지고 하는데, 그 어떻게 하면 대원군을 빨리 죽게, 이 좀 빌었어. 무당들을 시켜서 빌라고 그런데 그 정볼 들어보니까 어떤 무당이 아주 용헌 무당이 대원군의 화상을 그려 놓고 대원군 화상에다가 화살을 쏘아 놓고 빨리 대원군이 죽으라고 매일 밤 기도를 한다 이거라. 매일 밤 기도를 한다. 그 대원군이 이 말을 들었어.

그 대원군이 그러면은 그 무당을 가서 데려와라. 데려오는 줄 모르게 데려와라. 해서 그 수하들을 시켜가지고 그 이제 그 무당을 납치해 오는데, 도중에 오는 도중에 가마를 갈아태워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납칠 해왔어. 납치해 오니까 대원군이, 이 잡혀오는 무당은 그런 줄 알았거든. 가면은 죽을 것이다. 대원군 앞에 이제 호통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대원군은 상당히 그 지모가 있는 분이니까, 아 오느라고 수고했네. 그 동안 잘 쉬게. 이렇게 하면서 옷을 갖다 주면서 좋은 비단 옷을 갖다 주면서 옷을, 이 옷으로 갈아입고 잘 쉬게. 그러면서 좋은 음식상을 이제 잘 대접을 허는거라.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허여. 나중에 딱 들으니깐 민비는 지금 오늘 무당이 지금 대원군들의 그 수하에 잡혀갔다. 틀림어서 대원군이다. 그걸 민비가 그 보고를 받았어. 알았다. 그러면은 죽어버릴 테니까 만약 그 운현궁에서 사체가 나올텐데 이것을 확인만 하면은 대원군이 그 살인을 했다 해가지고서 이걸 여론화시키고, 하나의 에 그 춤 대원군을 갖다가 궁지로 몰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쪼가릴 잡으라고 그 감시를 허는거라. 일주일 내

내 감시를 해도 아무런 기적이 없어. 사체도 안나오고, 무슨 사람도 안 나오고, 그런데 현 일주일 되니까, 자네 그 동안 편히 쉬었을 테니 돌아가게. 그 무당보고 그 래 붙었어. 아 그러니까 아 그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잘 대접받고 좋은 옷 켜지 이래허니까, 아 이상하다 하면서 그냥 나왔어.

나와서 민비한테 가서 고했어. 가서 어떻게 될 했냐 허니까, 아무 말도 안 허고 뭐 이렇게 옷 주고 잘 맥여주고 그자 혼 일주일 이렇게 있당 왔습니다. 아 민비가 딱 들으니까 이 놈이 자식은 대원군 앞에 가서 세뇌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한거라. 세뇌당했구나 해 놓고, 눈짓으로 나가라. 데려 나가라. 이거 데려 나가라고 눈짓을 친 건 가서 죽여불란거지. 그 때 급히 데리고 나가서 그냥 목을 쳐서 죽여붙었어. 그냥. 해서 잠시 쫓 있다가 생각하니까, 아무 말도 안 허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해서 놀다 왔습니다. 하는 걸 그 말을 들을 때 민비가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이거 는 대원군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 사람을 죽일려고 한 거라는 거를 그제야 깨달은 거라. 머리가 좀 좋긴 좋았지만 그제야 깜빡 깨달아서 안된다. 가서 못하게 허라. 이미 때는 늦어서 그 때는 이미 목이 떨어진 때라. 이런 이야기 들어봐서? 적을 이용해서 적을 친다. 민비를 이용해서 민비 수하를 죽인거지. 그러니까 이런 일화가 하나 있지.

31. 점 잘 치는 평양 이진사

계 보 자 : 강충희(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4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옛날에 평양에 이 점 잘치는 아주 점을 잘 치는 이진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아주 점을 잘 쳐. 그런데 그 조카가 하나 있었거든. 숙부님 나 이번에 과거시험 보러 가겠습니다. 점이나 한 번 쳐 봐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 그 숙부가 점을 딱쳐 보니까, 너 가지 말아라. 너 갔자 낙방허겠다. 이런다 말여. 아 그러나 기왕 몇 해 동안 준비했고, 바람도 썰 겸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 과거 시험을 보려고, 자기 숙부는 가도 안된다고 했지만은 그것에 개의치 안허고 그냥

준빌 해가지고 참 개다리 붓짐을 지고 그자 서울을 향해서 오는 거라.

오다가 날이 저무니까 어떤 주막에 들었는데, 어떤 중하고 마주쳤어. 그 중이 가만히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고, 틀림어서 과거에 보러 가는 그런 사름같으거든. 허연 수작을 해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자기는 과객이다. 지금 과거를 보러 가는 중이다. 이렇게 허고 거 스님은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허니까, 아 나는 묘향산에서 왔는데, 지금 형양에 이진사가 점을 잘한다고 허니까 한 번 가서 내기를 해볼라고, 좀 평양을 훑아가는 길이다. 이진사는 자기 숙부를 말하는 거라. 아 그렇습니다. 당신은 과거를 보러 가니까 그럼 점이라도 쳐봤으? 이러니까. 예 쳐봤습니다. 그럼 점쳐난 거 있소 허니까, 그 점란게 보통 뭐 헛 게 아니고 그 옛날 주역에 입각해서 쳤거든. 허니까 경허니까 그럼 쳐난 그 비복 쳐난게 있으냐고 허니까 아 가져간거라. 마 중이 딱 보니까 이게 불합격하게 될 과거든. 과가 합격하게된 과가 아니며. 그런데, 지금 과거보러 간다 말이며. 이 과에 가지고, 득과를 한다고 합디가 못 한다고 합디가? 아 득과한다 하니까 내가 나가지 안 된다면 내가 갈 일이 있겠오 아 것도 그렇거든. 된다고 허니까 가는 것이지. 안 된다고 허는데, 갈 리가 없다 말이며. 그리말고, 우리 한 방에서 하룻밤 같이 지냅니다. 아 그러쥬 그 때 밤을 그냥 오래 새벽도록 불을 켜주면은 뭐 닷냥인가, 이렇게 물고 하는데, 불 켜주는 값은 그 스님이, 내가 물테니까, 걱정말고, 당신은 좁이나 자시오 한 이 스님이 밤새도록 풀어간다 풀어온다 뭐 그 이제 맞나 틀리나 헛 걸 자꾸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 보고, 계산을 막 해 보는거라. 아 실제 안되는건데, 이걸 된다고 해서 과거를 보러 가라고 하니 이게 이상허다 허며 고개를 가웃가웃 허면서, 자꾸 풀어보는데 날이 새었어.

이진사 조캐는 잠을 잘 자고, 그 스님은 잠을 못 자면서, 그걸 풀어봤는데, 아침 새벽에 이진사 그 조카가 깨나니까, 째은이가 깨나니까, 이저 동대문 안에 들어서면은 디야지가 한 마리 나와서 그 디야지를 발로 차면은 디야지 들어가는 집을 따라 들어가면은 된다고 헛디다. 아 그러더구만. 아 이 높은 인제 그러더구만 이렇게 했어. 실은 안된다는 과였거든. 그 점친 과는 아니 된다는 과였는데, 된다고 하더라고만 해볼었거든. 그러니까 연구를 허는거라. 아 이제는 그러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디야지가 들어가는 집에 가서 유숙을 하면은 된다고 헛디다. 아 그러더구만. 아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진사가 이거를 며칠동안 이 점을 쳤습니까? 며칠은 무슨 며칠. 담배 두개 먹을 사이에 쳤지. 아이 그렇습니까? 나는 밤 새도록

해도 이저 겨우 풀었는데, 이진사는 담배 두개 혈 사이에 했다면 아이 내가 안 가겠다고, 이저 갔다가 큰일 나겠다고, 내 내기하러 가젠 했는데, 안 가겠다고 나도 연구 할 만큼 했는데, 이 진사한테 도저히 못 당하겠다고 거 맘대로 하시오

경헌 스님은 이 묘향산에 가 버리고, 되돌아 가버리고, 터벅터벅 이제 서울을 왔어. 서울에 왔는데, 아 아닌게 아니라, 동대문에 들어서니까 난데 없는 돼지 새끼가 꿀꿀꿀꿀 거란다 말이야. 허이 중놈이 굴은 대로 맞기는 맞는가 보다 해서, 밭길로 뱀다 차니까 돼지가 액 하면서 그냥 어떤 집으로 들어가 들어갔는데, 아 들어간 보니까 아 조용한 조그마한 집인데, 아 누구냐고 그러니까. 아주 멀리서 온 과거 시험 보러 온 사람인데, 하룻밤 유숙해 주십시오 허니까, 아 여기 여관도 있고, 그런데 왜 여기 오느냐. 그러지만 어떡합니까 하룻밤. 아 아니된다고 어떻게 안 된다고 거절하는거라.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나가서 고기랑 쓸이랑 받아가지고 불이나케 와가지고, 아주머니 어쩡니까 이저 받고 모른척 해가지고 그자 촌에서 조카난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행 방 하나만 어떻게 좀 빌려주십서. 아 저 쌀 받고 고기 받으니까 주인이 아 그럼 그러라고 아무소리 말고 죽은 척 해서 그냥 방에 가만히 있거라.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헐 옛날엔 죽은 구들이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그 조그만 방이 있었거든. 거기 강 딱 이젠 여장을 풀고 가만히 있는데 아 밤이 좀 이 때 쯤 해서가지고 한 아홉 시, 열 시 쯤 되니까 아 어떤 세 놈이 말이야 약자 지 켜하면서, 아 그 집에 와가지고 그냥 앉아 가지고, 뭐 술 가져오라, 뭐 가져 오라 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지네들 끼리 떠들고 놀고 막 그러는거라.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서 조용히 죽은 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아침 녀 한 네시쯤 되니까, 문을 탁탁 누가 그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말이야. 그런데 이 놈들이 술 먹다 끝 아 떨어져 가지고 밖으로 나가질 않아. 나가질 않아가지고, 하도 문을 자꾸 두드리고 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내라도 나가본다. 가서 문을 슬며시 여니까, 종이 석장을 탁 던지고 가더라고 그래서 확 문 더깁 나 와붙어. 보니까 그제 글이야. 시 지은 거야. 뚝 석장이야. 아 요게 혼 놈한테 혼나씩이로구나. 그래서 이 놈들이 이랬구나. 그 글 석장을 딱 가지고선 이 창문 밑에 가서 그냥 딱 감춰놓거라. 저거 되었던 말이야.

아침 9시시가 넘어서 이 놈들이깨나 보니까 뭐 연락이 있을텐데 너 봤나? 아 나도 모르겠다. 너 봤나? 나도 모르겠다. 틀립엇이 뭐가 가져 왔을텐데, 모른다 다

하거든. 거 이상하다. 하여튼 이 뭐 틀림없고 이 방에서 누가 나가긴 나갔다. 주인 좀 이래 와 보라. 저 방에 누가 있다고, 아 촌에서 올라 온 우리 조카아이 하나 있다고 아 이 놈 데려와 보라. 데려다 놓고 너 바른대로 말 안 하면 너 죽여버리겠다고 내일 바로 시험 날짤때 너가 반드시 받았을 거다. 내노라. 나 안받았다고 나 모른다고 모르긴 뭘 모르냐고 니 정말로 모르냐고 모른다고 아 이제는 칼 들이대면서, 너 밖에는 이 집에 우리 말고 너 밖에는 잔 사람이 엇인데, 우리 말 안들으면 너는 오졸 죽인다고, 탁 들이대니까, 아 그 중에 한 놈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사람 하나 죽게 생겼어. 뭐라고 말했냐면, 네 그리 말고 내놔라. 내가 빠지겠다. 나는 상심헌의 조카다. 그러니까 나는 이번 빠지고 내년에 헐 수 있다. 그러니까 내일 와서 느네 두장 가지고, 당신도 가지시오 내가 빠질테니까, 나는 내년에 하겠오 아 이렇게 했거든. 이제 보니까 진실로 이야기 허는 거 같아. 그제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허연 가서 추녀 밑에 가서 그냥 곧 감췄던 걸 딱 가졌는데 가졌거든 가졌는데, 아 이제 득과가 된 거라. 옛날은 과거를 다 그랬어. 지금 다 빼기는 사름덜만 다 있었어. 뭐 거기서 어찌고 어찌고 해도 이미 다 그 대감덜 자식덜만 다 그래. 그런데 이 이생원이 그 과거를 딱 하고 퇴장헌 집에 돌아 갔어. 헐디 저 과거 못 헐디 해도 과거 해 왔습니다. 거 이상하다. 과거 못 헐디고 나왔는데. 그 중놈이 했던 걸. 그 이거 보십시오 이거 숙부님 이거 묘향산 중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중이 이렇게 했다고 가만히 보니까 이진사가 도저히 해독을 못 허겠어. 이거 총 몇 시간에 허더냐. 밤새도록 붉도록 험디다. 하 이거 설려야겠다. 이진사는 그걸 해독을 헐러니까 보름이 걸렸어. 이진 못 허겠다 헐 설르라. 그래서 그 점 보는 거 설렀다 이거야.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헐 이야기가 하나 있지.

32. 김덕영 장군

제 보 자 : 강충희(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4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사람이 그 한이 맺히면은 이 사람의 혼백이 있는데, 보통 사람은 백 팔 년 간다고 하거든. 죽어서. 백 팔 년. 집념이 강하고, 사회적으로 공로가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은 뭐 한 삼백 년, 사백 년 7지도 간다고 그래. 그러면 신선, 신선은 천 년 정도 가거든. 혼백이 간다고 그렇게 선인덜이 말해. 그럼 성인은 몇 년이나 가느냐 허민, 이 천 년에서 이천 오백 년 7지 간다이거라. 그럼 석가모니가 공자나 예수는 지금 그 역력이 거이 소멸되어 간다는 상태다. 새로운 생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 옛날 관운장은 천 오백 년까지 그 혼백이, 그 역력이 갔다고 허는 거라. 지금은 없주만은 그래서 믿었는데, 그게 이제 그 실증된 애길 하나 헐…….

임진왜란 때 김덕영 장군이 있어서, 그 들어본 적이 있지. 김덕영 장군. 이 사람이 의병장으로서 상당히 그 용맹을 떨치고, 춤말 나라에 충성 많이 하고, 공훈을 많이 세웠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어. 억울하게 죽은 그 이유가 있어. 의병을 일으켜서 군사를 모집할 때. 막 피난가고 뭐 헐 때. 김덕영 장군이 그 용맹스럽고, 뭐 허니까, 김덕영 장군 휘하에만 가면은 살 수 있다. 이렇게 믿어가지고 그 김덕영 장군 휘하로 많이 왔는데 이때 온 사람 중에 누가 있어냐 허면은 그 당시 정승 반열에 있는 윤두수라고 허는 사람이 있었어. 윤두수. 윤금수엔 헌 사람 형인데, 윤금수가 이순신 장군을 죽이젠 헌 사람이라. 윤금수의 형 윤두수가 아마 서형이었지. 아마 그 사람있었는데, 그 사람의 집의 종놈이 김덕영 장군 그 졸병으로 강 이제 있는 때랐지. 그러니까 그 졸병이.

난이 거이 탕쟁이 되고, 뭐 헌 때. 김덕영 장군 앞에 말미를 얻어 휴가를 얻어, 저 집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해서 주인을 찾아 불려고, 게 윤두수 대감을 찾아 불려고, 이제 윤두수 대감 집이 온거라 헐. 너 죽지 않고 살아 있구나. 너 어디서 어떻게 살았느냐 허니까. 아 김덕영 장군 밑에 가서 이렇게 졸병으로 춤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니까. 아 그러냐고 아 너 편히 쉬다 가라. 이렇게 했거든. 아닙니다 허고 군법이 군법이 지엄허니까 기간 내에 들어 가야 험니다. 허니까 아 괜찮다고 내가 편지 써 준다고 자기는 정승이고 이러니까게 뭐 자기 편지 한 장이면 게도 그래도 김덕영 장군은 들어 줄 걸 믿고, 아 혼 며칠 더 쉬다가라.

경허난 종놈도 우리 대감이 이렇게 이제 이야길 허면은 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대감 뺨을 믿고 이제 혼 이 삼일 좀 쉬었다가 이제 천천히 그 대감이 써 준 쪽지를 가지고, 이제 가서 허니까. 김덕영 장군이 니가 왜 늦게 왔느냐. 네가 군법이 지엄헌 줄 모르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감이 이렇게 편지를 줄

디다. 딱 보니까 적당히 선처해달라. 이런 말이라. 아니 한 나라의 정승이나 되는 사람이 군법이 엄한 것을 모르고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나. 그걸 묵살하고 그냥 종놈을 갔다가 군법에 의해서 그냥 형 집행을 해볼었어. 이것을 윤두수 대감이 그냥 자기 말을 거역해져 가지고 앙심을 품은거라 경헌 앙심을 품어가지고서 요놈은 어떻게 하면 죽어 없어야겠다.

이제 허는데 경헌 난이 끝나고 뭐 헌 때. 그 당시 그 때 이몽학이란 사람이 그 때 반란이 있어서, 약간 종 역모 사건이 있었는데, 그 누구 누구 이제 허는데, 혼놈을 잡아다가 김덕영이가 여기에 같이 모의를 같이 했다고만 하면 너 살려준다. 그렇지 않으면 너 죽는다. 딱 했거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무고한 김덕영 장군을 끌어들인거라. 김덕영 장군도 같이 이 역모 사건에 같이 모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김덕영 장군을 잡아 온거라. 김덕영 장군은 뭐 아무 것도 없는데. 춤 억울하게 해서 그냥 그 윤두수가 죽여분거지.

그러니까 그 한이 맺혀가지고서 어 몇 년 쯤 됐다. 그 김덕영 장군 파 봤어. 판 그 이장을 허는데. 옷도 그냥 그대로고, 사체도 그대로고, 거기 싯던 칼도 그냥 그대로고, 판적 그냥 그것이 햇빛 맞아가니까 스스로 다 녹안. 그렇게 허는데 그렇게 한이 맺힌 헌거라. 그래가지고 춤 사름이 한이 맺히면 이렇게 춤 유골도 썩지 않고 이렇게 춤 원한 때문에 그런다 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감에 의해서 그렇게 훌륭한 재목을 갔다가 죽여버린거라.

33. 송강 정철

제 보 자 : 강충희(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4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송강도 그렇게 한문적으로 송강 가사도 짓고자해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사람을 그 무고한 사람을 죽여 버렸어. 에 송강 선생이 그 어린 때 자기 친구네

집이 가서그네 학문을 논하는데, 너무 잘난 체 허거든게. 뭐 모른 거 었이³⁴²⁾ 잘난 체 허니까, 그 니 새끼 뭐 어린 새끼가 뭐 잘난 체 허느냐. 나도 너만큼은 안다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냥 허니까 송강을 잡아가지고 송강 그 재 어린 때 수염 좀 나니까 수염을 오깃 뽑아붙어서 그냥 그러니까 송강이 용심을 내고³⁴³⁾ 성을 내야 헐텐데, 송강이 히히 웃으면서 너 두고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젠 히 웃으면서 간거라.

그런데 어머니가 어디 나들이 갔다와 보니까 그렇게 송강이 히 웃으면서 갔다니까, 아 큰일 났다. 저 송강 저 사름은 상이 호상(虎像)인데, 범의 수염을 뽑아부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 다음 무사하지 못 하겠구나. 야 송강이 어떻게 허드냐 허니까. 히 웃고 갑디다 허니까 큰일났다. 용심이라도 내고, 성이라도 냈드라면 조금은 그 액이 면해졌을텐데 오히려 웃고 갔다는 건 후일을 도모하겠다는 뜻인데 큰일 났다.

아 그 때도 당시 또 어떤 그 역모 사건이 있었는데, 애매하게 그러면서 같이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집 멸족시켜부러서. 그래서 송강선생이 그 춤 인간적으로 학문을 잘 했지만은 그 추앙은 못 받았주.

34. 오성대감(I)

제 보 자 : 강충희(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4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에 이항복이란 사람 말 들어 봤지. 오성 이항복이 그 사람이 워낙 담대하고 뭐 허주거. 그걸 이야기 허자는 거라. 이 사름이 어린 때 자기네 집에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밑 옆에 집은 대감네 집이라. 자기네 감나무가 대감네 집으로 가지가 뻗어 갔어. 해마다 감을 따 먹어버려 그냥. 대감네 집이서. 게 어머니가 올히도 감

342) 없이

343) 화를 내고

은 많이 열었는데, 저 대감네 집이 번어 간 가지 린짜 따 먹어 버련. 이 우리 먹을 거 별로 없다 이거. 아 그러하우까. 내가 못 타게 허쿠다. 어이구 니가 어딜 가느냐. 두고 봅서.

그 일곱 살 때니까, 아 들락들락 대감 집엘 가서, 대감님 제십니까. 어 저 누구냐. 요 밑에 집에, 요 밑에 집이 아니라, 이웃 집에 항복입니다. 어 웬일로 왔느냐. 그뻐 그저 이 창, 창문이거든. 이 창호지 브르고 가자 허는 창문이니까 냅다 손으로 창문 트멍을 그냥 자락 찢렸어. 이 팔이 대감이 팔이오, 저의 팔입니까? 아 이 난 데엇이 풀을 그냥 창문 안으로 탁 들이 밀고 그냥 그러니까. 아 그것이 니 팔이지 내 팔이냐. 그러면 번어 온 울타리 넘어 번어 온 감나무는 대감의 감나무입니까 저의 감나무입니까? 이 이젠 대감이 깨닫고, 다음부터는 아니 따 먹을때니까 걱정 말라. 그럼 대감의 말씀만 믿고 가겠습니다 허연 와 불연. 아 종놈덜이 아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그냥 보냅니까고 허니까. 그냥 뒤라 후일 정승감이다. 허는 걸 보니까 정승감이다. 그래서 그냥 돌려 보냈어.

나중에 글을 읽고 이러는데 그 저 이덕형이 허고 상당히 친했어. 이덕형이 허고 들도 없는 친군데, 하루는 그 동네에 돌림병이 들어가지고, 훈 집에 여더 일곱 사름이 그냥 가족이 다 몰살 당해부렀어. 몰살 당허니까 아 돌림병이 그렇게 허니까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서 매장해서 그 사름을 묻어주려 허지 않거든. 아 그러니까, 이 항복이가 허는 말이 야 자네하고 나하고 가서 그 매장해 주고, 어떻게좀 그 묻어주자. 동네 사름이 아무도 안 가지 않느냐. 우리가 대장부로 태어나서 그까지 돌림병 하나 무서워서 못 혈게 뭐냐. 아 그러자고 말여. 약속을 했어. 그러면 오늘 밤에 우리 감주나 훈 병 썩 해가지고 와서 그걸 죽은 시신에게 좀 맥여가면서 하자. 아 그러자고.

그런데 이덕형이가 먼저 감줄 해가지고 그 상가에 딱 와 보니까, 아직 이항복이가 안 왔다 말여. 에이 내라도 먼저 가서 이 시신덜을 이제 감주나 입에 해 노면서 매장을 하고 있으면은 오겠지. 해가지고서 가서 생각허니까 내가 친쿨허고 지 내긴 지내지만은 이 놈이 얼마나 담대헌지, 담대허지 못 헌지 시험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시신덜 속에 같이 드러눕어. 그냥 가만히 죽은 척허고 시신인 척 허고 같이 드러눕었는데, 이항복이가 와 보니까 이덕형이 올 때가 됐는데 안 온다 허면서 역시 내가 먼저 가서 허고 있으면 오겠지 하고 그냥 가서 춤 너도 훈 술갈 먹어라. 너도 훈 술갈 먹어라. 이렇게 훈 술갈 걸어 노는데 아 저 시신이 갑자기 나

는 혼 술갈 더 주게. 아 이런다말여. 거니까 아 그러니까 이항복이가 그래 너 혼 술갈 더 먹어라. 허멍 허니까 어 별떡 일어나가지고 허니까 자네 담력이 대단허군. 그젠 깔깔 웃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죽마고우 아닌가 하면서 그 시신을 매장해 준 이야기 있는데.

하도 죄가 많아서 그 글방에 가서도 선생이 글 가르치다 말고 이제 자꾸 나간 다 말여. 이제 자꾸 선생은 글 가르치다 말고 어딜 나가나 혼 번 뒤를 알아 봐야 겠다. 가만히 보니까 들에 나가서 그 묘자릴 보거든. 그 대감. 그 선생이 춤 아 보 니까 저기 산이 좋은 거 같다. 내가 저 산을 빼앗아야겠다. 그러가지고서 하루는 그 땅을 파가지고서 거기다가 참나무 몽텅이를 깊이 파서 묻어 뒀어. 그러가지고 시치미를 뚝 떼고, 선생님 앞에 가서 선생님 저 묘자릴 하나 봐 뒀는데, 한 번 가 봐주십시오 허니까 어디냐. 가 보민 압니다. 아 간 가르치는 걸 보니까 자기가 선생이 봤던 곳이어. 허난 아 이전 내가 봤던 곳인데. 아닙니다. 이전 제가 본 겁니다. 니가 어떤 표적을 했느냐. 아이 파 보면 아닙니다. 아 깊이 파니까 참나무 몽텅이 나오거든. 아 그럼 네가 먼저 판거로구나. 이렇게 그 선생님 표까지도 빼앗는 그런 기지가 있는 사람인데…….

35. 오성대감(II)

제 보 자 : 강충희(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4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에, 임진왜란이 될 때 그 당시에 도승지를 했어. 지금이면 비서실장이지 도승지가 아주 행복리에 갔을 때, 권을 장군이, 저기 해주산성에서 대첩을 올렸어. 그 장기를 가져갈 사람이 없었어. 장기를 가져갈 사람이 없는데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허는데 승전을 했으니까 임금 앞이 보골 해야걸 아냐.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찾는데 마침 그 때 열두살 나 아이가 하나 있는데, 정충신 이랬어. 정충신 장군인데 제가 한 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니가 어떻게 가져 갈테냐? 낮에는 병어리로 허곡, 왜놈이 만나더라도 내 병어리를 해 가면서, 병어리 노릇 해가면서, 어떻게

가져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럼 네 가져가 봐라. 그 신발창에다 그 장계를 딱 감춰 놓고 이제 춤 사람을 만나면 병어리 춤 하면서 이제 이주까지 간겨여.

몇 날 몇 일 이제 걸어서 갔는데, 간 딱 올리니까 권을 장군이 춤 행주산성에서 대첩을 올렸다는 창제라. 근데 가져온 게 기특허잔 말이여. 저 난중에 하 이 정충신 아이가, 열 두 살 난 아이가 이거 어떻게 가져왔나 해가지고 이항복이 딱 정충신을 보니까 기특허거든. 그 정충신 보고 니가 어느 어느 골목으로 가면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유숙하고 있거라. 이렇게 그렇게 이제 분부를 했어. 정충신은 그 말 듣고 그 이항복이네 집에 찾아가 보니까 이항복이가 춤 그 집을 지언, 그 집을 지은 게 아니고, 그 이주서 자기가 집을 언언 사는데, 아 이항복이가 퇴킬해 가지고 이제 정충신을 가르치는 거라. 가르치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또 혼 사름이 있었어. 윤희이라고 하는 사름이 있었어. 것도 그축³⁴⁴ 사름이 기특하고 춤 똑똑허니까, 이제 데려다가 기르는데, 그 이항복이 처가 있는데, 그 처보고 어머니 어머니 허면서 기르는거라. 정충신도 역시 그 이항복이 처보고 어머니 어머니하고 기르는데, 그 정충신은 약간 그 양반가에서 나지 못 허고 좀 말하자면 옛날에 그 아전. 좀 쌍놈. 그런 몸에서 태어난 사름이거든. 그걸 자꾸 나무래어 가지고서 이제 나무래 가지고서 좀 그 뭐 허거든.

혼 번은 글을 읽다 말고 정충신도 그 대단한 사름이거든. 우리 무슨 바둑두지 않아서 바둑을 두자. 그러자고 무슨 내기허고 허니까 내기는 무슨 내기. 뭐 우리 옷이 없나, 밥이 없나. 이만 허면 잘 먹고 잘 지내는데, 내길 헐라면 우리 목 빌 내기 허자고 말여. 그렇게 했어. 모가지 빌, 비어볼 내기 허자고 아 이제 그렇게 허자. 해놓고 허니까 윤희이가 졌어. 아 그제는 내기 했으니까 내기대로 느 목 내라 말이여. 칼로 그냥 목을 칠랴고 허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거라. 도망가서 그 아이구 어머니 나 급합니다고 허니까 무슨 일이나. 우리 내기해서 그랬 습니다. 안 허겠습니까. 어머니가 욱허니까 그냥 설러졌어.

어려서 나중에 춤 그 정충신이가 나서 부원수가 되었거든. 부원수가 되었는데, 이이침 앞에 그 몰려가지고 이덕형이나 이항복이가 몰려 가지고, 광해군이 서니까 이항복이가 크게 이제 한탄을 허고 했지. 헌데, 자기가 춤 삼수갑산으로 귀향와서 죽을 거까지도 다 알았어. 그 예감대로 따라근에 이덕형이가 한이 맺혀 가지고서 이제 죽었어. 죽으니까. 눈이 안 감겨. 아덜들이 아버지 눈 감읍서. 해가지고 아무

344) 그 처럼

리 내려 쓸어도 안 감으니까 그 이항복 앞이 연락을 했어. 아버지가 세상을 뒀는데, 운명을 마쳤는데도 눈을 감지 않습니다 허니까, 내가 가서 보겠다. 이항복이가 딱 와서 그 눈을 쓸면서 살았을 때는 동생 했지만, 죽우니까 한 번 높여서 형장 나는 이제 멀지 않아서 삼수갑산으로 귀향을 갈텐데 그래도 형장은 집에서 와서 종신해서 명을 마쳤으니까 이왕이면은 행복하지 않소 부디 눈을 감으시오 해서 눈을 싹 내리끄니까 그제야 눈이 감기는 거라. 그래서 장사를 지내두고

그 이이침의 그 참소에 의해가지고서 그 춤 귀향을 가면서 그 부른 노래가 있잖아. 천령 높은 절을 넘어가는 저 구름아, 꽃은 오늘은 비참하다. 님 제신 구진 궁궐에 뿌려다오 이 시를 그 짓고 갔는데 나중에 광해군이 그 이 시를 보고서 크게 춤 후해를 허고 눈물을 흘렸다고 허는데, 이 귀향을 가면서 그랬던거라. 정충신 보고 너는 후일 부원수는 된다. 그리고 윤희 너는 편지나 가져라. 너의 생명이 위급하지 않는 한 이 편지는 까보지 말아라. 그 때 한 번 퍼 볼 때가 있을 것이다. 아 그렇게 해두고 삼수갑산에 가서 춤 귀향가서 거기서 세상을 뒀는데…….

나중에 정충신은 부원수가 되어서 장만 부원수허고 이괄 난리를 평정할 때였거든. 건디 윤희는 뭐가 되었나면은 그 군량을 운반하는 말허자면 요즘 말로 병참. 그 책임자왔어. 그 잘 허다가 어떻게 혼 번은 그게 그 기한 내에 오지 못했 미달 해 붙었어. 그냥 미달되니까 군법의회에서 아 부원수가 아 베어라. 아이 죽게 되었다 말여. 허니까 아이 큰일 났다 말여. 그 때 문득 생각난 것이 자기 사부가 오성 대감이 위급한 때 이 편지를 혼 번 보이도록 허라 했으니까, 이거나 보여 보자. 허연 그 편지를 딱 드린 보니까 정충신하티 가정 드리니까 보니까 자기 사부라 이항복이가 이항복 대감이 자기를 키워주고 가르쳐 준 그 대감의 편지라. 딱 꺼낸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 글 혼 자가 없어. 백서라. 오죽 허고 싶어도 허지 못 혼 거거든. 아 이거 살려주랜 말이구나. 오죽해야 빈종이를 담았겠느냐. 이 편지를. 그래서 이해허라 해서, 이제 죽이질 않았지 그 대감의 부타이니까 자기 아버지나 다름 없는 분이 부탁 허니까, 그래가지고 백서지 원정이라 허는 거주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차마 하지 못 허연. 그 백서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라.

36. 송시열 대감

제 보 자 : 강충희(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4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다음에는 이제 송시열 대감이나 이야길 하자. 송시열. 우리 제주에서는 오현인의 한 사람으로서 허저든. 숙종 땀데, 그 지금 텔레비에 방영되는 서궁 있잖아. 서궁. 바로 그 분이 바로 왕빈데, 애기를 못 낳어. 왕자를 못 나니까, 그 때 저 누구나. 장희빈. 장희빈을 몸에서 왕자가 났거든. 그러니까 그 장희빈을 맞지 마십시오. 아직 중전마마가 젊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불가합니다. 험 상소를 올려 버린거라. 허니까 그 숙종이 이것에 분해가지고, 그냥 송시열을 제주도로 그냥 귀향을 보낸 거지.

헌데, 그 보내기 전에 그런 일이 있어. 귀향 오기 전에. 송시열이가 젊은 때에 그 김상헌 대감 앞에 놀러 갔어. 그 저 김상헌 이제 아마 그 저 가노라 삼각산아 그 시를 지은 분이. 다시 보라 고향 삼천. 시국이 하 수상허니 울동 말동 하여라. 그 시 지은 분. 김상헌 대감일거라. 그 삼박사의 집에 갔는데, 아이 보리밥을 해준다 말야. 이거 이상하다 말야. 대감네 집에 보리밥을 해주나면 이거 쌀밥을 해주면 모른데, 보리밥 해 주는 것이 이게 틀림없이 나를 시험하는 걸 것이다.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었어. 그 거 저 싫은 보리밥이지만 그렇게 먹었는데, 김상헌 대감이 자식덜 보고 이 다음에 송시열 허고는 절대 정치를 같이 허지 말아라. 자기가 먹기 싫으면은 안 먹으면 될 것이지, 그 싫은 밥도 맛있는 척 허고 먹는 저 송시열은 상당히 그 껍이 있는 사람이다. 후일 크게 이제 화를 당할거니까 송시열허고는 정치를 같이 허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 때 송시열이가 춤 대학자가 돼가지고서 이 퇴계의 학설이나 이율곡의 학설을 비판을 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나름대로의 자기 학설을 주장해 가지고서 춤 지금 추앙알 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그 분만이 송자라 해가지고 성인 취급을 허저든. 뭐 이퇴계 선생보단도, 이율곡 선생보단도, 그 청 태종이 송자라는. 호를 내려 줘어. 그자 자를 써가지고, 성인으로 지금 모시는데, 이 송시열 제자 가운데 윤증이라고 허는 사람이 있었어. 윤증 아방이 그 인조 때 말하자면 청 태종 앞에 그 인조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허는데 같이 그 가담한 사람이라. 그 윤증 아방이, 아버지가 세상을 뜨니까, 송시열 선생 앞이 가서 선생님 저의 아버지 비문이나 하

나 좀 써주십시오 허니까, 아 그래라. 그래가지고선 비문을 쓰는데, 조금도 찬양하지 않고, 조금도 그 칭찬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임금으로 하여금 적장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어찌고, 이런 말을 다 써붙였어. 비문에 어 송시열도 아 대감 인물이니까 다 써부니까 아 윤증은 그게 아니거든. 그래도 대문장이 문호니까 멋지게 비석도 후셋 사름이 봐도 하 이렇게 훌륭한 사름이었구나 현 그런 느낌이 갈 수 있도록 그냥 좀 멋지게 문장을 만들어서 써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 그 오점까지도 그냥 써붙였어 그만. 가만 아 선생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나. 나는 더이상 못 쓴다. 그럼 선생님 허고는 절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좋다. 부자지간에는 절교를 못 허지만은 사제지간에는 절교를 할 수 있어. 해라.

그래서 그 윤증은 소론이 되고, 송시열은 노론이 된 거라. 소론, 노론 거기서부터 갈려 온 거라. 그래서 앙심을 품은 거여. 어떻게든지 송시열을 죽여야겠다. 이 송시열을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데, 마침 제주도로 왔어. 그 귀향을 온다. 송자라는 호를 받게 된 것도, 거라, 청태종에게 상소를 올리는데 그래도 천하의 대국이라고 허는 그 황제가 일개 변방국인 이 소국에 임경업 장군 하나가 무서와서 정면으로 오질 못 허고 사잇길로 돌아서 서울을 공격했다는 건 천하에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탁 상소 올려 분겨라. 야 조선에 이렇게 도량 큰 인물이 있느냐. 이 사람 성인이다 말여. 그래서 그 송자란 호를 내려주고 했는데, 제주도에 그 때 귀향 온 때거든.

어떻게 했던 간에 송시열을 갔다가 그 자기 아버지를 모욕했으니까 이걸 그 앙갚음을 헐라고 허는데, 마침 불러 올려서 이제 국론을 헐라고 허다가 저문에서 그냥 사약을 받아 붙었어. 사약을 받는데, 이 사약을 그 사약을 비상이나 그저 여기서 쓰는 저 보선쿨이라는 게 있어. 것도 독약이라 이것 섞어가지고 주는 건데, 송시열씨가 그냥 송시열 선생이 급히 약을 먹어도 그냥 항문으로 그냥 다 나와 버려 그냥. 죽지 않아. 이거 큰일 났거든. 임금이 준 사약이 그게 죽어야 되는건데, 임금을 거역하지 못 해. 안 그러면 선생만 죽으면 되는데, 큰일 났으니까 제자덜이 아이고 어떡합니까? 나는 어린 때부터 살진 고기를 많이 먹어서 내 위장에는 기름이 팍 차서 독약을 먹어도 안 된다 말여. 또 그러니까 겐 어떻게 험니까 허니까. 그리 말고 숨으로써 숨을 막 뭉쳐가지고 그냥 항문을 막고 그래서 독약을 맨들아 와라. 너희들 맨들아 와라. 그래서 숨을 가지고 항문을 막아 놓고 독약이 나오지 못 하

도록. 그래서 다시 제자덜이 그냥 독약을 만들어서 안넌거라.³⁴⁵⁾ 그러니까 그 때 먹어서 그냥 돌아 가셨지. 그래서 그 자 송시열 선생만 돌아 가시고 그 제자덜 무사헌거라. 그래서 그 일화가 있는데, 그게 노론, 소론 갈라진 거고, 그 성자로서 그 호를 받은거라. 율증이 돌아와도 아 죽어가지고서 이제 성자가 되지 못 하게 혈 건디 괜히 죽어서 성자가 되었다 해가지고 앙심을 품은 거지. 우리나라란 그렇게 옛날부터 싸우고 그런 거라.

37. 돌하르방

제 보 자 : 강충희(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4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제주도에 돌하르방 유래를 알아? 돌하르방 (조사자 : 들어 본 적이 어…….) 들어 본 적이 었어? (조사자 : 예) 아 그 이야길 허자 경허민. 제주도 사름으로선, 건 알아야 되는데. 에 제주도예 이 김문규, 김문규 목사 때라. 김문규 목사 때. 김문규 랐어. 나도 제주 통사를 보면 이는데 그 목사 때 제주 성내가 흉년이 들고 막 그러니까 진짜 밤이면은 귀신 울음소리가 그냥 그저 신탄무를 근방서³⁴⁶⁾ 막 들리거든. 귀신이 나와서 그냥 막 울고 그냥 귀곡성이라고 말여. 귀신이 곡하는 소리가 막 나고 그냥. 흉년이 분분하고, 질병이 막 들고 그래였거든. 게 김문규 목사가 가 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저 큰일 났거든. 그게 무슨 법으로 다스릴 일도 아니고, 이저 춤 큰일 났다 말여. 어떻게 민심을 가르쳐야 될텐데. 아주 민심이 흉흉헌 거라.

그래 생각허멍 헌 게 옛날 진나라 때 진시황 때, 그 옹중이엔 헌 힘센 장군이 이서서. 그 사름이 흉노족 허고 싸울 때는 그냥 워낙 키가 크고, 힘이 세니까 뭐 흉노족덜을 그냥 그 뭐 밟아서 죽이고 마치 어른광 아이가 씹는거 기지 그냥 그렇게 무서운 그 장사가 있었는데, 이 옹중이엔 헌 사름이 죽으니까 이제 그 궁성 밖

345) 갖다 드리다

346) 근처에서

에다가 그 대문 밖에다가 구리로 구리로 그냥 옹중석을 만들어서 딱 세웠어. 세왔는데, 옹중이가 죽었다고 허니까 흥노족이 쳐들어 오거든. 쳐들어 왔는데 막 대궐까지 쳐들어 왔는데 보니까 그 무서운 옹중이 살아있다 말여. 지금 버젓이 궁궐 문을 지키고 있어. 아이고 저기 살아있다. 도망가자. 그 흥노족이 다 도망갔거든.

이걸 딱 생각해 내 가지고서, 제주도에는 돌이 많으니까, 돌로써 이 옹중석을 만들어 세워야겠다. 그래가지고서 그 때 옹중석을 열 다섯 만들었어. 그래서 동문에다가 다섯 개. 남문에다가 다섯 개. 서문에다가 다섯 개. 그래 열 다섯 만들어서. 다섯 개씩 다 세웠어. 그 옹중석을 딱 만들고 세우고 얼마 후니까 그 귀신 울음소리가 안 들려. 하 그래 되었다. 이거, 이거 제주도 수호신이다. 거 이상하다. 해가지고서 이 수호신이다 해가지고 그러면 대정하고, 정의도 거 우리도 만들어 세워야겠다 해가지고, 거기도 만들어 세우는거라. 거기는 여기는 목안이고, 거기는 이제 변방. 여기선 변방이지. 허니까 제주 성내보다는 좀 작게 만드는 거라. 여기는 크게 만들고 이것이 지금은 돌하르방이라는 애칭으로 불려져 가지고 허는데 원래는 옹중석이라. 옛 돌하르방으로 만들어져서, 애칭으로 불려서 이게 제주도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허거든. 게 돌하르방 유래가 거라.³⁴⁷⁾ 그걸 허니까 딱 게 그 귀곡성 귀신의 울음 소릴 들으는 게 없어진거라.

38. 한라산 모양

제 보 자 : 강충희(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4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제주도의 한라산이 거 다 모양새가 다 틀려. 남군 쪽에서 보면은 연필형이라. 연필 뭐냐? 붓대 영 헨 필통에 탁 꼽은 형이라. 남군에서 강 보면. 그래서 남군에는 문사들이 문필가덜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현용화씨 같은 그런 선생님이 나오는 것도 남군에서 나오는 것도 한라산 그 기가 거기에 비친거라. 연필형이-, 붓을

347) 그것이라

여러 개 해가지고 필통에 꼽아 놓은거라. 남군에서 그렇게 연필형으로 보이고, 그 다음 저 동쪽으로 가면은 조비지상(鳥飛之像)이라. 새가 놀아댕기는 것 같은 그런 형국으로 보여. 그러니까 거기 사름덜은 많이 나가서 활동, 외국에 나가서 많이 활동을 해야만 성공한다 이거라. 그래서 조비지상, 새 조자, 날 비자, 그 형국이엔 조비지상 이렇게 험 거라. 남쪽에선 연필 형이라. 연필지상(鉛筆之像). 이젠 북쪽에선 뭐냐면은 호거지상이다. (조사자 : 예?) 호거지상. (조사자 : 호거지상 마씀?) 범이 웅크려서 좀 앙하고 좀. 뭘 좀 사냥이라도, 잡아 먹을까 허고 좀. 범이 웅크린 그런 형국이라.

남군 사름덜은 자기네가 앞이라 그러고, 여기 사름은 여기가 앞이라 그러거든. 게 모든 짐승들은 앞이 사납고, 뒤가 좀 미끈허거든. 그랜 도두봉으로 들어와서 저 이렇게 획 돌아 회중무리허겠다고 들어오기는 육지로 딱 들어왔지만 북쪽더래 들어와진거라. 한라산은 게서 북쪽이 험허니까 호거지상이라고 해서. 북쪽사름덜, 이 북군 관내에 이 제주시나 이 북군 사름덜은 남의 돈을 먹어야 산다. 그래서 뭐 횡령도 허곡, 남의 공돈도 뜯어 먹고, 이런 것이 다 그 산에 영향이 있다는 거라. 그러고 그럼 대정 쪽으로 가면, 뭐냐 과갑지상이라고 해서이 그 장수가 투구를 탁 쓰고 갑옷을 탁 걸쳐가지고 그디 아즌 상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대정서는 장수되는 이제수다. 이제수 대정. 방상칠도 대정. 또 누구 누구 다 대정서 인물이 그 무관들이 많이 났어. 그자 장자지상이엔도 허곡. 과갑지상이엔도 허여. (조사자 : 과갑지?) 과 저기 창 과자 그 다음 모르겠는데. 하여튼 과갑. 갑은 갑옷이라고 쓰는 갑자를 축허는 갑. 음 과갑지상 장수가 갑옷을 입고 이젠 무장을 행 서 있는 그런 형체라.

39. 나이 육십에 과거한 이야기

제 보 자 : 강충희(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4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옛날에 어떤 사름이 나이가 육십이 되도록 과거시험을 공부를 허는데 과거가 .

안되어, 과거가 안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불합격하면은 집에도 오지 않고 내 자결해야겠다. 자결해서, 차마 조상 면목도 조상을 볼 면목도 없고 자결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서 비장한 마음을 품고 이 장두 갖다, 칼을 가슴에 품고, 이번에 떨어지면은 집에 안 돌아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허곡. 그젠 터벅터벅 서울을 향해서 가는데 날이 저물었어.

아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자꾸 그 과거 시험 그 시험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 자기가 공부한 그 짓구만 생각하면서 가는데, 날이 그만 저문지도 모르게 저물었는데, 아 멀리 어떻게 보니까 불빛이 보이는구나. 저기 사름이 있겠구나 저기를 찾아가서 하룻밤 신세를 저야겠다. 그러가지고서 찾아가 보니까 뭐 초막 집인데, 그 이상하다 말여. 집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에 집이 하나 있다 말여. 그러니까 아 주인장 있으면 저 하룻밤 신세를 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허니 보니까 춤 어떤 여자가 그 상복을 입고 그 여자가 나와가서 저 혼자 사는 집입니다만은. 춤 먼길에 갈 곳이 없으니까 어지 합니까? 들어오십시오.

들어간 아랐는데, 아 불빛에 그 가만히 보니까 여자가 천하일색의 춤 미인이라. 아 이 남자가 가만히 보니까 아 과거고 뭐고 그자 다 설러두고 이 여자하고 더불어 한 세상 살았으면... 신선처럼 여기 살았으면 제일 좋겠다 이저라.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어떻게 허카. 아 여자하고 단 둘이 혼 방에 아랐는데, 방은 없어. 부엌하고 잠 자는 방 하나 뿐이라. 하 이저 춤 기가 막히다 말이며. 아 그런데 여자는 스복을 헨 입었는데, 오늘 밤 그대와 동침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남자가 물은 거라. 여자가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되시다면 제가 시를 한구 할테니까 제 시에다가 뒷구만 넣어 주신다면 제 몸을 허락하겠습니다. 이렇게 헌거라. 그래서 이젠 시를 하나 들은 거라. 뭐라고 부르냐면은 금야신정연(今夜新情緣) 이렇게 했어. 금야. 금, 이제 금 자. 야, 밤 야 자. 금야. 새 신 자. 정. 뜻 정. 인연 연 자. 금야신정연. 오늘밤 새로운 정을 맺는다면 이렇게 헌거라. 여기에다가 뒤에만 맞춰 주신다면 동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젠 애길 헌거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선비 입장에서 그렇게만 무턱대고 허는 것은 요즘모양³⁴⁸⁾ 불량자 모양으로 무슨 강압적으로 여자를 갖다 겁탈할 수 있는가 뭐. 선비 체면에 그렇게 못 허거든. 오늘 밤 새로운. 당신과 오늘밤, 새로운 정을 맺는다면 금야신정연. 여기에 답을 봐야 헐텐데, 답을 못 논거라. 짓구로 대답을 해야 헐텐데. 이래 생각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오연

348) 요즘처럼

구인데, 아무래도 시를 못 놓는단 말야. 답을 못허니까 이것만 생각허다보니까 날이 새어 분거라. 나는. 날이 새어 분거라. 나는 대를 못 놓겠오 허니까, 그 여자가 봐 주는 거라. 여자가 이야길 해 주는 거라. 선비님이 못 놓는다면 제가 말씀을 들이지요 해네, 이야길 허는데, 고인황천탄(故人黃天嘆). 오늘 밤 당신허고 새로운 인연을 맺으면 고인, 죽은 사람이 황천에서 탄식할 것이다. 그렇게 해 분거라. 고인 황천탄. 탄식할 탄자. 고인 황천탄 오늘밤 당신허고 새로운 정을 맺는다면 고인황천탄. 고인이 황천에서 탄식한다. 게네 못 헌다는 뜻이지게. 그래서 그 선비가 아옴은 말이구나. 어째서 이 대구를 못 썼는가 보니까 그 춤 혼백상이 그 있고 이러는데.

그 사람이 그 집을 나서가지고 오는데 돌아보니까 집이 간 곳이 없어. 집이 간 곳이 없어. 그 이상허다. 분명 내가 저기서 집에서 잤는데, 어때 집이 간 곳이 없고 그러면서 서울에 와서 과거를 딱 보는데 시제가 그게 나왔어. 시제가 금야신정연 그게 딱 나완. 여기에 답을 노라. 대를 놓으라 허니 간 밤에 겪었던 일이니까 그냥 고인황천탄. 그냥 써붙었어. 득과라. 과거해분거라. 정해났지이.

40. 배염머리 김좌수와 강당장

제 보 자 : 강충희 (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4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제주도 얘기 뭐 허카. 옛날에 제주도에는 그 여기 우수암도, 우리 마을도 그 토호가 홍좌수라는 토호가 이 마을에 살당 했주만은. 토호가 제주도에 많이 있어서. 많이 있었는데 대정에 가면은 배염머리 강좌수. 아 저 배염머리 김좌수라는 분이 있었고, 또 저 남... 정원 가면은 에— 하당 강씨 강당장이란 사람이 있었어. 거 지방 토호덜이라 하는데 사람이 너무 그 재물에 집착하다 보면은 이제 일은 그리친다는 그런 조언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을 허는 거라.

나라에서 제주도 토호들이 횡포가 심허니까 가서 조사해 오라. 이렇게 암행어사를 보낸거라. 딱 보냈는데, 배염머리라고 그 그 형이 그 집 터가 그 배염이 딱 사

려가지고 이제 있다고 해서 거기를 배염머리 집터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그 부잣 집으로 그 해서 현대. 거기 사는 사람은 손님이 오면은 누구를 물론하고 잘 대접 하고 참 응성하게 대접을 잘 하고 했으니까 아 암행어사가 와서 그 집에 와 살핀 거라. 살폈는데, 잘 대접을 해주거든. 지나는 나그네 처럼 출령 가서. 허름한 옷 입고 그냥 가서 해서도 자기를 갖다가 천대하지 않고, 잘 대접을 해주고 현대. 강당 장내 집인 가니까 뭐 암행어사당은 여기 와도 흰 옷 입고 말야. 거지처럼. 다니거든. 아 자기를 갖다가 약보고 말이야. 그냥 뭐 별로 그렇게 반가와 허지도 하— 이 거 이렇구나 해가지고 가서 보고를 할 때는 그랬어.

가기 전에 강당, 그 김좌수 앞에는 와서 당신은 내가 너무 대접을 많이 받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옛날도 대접 잘 하면 춤 그 대접을 받는거라. 당신은 지금이 기둥이 원기둥 궁궐 밖에는 도저히 그 원기둥을 못 해 세웠거든. 원기둥을 허연 세웠는데, 자기 말고, 다른 사람도 조사하러 올테니까 이걸 사모, 네모난 기둥을 만들고, 그 잘 사니까 풍형을 걸었거든. 풍경. 이 풍경을 걸어줬는데, 풍경을 걸지 말고 저 구쟁기 닥살³⁴⁹이나 뎀 걸어두고 (조사자 : 예?) 구쟁기, 구쟁기, 바당에 구쟁기 있잖아. 그걸 딱 구멍 뚫랑 그걸 딱 풍경 대신 걸어두고 그 바람 불면 땡글랑하게 소리나고 허잖아. 그걸 걸어두고 비단 옷을 입만은 비단 옷 쓰굽에는 갈 옷. 지금, 갈중의 걸 입고 있어라. 이제 그렇게 해두고 이제 허니까 아 이 사람이 어사란 걸 알아가지고 괜찮게 해달라고 잘 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허는거라. 강당장 앞에는 일체 그런 그 눈치를 안주고 그냥 갔어. 또 다음도 어사 보내서 조사 헌거라.

조사를 했는데, 강 보고 할 때는 이제 배염머리 김좌수는 못 보니까 듣는 말과 틀려서 기둥도 사모 기둥이고, 풍경 걸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알고 보니까 그 소라껍질 그걸 걸었습니다. 그리고 비단 옷을 입었지만은 농부라서 제주도 특유의 그 감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허고, 강당장은 좀 횡포가 심해서 도적 질도 많하고, 재산도 많이 이제 불리고 잃게 해가지고 춤 나라에 그 법을 어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부니까 강당장 잡아 올리라. 강당장 잡아 올리는데 이거 잡아가면 이 죽게 생겼다 말야. 옛날 토호는 허니까 강당장이 잡혀서 이제 감옥에 잡혔는데, 나의 뒤에 어느 아덜이 따라왔느냐. 이렇게 물어서. 큰 아

349) 소라껍질

덜이 따라왔습니다 허니까, 큰 아덜이 따라 왔습니다. 아이구 나는 죽었다. 큰 아덜은 돈 밖에 모르는 놈이니까 내가 죽었다. 작은 아들이 따라 왔으면은 작은 아덜은 돈은 쓸 줄을 몰라서 내가 죽게 됐구나.

이렇게 허연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큰 아덜이 돌아 와서 이제 아닌게 아니라, 대감덜 앞이 가서 돈 몇 백 냥, 몇 천 냥 씩 이제 들이면서 이제 요즘 말로 로비를 한거라. 어땡 행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대감덜이 그 땐 마침 그 뭐 왕 세자가 누게 그 왕자가 태어난 때 모냥이라 허니까 이런 경사가 나라의 경사인데, 이 때에 옥문을 다 열고 죄수덜을 사면하십시오 하니, 왕이 하 거 좋다고 하니까 아주 기쁘게 말아야. 그거 좋다고 해가지고, 다 옥문을 열고 옥에 있는 사람은 죄를 불문 허고 다 석방이라. 다 석방했는데, 이 강당장 큰 아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돈을 안 써도 다른 사람덜이 다 나오는데, 아 자기만 돈을 썼다 이거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대감 앞이 가서 아 다른 사람덜 돈을 안 써도 다 나오는데, 그 우리 아버지라고 특별히 돈을 써야 됩니까. 그거 돈 좀 더러 돌려 주십시오 했거든. 그래 가져가라. 아 돈을 돌려어. 돌려주고 아 대감이 한 대감이 이제 중간에 나라에 가서 아무리 사면을 한다지만은 토호는 안 됩니다. 토호야 이거는 엄벌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될테니, 토호만큼은 석방허지 마십시오 아 그러냐 그러면 토호는 잡아들이라. 그래 강당장은 당장 사형집행 된 거라.

그러니까 재물을 너무 탐하다가는 사람은 그 화를 받는다. 이런 일화가 있어. 재물은 쓸 때는 써야거든. 돈이란 건 자기 자신에 그 이익과 또는 가족을 위해서만 쓰는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도 쓰꼭 춤 조상을 위해서도 쓰고 이렇게 허는건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면은 이렇게 오히려 돈 때문에 망한다. 뭐 이런 일화주게.

41. 무학대사

제 보 자 : 강충희 (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4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무학대사가 그 이성계 그 부탁을 받고 도움지를 훑아 다닐 때, 서울에 온 때주.

서울에 서울에 오는데 왕십리 쪽에 들어 오니까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어. 밭을 가는데 소를 부리는데, 아이구 이 놈 미련한 소야. 꼭 무학이처럼 미련하다. 좀 졸바로 땡겨라.³⁵⁰⁾ 이렇게 허거든. 아 무학대사 가만히 길을 가다 들으니까, 이 일을 제대로 잘 하라 욕을 한다 말여. 무학대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다 말이야. 여보 농부 좀 이래 오시오 아까 당신 소보고 뭐라고 욕했오 아 무학이처럼 미련한 소라고 했오 무학인 자기 호거든. 자기 호인데, 나는 이태조의 그 명을 받고, 지금 도움지를 찾으라고 다니는데 어디를 가면은 되겠오 이제 보통 사름이 아닌 걸 알고 십 리로 더 가시오 아 그렇습니까. 그 십 리로 더 가시오 이렇게 경헐 왕십리인데….

무학대사가 딱허게 이제 보니까 서울이 살만허거든. 도움지로 좋을만 허니까 이태조보고 그렇게 말했어. 동향(東向)을 허시오 동향을 허면은 지금 북악산을 청룡을 잡고, 남산을 백호로 잡아서 동향을 허면은 재목이³⁵¹⁾ 날 것이고 춤 장술 해집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그 무슨 말이나 임금은 남향(南向) 허는 것이지, 어이 동향을 허느냐. 그런 법이 없다. 둘이 싸우는거라. 무학대사 허고 이제 정도전허고 싸우는데, 무학대사가 졌어. 큰일 났다 해서, 그 궁궐을 그 경복궁을 갔다가 세우면은 쓰러지고 쓰러지고 자꾸 그런다 말야.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무학대사한테³⁵²⁾ 물었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궁궐이 먼저³⁵³⁾ 짓지말고, 말하자면 그 대문, 대문을 먼저 지어라. 아 이제 그렇게 했거든. 허니까 거 왜 그렇습니까 허니까, 아 서울 갔다가 이렇게 해서 자리는데, 발목을 먼저 해야될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헐. 광화문을 먼저 짓고, 나중에 경복궁을 지은 거라.

그랬는데 그 경복궁을 지을 때 그 목수가 아주 그 셋가래를 태백산에서 다 해오고 이렇게 하는데 나무가 딱 맞아. 한데 어떻게 그만 잘못된게 아랫사람을 시켜 잘못된게 셋가래를 하나 잘못 짤라붙었어. 그냥 쓸모 없이 돼 붙었거든. 아 나무는 부족허거든 말이여. 야—, 아 이거 큰일났다. 나는 죽었구나 해가지고 집에 와서 음식을 일절 전폐(一切 全閉)허고, 나라 법에 의해서 자기는 죽을 거니까 차라리

350) 바르게 다녀라. 제대로 밭을 갈아라.

351) 인재가

352) 무학대사에게

353) 먼저

미리 죽어버리겠다 해가지고서, 밥도 안 먹고 그냥 며칠 굶는거라. 아 며느리가 아버지 어찌 음식을 안 드십니까 허니까, 아 나는 죽을 것이다. 죽어야 된다. 아이 무슨 사연입니까 허니까, 내가 잘못 해가지고서 셋가래를 하나 잘못 찢라 가지고 부족했는데 이걸 나라에서 알면은 나는 죽는다. 어떻게 찢랐습니다 허니까, 아 그 두동각을 냈다. 이거 아 그러지 말고 아버님이 그 집이 지금 이렇게 오다가 탁 굵이³⁵⁴⁾ 저서 그냥 뭐 허잖아이. 설계를 그냥 그렇게 해 버리십시오 다 찢라서 그냥 두개를 이렇게 밑으로 헐 게 아니라 눅혀서 가지고 쪽 고른 걸 눅혀서, 이렇게 절 간에도 다 그러잖아. 관덕정도 보든 그 저 모가 서고 한 쪽 모는 서고 이렇게 했잖아. 모양 그 형국을 바꾸십시오 허니까 아 며느리 말 들으니까, 아 그렇겠구나 허연 가서 집을 지은 걸 그렇게 지어 분거라. 다른 것도 다 찢라서 그냥 일부러 모쟁이 것덜³⁵⁵⁾ 다 찢라서 허고, 앞뒀면만 민짜이³⁵⁶⁾ 내려오게 그렇게 지었는데...

그 집을 이렇게 지었는데, 무학대사가 딱 보고서 한양이 팔보적이다. 에 팔보적 그거 들은 예가 이서? 그래서 뭐냐하면은 그 지붕 위에 올라서 딱 허는데 청룡이 단절하니, 청룡이 문제가 있어. 왼쪽 어깨가 짧으니가 장손 큰 아덜 손으로 내려가지 못 한다. 장자로 이어지지 못 한다. 청룡단절 정풍자(靑龍斷折 正風子) 이렇게 딱 한마달 헛거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산이 굽하니, 역신이 부절이라 그랬어. 남산이 꺾어져서 높으니까 역적이 끊어지지 못한다 이거라. 역적 신하가, 역적들이 끊어지질 않는다. 역적 모의 계속난다. 세번째는 북악이 외면하니, 북악산이 외면하니 당명이 부절이라. 당파싸움이, 그래 북악산이 지금 남산으로 마주 앉지 못 허고, 북악산 약간 이렇게 휘었거든. 서로 따로 허니까 북악산 이렇게 약간 비틀음허게 뺑 돌아 아셨어.³⁵⁷⁾ 저 사름허고 나하고 마주 앉은게 아니라, 영 외면허연 아장 여기 돌아 아자 버렸다 말야. 그러니까 당파싸움이 끊어지지 않는다. 또 한수불심(漢水不深)허니, 한강수는 물이 깊지 못 허니까 명현(名賢)이 불출이라. 아주 이름있는 그 현인이 나질 않을 것이다. 한수불심 현 명현불출. 한수불심 명현 불출(漢水不深 名賢不出). 그렇게 헐. 다음에는 에 서울에서는 이 아주 이름있는 선비덜이 많으지 않았어. 아주 재상도 서울 사람은 없어. 다 경상도 아니면은, 아

354) 굵이

355) 것들

356) 바로, 반듯이

357) 앉았어

니면은 뭐 이윽곡 선생도 다 강원도에서 태어났고, 충청도에서 그 인물이 많이 났지. 서울에서 인물이 안 났어. 그 때문에는 인물나도 여긴 없고, 삼각이 와글허니 삼각산이 굴 속에 들어가 누웠으니, 삼각와글허니 에-, 삼각이 와글허니 수명이 단절이라. 수명단절. 임금님, 임금 수명이 길질 못 현다. 임금덜이 오래 산 임금이 없어. 삼각이 와글허니 수명이 단절이라. 또 한수다기. 한, 한강수 물에 여율이 너미³⁵⁸ 많아 여울목이 너무 많으니, 한수다기(漢水多기)허니 풍불십년(豐不十年)이라. 풍년드는 것이 십 년 동안이나 이젠 오래 풍년이 들지 못 허여. 몇 년 만 풍년 들면 다음은 흉년이라.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춤 한양 팔보적이란 말이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에, 그런데 이등박문이가 한국을 점령하려고 자기네 숲을 만들라고 서울역에 딱 내려서 남대문⁷진 차를 탄 왔지. 남대문에 딱 내리니까 걸어서 가겠다. 그 때 걸어오는데 아주 침통한 빛만 더허여. 조금도 웃거나 뭐 그런 게 없이 걸어서 오는데 침통허여. 그런데 광화문에 들어오니까 그젠³⁵⁹ 빙긋 허멍 웃어. 이등박문이가 나 중에 들어서. 어째서 그렇게 침통헌 빛을 떠우다가 광화문에 들어오니까 한 번 우스셨수과? 한 번 우스셨는데, 그거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서울은 춤 천하의 형세다. 그런데 광화문에 와보니까 인왕산하고 북악산 사이에 좀 비여 있더라. 그디가³⁶⁰ 좀 빠져. 그러니 활인삼천산(?)이 거기 못에 경복궁이 비치더라. 때가 오면 서울이 무너진다. 그 때를 기다려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 천하의 요새지만은 지리학상으로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좀 웃었다. 그래가지고 일본놈덜이 걸 판단을 허고 한국을 먹은 거란 말여. 게가지고³⁶¹ 지금 중앙청, 이걸 경복궁을 그 맥도 끊지만은 앞을 가로막는다. 가로막는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지어 버린거라. 게니까 그 중앙청에 가려서 경복궁은 앞을 못 보는거라.

그리고 지금 서울대학교가 있는 그 저 어디야? 그저 무슨 산. (조사자 : 관악산) 관악산. 관악산이 어떻게 불 형체, 불꽃이 일어나는 형체라. 저것이 안 좋으니까 해태를 세워야주게. 해태를 세우니까 해태가 세운게 그 불을 먹은 거라. 해태는 그

358) 너무

359) 그 때야

360) 그곳이

361) 그래가지고

래서 그 해태를 세운거라. 그 불을 먹을 라고 그래서 그 해태를 광화문에도 세워 놓은거라.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거라.

42. 낭이장군

계 보 자 : 강충희 (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4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뭔가 흥포를, 저 어떤 여자가 들어 갔는데, 흥포 속에 뭐 입고 갔는데, 거기 귀신이 붙어 갔더라고 귀신이 붙어 갔는데, 저 귀신이 어디 따라갔는가 허니까, 췌남이 집에 들어가는 거라. 그 췌남이 집에 들어 갔는데 한참 있으니까 막 폭소리가 나곡 그러는데 췌남이 돌이 그냥 막 죽었다는 거라. 그 때 낭이장군이 들어 가서, 제가 한 번 따님의 병을 고쳐 보겠습니다 허연. 낭이장군이 딱 간 옆이 아즈니까³⁶² 무서워서. 낭이장군이 워낙 직성이 세니까 귀신이 도망을 가버린거라. 낭이장군이 또 피하면은 또 와서 허곡 경 허곡 그러니까 할 수 없이³⁶³ 췌남이 사위로 맞은 거라. 그런데 그 나중에 사주팔자를 보니까 오래 살지 못허겠다. 이거 한명획이가 그 사위를 투박했는데, 한명획이가 그거 해지나 못 허지. 게서 춤 억울하게 죽은 거지. 그러니까 그 벌써 자기 운명을 나타낸거라. 백두산성 봐도, 이젠 두만강수 끝만들면은 백두산 돌이 다 칼 갈양 다해 불고, 두만강에선 물이 다 끓었는데, 세상 다 된 거 아냐. 세상 다 되었는데, 이 사름 살 수가 이서계?³⁶⁴ 못 산다 말여. 운명을 은연 중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시로써 나타내진거라. 경험 자기가 나타낼라고 험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새³⁶⁵ 나타내 버런.

362) 옆에 앉으니까

363) 할 수 없이

364) 있느냐?

365) 사이에

43. 홍역관

제 보 자 : 강충희 (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4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홍승원. 그 역관인데 홍역관. 역관이었지. 역관이엔 허민 통역관을 말하는 거라. 이조 선조 때 그 홍역관이라는 사름이 있었는데 홍승원이라. 홍승원인데, 그 중국에 사신으로 갈 땐 따라 가거든. 따라 가는데, 이 사름이 혼 번 중국에 그 역관으로 따라 갔어. 따라 갔는데, 밤에는 혼 번 중국 그 야경이나 구경하려고 이제 나와서 돌아 다니다가 어떤 청루에 들려서 이제 에 술도 한, 술이나 마실라고 이제 들어갔더니, 어떤 춤 귀한 아가씨가 나와서 술 시중을 허는데 보니까 춤 청루에 있을 사름이 아니라. 귀한 집안 규수인데 양반가의 규수인데, 도저히 이런 청루에 와서 몸을 풀려는 그런 부류가 아니다 말여. 경험 물어봤어. 내가 보전데, 당신은 이런 청루에 있을 사름이 아닌데, 어째 이런 청루에 있게 됐는가? 그 자초지정을 이야기 허는 거라. 자기 부모가 춤 이 북경에 과거를 보래 어머니랑 같이 다 세 식구가 왔는데, 갑자기 병을 얻어 가지고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나, 그래가지고 도저히 부모님 시체를 수습할 길이 없어 가지고, 춤 돈이 없으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어찌 할수 없어가지고 이제 몸을 팔아서라도 부모만큼 강장을 하여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청루에 돈 천냥을 받기로 하고 이제 오늘 밤 처음으로 손님을 봤습니다. 이렇게 허니까. 아 그러냐고 그러면은 내가 이 돈 천냥을 해 줄텐데, 해 줄테니까, 당신이 이 청루에 나가라. 아 귀가 번쩍허거든. 여자가, 아 세상에 이렇게 그 조선이란 자그만 나라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간이 크고 도량이 넓은 사름이 있는가. 홍통사는 공금을 갔다가 그냥 천냥을 빼어다가 그냥 그 여자에게 주고선 여자를 그냥 그 청루에서 나가게 험거라.

그래서 이 천냥을 가지고 여자가 수습을 해가지고 춤 부모를 감장허곡 했는데, 홍통사는 그 잊어버리고 그냥 돌아오니까, 공금 횡령죄로 옥에다 갇혔어. 거 죽여 버릴라고 해도 그 당신 중국말 허는 역관이 부족했기 때문에 옥에서 이제 그 징역

을 사는 거라. 사는데, 이 여자가 나중에 크게 되어 가지고 병조삼사랑이란 석성, 병조삼사랑이든 우리나라면 국방장관이다. 지금. 그런 병조삼사랑된 사람³⁶⁶이제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갔는데 이 은인을 만나서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에서 사신이 올 적마다 그 역에 나가서 조선에서 온 사람 중에 홍역관이란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 보는 거라. 근디 그 때마다 안 온다, 안 온다 하는데...

마침 우리나라에 임진란이, 이제 왜란이 터지니까 청나라에 구원병을 가야 되겠는데, 구원병이 가야 되는데, 아무도 갈려고 하지 않는다 말야. 가서 잘못 허민, 구원병을 얻어만 와지면은 이건 성공인데, 구원병을 청해오지 못 허면은 이건 사신이나 역관달이 그 활동이 부족했다 해가지고서 그 상당히 비탄을 받게 된 거라. 그러니까 아무도 역관은 나갈려고 안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리 말고 저 감옥에 있는 홍역관을 이런 기회에 보내면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이 잘 허니까, 다녀온 경력도 있고 그 사람을 보냈시다 허연. 자기는 가만히 감옥에서 옥살이 허는데 나오라고 해가지고서 석방을 해가지고 이 번에 구원병 청허래 가는데 따라 가라고 허니까, 아무려면 감옥살이 옥살이 허는 것보다야 낫겠지 허고 그냥 허고 어명이니까 따를 수 밖에 없지.

그저 춤 청나라에 아 명나라에 갔는데, 내리자마자 조선에서 오신 분 중에 홍역관이 계십니까 허니까, 아 내가 홍역관이다. 아 저를 따라 오십시오 그 이상허다. 아무도 날 따라 오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따라 갔다 말여. 이제 통사보고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해두고, 또는 여관에 가서 머물고 계십시오 해연 따라갔는데, 아 멋진 춤 으리으리한 그 저택으로 들어 간다 말여. 들어 가니까 싹 허게 이제 아셨는데, 아 멋진 귀부인이 와서 큰 절을 올리는 거라. 올리면서 아버님께서는 그 간 춤 별개 무량 하였습니까? 여태까지 춤 찾아 뵈 올리고 해도 찾아 뵈지 못 허고 그래서... 아니 나더러³⁶⁷ 어떻게 아버님이라고 허느냐. 저를 구해주셨으니, 저를 낳아 준거나 다름없으니 아버님이라고 모십니다. 언제 내가 구해 준 적이 없는데, 너를 구해줬다고 하느냐. 아 이제 보니까 옛날에 한 십여년 전에 이렇게 해서 저를 청루에서 구해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적은 있다. 그 때 그 여자가 바로 맥이냐고 아 그렇습니다. 무신 일로 이번에 중국에 오셨습니까 허니까. 아

366) 사람에게

367) 나에게

우리나라 좀 왜란을 닦쳐가지고, 좀 임금은 이주에 몸져 누워있고, 구원병을 청하
래 왔다. 지금 저의 남편이 병조삼사랑인데, 혼 번 말씀들 들어 보겠습니다. 헐, 기
다리고 계십시오. 헌데 저기서 음성한 대접이나 받고, 저녁 때나 되니까 병조삼사
랑 석성이엔 헌 사름이 퇴궐을 해가지고 춤 그 흥역관을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고
도헌³⁶⁸ 내력을 물으니까, 구원병을 청하래 왔다 이거라. 제가 한 번 힘쓰겠습니다
헐, 그 명나라의 황제를 설득해 가지고 이거 통역관이 통사보다도 더 춤 문예³⁶⁹
해가지고서 이제 구원병을 청해 가지고 그 비단 가져간 것도 비단 안 가지곡, 춤
선물이 기가 막히게 춤 많이 얻어 가지고 와서, 통역관을 그렇게 우리나라에 구원
병을 청해 오게 된 배경이 되었던 거든. 게서 그 사람이 있어났는데...

그 야사에 보민 그렇게 이면에는 역사가 돌아가는 이면에는 춤 역사가 밤에 이
뤄진단 말글지 그런 사름이 있어.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떠들썩 하게
헌 그런 일화가 있지.

44. 이순신 장군

제 보 자 : 강충희 (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4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이순신 장군이 그 왜군을 칠 것을 안 쳤다고 해가지고 명(命)을 어겼다고 잡아
들여 가지고서 사형선고를 받을 전데, 정탁이란 분이 장수를 죽이는 건 상사롭지
못합니다. 백의종군(白衣從軍)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쓸 일이 있으면 써야 됩니다.
이렇게 임금께 소(訴)를 올리니까, 임금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면 백의종군
허라 허연, 백의종군을 시켰는데. 나중에 또 왜군이, 왜란이 커니까, 다시 전장으
로 나가게 됐어. 그런데 손호가 아무리 봐도 일이 안 되거든. 전장으로 나갔는데,
그 손호가 이순신 장군을 딱 만나서 술잔을 하나 들고 잔 하나 들면서 장군님께
술이나 한 잔 권하려고 이렇게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아 그러냐고

368) 여기 온

369) 먼저

춤 고맙다. 그런데 장군님 앞에 물어볼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임금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죽일려고 했는데, 당신은 어째서 다시 그 임금의 말을 들어서 또 전장으로 나갑니까 이러니까, 나는 임금을 위해서 나가는게 아니라 이 조선이란 나라를 살려 놓기 위해서 나가는 거다. 나의 충성은 임금에 대한 충성이 아니고, 조선에 대한 충성이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충성의 개념이 달라진 거라. 옛날에는 임금 앞에 충성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했지만은 지금에는 충성의 개념이 달라진거지.

45. 상부상조

제 보 자 : 강충희 (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4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거기서 곧 좌의정도 부르고 우의정도 부르고 무슨 찬성 무슨 판사 다 부르면서, 하하 웃음 소리도 나고 한다 말여. 이 숙종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그럴 사름이 없는데 임금이 아닌 이상 그렇게 이제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한 이상허다 하면서 그 집엘 들어 갔어. 아 주인장 계십니까? 해서 들어 가서 이제 찾으니까, 어떤 수십 대의 중년 남자가 나와서. 으보시오 이렇게 허고 좀 앉는데, 아 지나가던 길손인데, 춤 불빛이 흘러나오니깐 잠시 들렸다고 이러니까, 아 올라 오시오 보니까 혼잔데, 아 술상을 차려 놓고 자기 혼자 술 마시고 있어서. 들으니까, 밖에서 들으니까 저 춤 이상헌 소리가 들리던데 그거 어떤 영문입니까. 이렇게 허니까 아 그러시냐고 내 나이 지금 사십인데, 내가 지금까지 글을 읽었는데, 내가 지금 쯤마 전에 과거가 되었던라면 지금 쯤은 내가 영의정이 돼 가지고서, 오늘 밤 나는 생일인데 내가 한 잔의 술로써 내 심기를 달래면서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도 해서 한 번 해 본 소리라고 허는 거라. 아 그러냐고 그래 수작을 해서. 그럼 글 어느꼬장 익었는데 허니까 물어보니까 뭐 사서 오경 뭐 이런게 다 통달하였다. 자기 신하덜 가운데도 별로 그렇게 학문이 높은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름 보니까 학문이 대단히 높으단 말이야. 하 이런 사름이 이제까지 과거를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등용을 헐라고, 내가 듣건데 이번은 부름날 별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 그렇습니까. 아 계른 별시 한 번 봐야겠습니다. 아 별시.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이 숙종대왕이, 제가 알기로는 별시라고 해서 뭐 별다른 시제가 아니고 거 갈매기 구찌 하나면 가서 맞히면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 때는 잘 해 보십시오. 작별을 해서 아 갈매기 구자만 맞히면 된다 허니까 이 사름이 갈매기 구. 갈매기 구. 막 자꾸 이렇게 행 땡기면서 갈매기 구만 부름동안을 다 읽는거라. 날마다 갈매기 구. 갈매기 구. 막 경한. 갈매기 구만 맞히면 이제 급제가 된다니가 그자 갈매기 구. 갈매기 구만 허는데.

아닌게 아니라 보름날은 그 시제하러 들어 간 거라. 가서 보니까 그 숙종대왕은 그 사름이 나타나기만 기다린거지. 기다리는데, 아 별시라고 허니까 아무한테 별로 알리지 않고, 그자 몇 사람만 아는 거거든. 아 그 사름이 딱 나타났는데, 그 막대로 이것이 무슨 자요? 이렇게 허니까 까먹어 버렸다³⁷⁰⁾ 말야. 그냥 그때까지 갈매기 구, 갈매기 구 허던 것이 그만 이것이 무슨 자요 허니까 탁 까먹었어. 옛날은 그 과거 헐라면은 우선 논(論)을 봤거든. 논. 논. 뭐 논하라, 그 정치 뭘 논하라. 다음에 책(策). 정책. 나라를 다스리고 허는 거 어떻게 허느냐. 논문은 그 지금 말하자면 논문이주게. 논문. 논문이고, 다음은 책, 다음은 시, 다음은 경, 뭐 경 다음엔 통. 이걸 봤어. 꼭 시만 잘 지어사³⁷¹⁾ 과거 되는 거 아니랴. 그 딱 막혔다 말이여. 근방까지도 갈매기 구. 갈매기 구. 허멍 오던 사름이 딱 막허니까, 야 이 늙이 그 보다가 답답해가지고 이게 무슨 자냐 말야. 허면서 그냥 막대로 탁탁 쳤어. 하 이거 똑똑헌 소리가 나니까, 독새기 구잡니다. 이렇게 헐. 아 갈매기 구찌를 독새기 구잡니다. 이렇게 허니까 아 임금이 허 고안지고 허면서 나가라.

아 나오니까 아이구 갈매기 구자를 몰라서 독새기 구자라 해졌다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아자서³⁷²⁾ 그 궁문 밖에 아자서 대성통곡을 허곡, 그냥 춤 내가 이럴 수가 있냐고 땅을 치면서 한탄을 허는데, 어 누구 또 불려고 또 다가 오면서, 아 어떤 사름이 이렇게 궁 밖에 앉아서 이렇게 대성통곡을 허느냐. 아 당신이나 가서 합격을 허시오 나는 갈매기 구자를 몰라 가지고 그만 까먹고 독새기 구자라

370) 잊어버리다

371) 지어야

372) 앉아서

고 했으니, 그게 그만 틀려서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오 당신이나 가서 합격 하시오 아 그러시냐고, 어디 가질 말고 좀 기다리라고 아 그 사람이 가더니 또 역시 임금이 이게 무슨 자냐 허니까 아 그 선비도 독새기 구잡니다. 이게 어제 독새기 구자냐? 예 이게 서울에서는 갈매기 구지만은 지방에서는 독새기 구자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아까³⁷³⁾ 선비도 맞은게 아니냐. 아닌게 아니라, 지금 궁 밖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찾아 와라. 그래서 거기서 서로 돕고 서로, 에 뭐 허다 해서 상부상조 서로 돕고 붙들어 준다 해서 상부상조란 말이 거기서부터 나온 말이라.

46. 초 장 왕

제 보 자 : 강충희 (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4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장왕이 오폐 중에 한 사름이거든. 헌디 혼 번은 신하를 데리고 연회를 베풀었어. 신하를 데령 혼디해서³⁷⁴⁾ 연월 베푸는데,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헌디. 그 임금이 상당히 호탕하고 호강하여. 사소한 일에 그렇게 뭐 짜짜걸지를 앓는 임금이랴. 그런데 한 번은 어떻게 됐나믄, 그 날이 어둡으니까 불을 켜질 말고 그대로 술을 마셔라. 이렇게 했거든. 그리고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애첩도 다니면서 다 신하덜에게 술을 따라 주라. 그런데 어두운 밤에 이렇게 마당에서 궁궐 마당에서 술을 따라 주는데, 그 임금 애첩이 너무나 아름답거든. 그러니까 그 술김에 어떤 한 신하가 그 임금 애첩을 푹 안아 붙었어. 술 따라 줄 때. 푹 안아 부니까, 이 고얏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갓을 썼으니까, 갓을 썼는데, 갓끈을 딱 잡아³⁷⁵⁾ 끊었어. 그 여자가 끊어 놓고 술을 따라 주고 난 다음에 임금한테 가서 보고를 하는 거라. 어

373) 방금 전

374) 함께해서

375) 잡아 당겨서

면 신하가 저를 끌어 안고 허길래, 옆이 갓끈을 끊고 왔습니다. 아 그 다른 사람 곁으려면³⁷⁶⁾ 그 사람이 영웅지물, 영웅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괴씸한 짓을 했느냐 해가지고, 그냥 잡아 족칠 건데, 그 장왕은 그렇지가 않았거든. 그 뭐 술김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신하들에게 명해서 지금부터 갓끈을 다 끊어라. 갓끈 있는 사람은, 나중에 갓끈이 있는 사람은 엄벌에 처하겠다. 갓끈을 다 끊으라. 경한 누가 했는지 보니 모르잖아. 그 애첩도 아꼈지만은 그 신하덜 아끼는 마음에서³⁷⁷⁾ 그랬거든.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르게 해서 그자. 그렇게 신하덜을 아꼈는데….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제나라하고 전쟁이 붙었거든. 전쟁을 붙을 땐데, 위급한 지경에 당했는데, 그 어느 한 신하가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장왕을 구해 냈어. 구해 내가지고서 왕께서는 돌아 가십시오 저는 과거에 술자리에서 이렇게 갓끈을 끊긴 그 때 신하입니다. 아 그러냐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갚아 준거라. 갚았는데, 춤 그렇게 도량이 크고, 그렇게 사소한 일에 뭐 허지 않으려면, 춤 그 베풀거 만큼 자기에게 돌아 온다 이런 일이 있거든.

47. 한 식

제 보 자 : 강충희 (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4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지금 보니까 저 한식 명질 허잖아— 이. 이게 실은 중국에서 나온건데. 계자추라는 사람이 이제, 계자추가 그 집문관이라고 중이란 사람을 데리고 망명을 헌 때. 하도 배가 고프니까, 어느 길을 지나갈 때. 농부들이 그 밭을 갈면서 흙덩이를 부수면서 이제 뭐 헌거라. 밥을 먹고 있어. 가서 밥을 좀 얻어 오라 허니까, 가니까, 우리가 지나는 길손인데 밥이나 주십시오 허니까, 이 못 된 놈덜야. 당신네도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을 것이지, 무슨 때민에³⁷⁸⁾ 남의 밥을 얻어 먹으려고 하느냐. 허

376) 같으려면

377) 마음에서

378) 때문에

면서 흙을 한덩어리 탁하게 던져 주면서, 가서 거 가정³⁷⁹⁾ 농사나 지으라고 가니까 그걸 들러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서 저 밥은 안주고 흙만 던져 줍니다. 저 놈덜을 잡아다 죽치라 허니까, 계자추란 사름이, 그게 아닙니다. 농부가 흙을 던져 준 것은 마찬가지로 하늘이 땅을 던져 준건데, 이것은 후일 제위에 오를 그런 증거니까 오히려 흙에 절을 해가지고 받으십시오 이렇게 계자추가 진압을 했어. 그러면서 잠시만 묵으시면 제가 가서 밥을 얻어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자기 엉덩이에 살을 꿰어서 그걸 국을 끓여 가지고 와서 임금께 바친거라. 밧쳐가지고³⁸⁰⁾ 자기는 모른 척 허고 그걸 치료만 해가지고, 이제 그 임금이 그 국을 맛있게 먹었어.

먹었는데 그 때 살아가지고선 드디어는 진나라로 돌아가서 임금이 됐는데, 아 공로상해서 상을 주는데 계자추만 빠졌어. 계자추만 빠졌는데, 계자추는 산에 숨어 불었거든. 숨어가지고 상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이축³⁸¹⁾ 해가지고 있는데, 계자추를 좇아 오라고 허니까, 계자추가 산에서 나오질 안 허여. 불이나 지드면 나 올 걸로 봐서. 산에 불을 지뒀어. 그러니까 계자추가 나오지 않고 그 산에서 타 죽어 분거라. 타 죽으니까, 내가 안 죽었다 해가지고서 그 계자추를 길이는 밑에서 그 한식날 만큼은 다 찬밥을 먹고, 불을 금했거든.

이것이 중국에서 온 건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조상을 모시자 해가지고 한식을 허다가 지금은 한식이 없어진 건데 이렇게 해서 한식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라.

48. 사주팔자

제 보 자 : 강충희 (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4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379) 그것으로 해서

380) 받쳐서

381) 이처럼

황정승이란 정승이 하나 있었어. 그 디 무남독녀 외뿔이 하나 있었거든. 겐데 딸을 너무 아끼다 보니까 이 아이 장래가 어떻게 될까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다 좋긴 좋겠습니다만은 시집을 두 번 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수가³⁸²⁾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볼었다 말여. 어머니가 아 그걸 듣고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게 아니냐. 어떻게 과수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안 되겠느냐. 한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거 참 어렵습니다. 거³⁸³⁾ 얘기해 달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두 번 시집을 갈 팔자니까, 어디 가서 거러지³⁸⁴⁾ 못 된 놈이라도 데려다가 하룻밤만 신방을 차려서 해 두고, 했던 그 남자를 죽여 버리면은 됩니다. 그런대로 해지면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 말여. 그러니까 그렇게 허겠다 해가지고

마침 그 때 경상도 청년이 서울에 과거 보러 왔다가 갈 때도 없고 해서 어디 한강변에 인근에 가서 낮잠을 자고 과거 날만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아 당신 이래 오시오 이래 오시오 허여네 아 태워서 이제 아 정승 집으로 들어간다 말여. 어 이상하다 허연 그러는데, 아 그날 밤 그 집에 아주 귀한 규수하고 동침을 허라 이거라. 거 이상하다. 참 이럴 수도 있는가. 그런데 새벽 녀이 되니까, 아 여보 젊은이 나오시오 나오시오아 그러는데 아 이 여자가 생각허기를 그래도 하룻밤을 자고, 만리장성을 쌓는다는데, 어떻게 내가... 이 남자는 나가면은 죽을전데, 차마 죽일 수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자기가 가졌던 폐물을 남자에게 주는거라. 당신 이거 가져 가시오 가서 위급할 때 쓰시오 그거 빨리 나오라고 성화지. 밖에서는. 그래 주니까 그자 이것도 받았어. 받아서 나가는데, 아 가마에 태와 가더니만 또 한강변에 가서 그냥 죽여 버릴려고 허는거라. 그냥 몸에도 돌을 달고 그냥. 그래가지고 아 한강 가운데 가서 그냥 빠트렁 죽일라고³⁸⁵⁾ 한다 말여.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말이 당신네 날 뭐 때문에 죽일라고 하느냐. 당신 주인보고 가서 이렇게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면 될텐데, 제발 날 살려달라. 해서 그 비너허고 뭐 가라지 같은 폐물을 주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허는데 굳이 죽일 필요있어? 그 사람 가서 죽여 없애 버렸다고만 가서 보고

382) 과부

383) 그것을

384) 거지

385) 빠들러서 죽일려고

만 하면 될텐데. 그건 황정승은 모르고 황정승 부인만 아는 일인데, 아 이젠 아 그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인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저 한강물에 간 던져 불었습니다. 이렇게 헨 보고를 해 분거라.

황정승은 사위감을 골라야 될텐데. 원 이번에 급제하는 놈 아무 놈이라도 이 번에 장원급제 허는 놈 허야겠다. 그렇게 믿음먹고 있는데, 과거 날이 돌아 왔어. 아 이 놈이 과거를 허니까 장원 급제 했어. 그러니까 경상도 아무 개는 가지 말고 내 집에 들려라. 이렇게 했거든. 아 그러니까 이젠 거 훑아간 들리라 해서 따라 간 보니까, 어젯밤에 아 며칠 전에 자기가 잤던 집이라. 그래서 그 여자하고 박년 회로가 된 살았는데, 이진 사주팔자에 맞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게.³⁸⁶⁾

49. 황 회 정 승

제 보 자 : 강충희 (남·60세, 금덕리 2019번지)

조사일자 : 1995년 8월 4일

조사장소 : 금덕리 노인회관

황회정승은 워낙³⁸⁷⁾ 총명해 많이 그 무얼 받지도 않고 이러는데, 그 김종서 장군을 나라에 큰 동량(棟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름을 이제 키울라고 참 다른 사름안테는³⁸⁸⁾ 상당히 인자하면서도, 김종서 장군 앞에는 상당히 엄해. 김종서 장군이 절도사로 있다가 내직으로 와서 이제 판서를 맡을 때, 그 한영제(?)에서 나온 꼴을 가지고 황회 정승 앞에 가니까, 당장 그냥 호통을 치면서, 에 이게 판서나 되는 사름이 이런 뇌물단지나 들고 다니면서 정승 집을 훑아다니는 게 이게 안되었다 해가지고, 그냥 그자리에서 대신 종놈을 때린거라. 이렇게 엄한 사름인데.

훈 번은 산보를 나왔어. 영³⁸⁹⁾ 나와 보니까, 아 묘자리가 하나 있거든. 하 여기

386) 것이다.

387) 매우.

388) 다른 사람에게는.

389) 이렇게.

묘를 썼으면 묘 하나 하겠는데, 허지만은 오 대 손이 나야 과절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증얼거리면서 허는데, 이말을 들은 그 동네 한 젊은이가 자기 오대조 할아버지를 이 묘를 해다가 거기다 썼어. 아 그걸 보고서 황희정승이 뭐랜 춤 세상에 별 놈 다 있네. 뭐 산만 썼다고 과거가 되나? 까치 가마귀가 집을 지어야 이제 허지. 아 이렇게 해붙었어. 아 그러니까 이 놈이 나무에 올라가서 까치 집을 지은거라. 황희 정승이 하도 기가 막혀서, 혼 번은 의정부에 그 확 나가서 아즌 후엔 웃었어. 아 세상에 별 놈 다 있네.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아 - 황희 대감이 뭐 상헌 거를 먹었나 보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허니까, 그 사끼를³⁹⁰⁾ 이야기 했어. 하 오대조 할아버지가, 아 오대 손 나면 발복하겠다는 그런 땅을 일렀더니, 오대조 할아버지 파서 물어서 헌 놈이 있더라고 아이구 뭇 좀 이 번에 황희정승께서 뭘 많이 봐셨나 보다 경헨. 그 사람이 벼슬을 쫓어. 거기까 아 그런 이제 또 있으니까, 아 그 까치 집을 지어야 된다고 했더니, 아 그 짓는 놈이 있더라고 하니까, 아이구 이거 벼슬 약한가 보다. 더 높여서 시켜줘야 헐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황희 정승 때문에 벼슬 혼 놈이 하나 있어서. 헌디 옛날 창랑한 분네가 있으면은 이제 그 덕을 보는 수가 있주게.

50. 도술부리는 입씨하르방

제 보 자 : 강세부(남·79세)

조사일자 : 1995년 8월 3일

조사장소 : 강세부 할아버지 댁(금덕리 2019번지)

그 옛날 당귀라고 진³⁹¹⁾ 낭³⁹²⁾있잖아, 당귀 그 낭. 그걸 잇안³⁹³⁾ 고만히³⁹⁴⁾ 알아

390) 그 젊은이의 이야기를.

391) 긴

392) 나무

393) 가져서는

394) 가만히

가지고 뭐시라³⁹⁵) 경문을 허면은, 고만히 있던 것이 지냥으로³⁹⁶) 낭이 과짜³⁹⁷) 일 어성 (조사자 : 주문을 외우면은?) 아 주문을 외우면 지냥으로 과짜 일어상. 또 남신³⁹⁸) 옛날 남신이라 했지. 낭, 남신. 남신을 나가지고³⁹⁹) 한참 경문을 허면, 남신들이 싸움을 붙어가지고 닭싸움을⁴⁰⁰) 허멍 그래났다고 그 저 물 밑에 그 하르방이 잘 간. 원 혼노시⁴⁰¹) 장수허지 못해네 죽어불었겐 허여. 아 그런걸 보면 물이 아니... (조사자 : 직접 보선마썸?) 아니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말이지. 뭐 우리야 아직은 당치. (조사자 : 어떤 성씨에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님. 그 분이 임씨 (조사자 : 임씨마썸? 요디 어디 물 근 처에 살아난 마썸?) 어. 경헌 사름이 이서서.

395) 무엇이라고

396) 자기 스스로

397) 나무가 수직으로, 나무가 위로 곧게

398) 나락신

399) 놓아가지고

400) 닭싸움을

401) 그렇게 오래

信仰

目次

1. 개 관
2. 민간 신앙
3. 공인 종교
4. 개인 신앙

1. 개 관

금덕리는 두 개의 자연 취락이 한데 어우러져 마을을 이룬 제주도 전형적인 중산간 취락의 하나이다. 행정구역상 유수암과 거문덕이의 두 마을이 '금덕'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었지만, 각각의 마을 특성이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신앙까지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

금덕리에는 공인종교로서 불교가 있고, 민간신앙으로 유교식 포제와 무속신앙이 있다.

불교의 경우는 대부분 극락사라는 절의 신도가 많다. 4·3사건과 새마을 운동 등으로 말미암아 당이 많이 소멸하게 되고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지게 되자 당을 다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불교 신자가 되었으며 마을과 가까운 상귀리의 극락사에 많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락사는 금덕리내에 소재하고 있는 절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금덕리민에게는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민간 신앙의 경우는 유수암과 거문덕이의 두 마을에서 각각 다르게 행해진다. 즉 유수암에서는 유교식의 포제가 행해지는 반면, 거문덕이에서는 큰당에

서 무교식이 많이 가미된 형태로 나타난다.

새마을 운동 시기인 1975년 이후에 당이 많이 없어짐으로 해서 현재 남아 있는 금덕리의 당으로는 유수암에 있는 유수암 당과 거문덕이의 할망당과 하르방당 이렇게 3개 뿐이다. 이처럼 남아 있는 당 역시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유수암 당의 경우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금덕을 거문덕이와 유수암의 두 마을로 편의상 구분하고 그 마을 신앙을 살펴 보고자 한다.

2. 민간 신앙

일반적으로 민간신앙을 분류할 때는, 기도하는 대상이 부락이나 개인이나에 따라 부락신앙과 개인신앙으로 구별된다. 부락신앙은 다시 남성중심으로 유교식 제사방법에 따라 제를 지내는 儒式部落信仰과 당을 중심으로 무당에 의해 진행되는 巫式部落信仰이 있다. 전자에는 포제나 마을제 등이 들어갈 수 있고, 후자에는 본향당을 기점으로 진행되는 당굿이 있다.)

1) 포제

유수암의 포제는 거의 전형적인 유교식이라고 할 수 있다. 포제의 제의장소는 이 마을의 역사적 사건이랄 수 있는 4·3사건을 계기로 하여 여러번의 이동을 하게 된다. 즉 처음에는 포젯동산에서 하였으나 4·3사건이 일어나자 포젯동산이 성밖에 있는 까닭으로 그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마을에 있는 '당아즌밭'이라는 곳에서 里社之神에게만 2년 동안 제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4·3사건이 끝나자 포제동산에서 醮神과 里社之神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두 신의 역할은 각각 다르다. 里社之神은 토지를 관장하는 신으로서 마을의 안녕을 관장하며, 일년 농사가 풍년이 들도록 해주는 등, 마을의 모든 곡식과 과일을 관장하며, 질병 예방에도 관여한다고 한다. 포신은 그 마을을 통치하는 신인데 단

1)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회, 『백록어문. 제7집(고산리 학술조사보고), p.267.

지 마을에 해를 끼치지 말아 달라는 의미에서 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사가 주 생업이었던 이 마을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里社之神을 더 잘 모셨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行祭時에 술잔을 올리는 순서 역시 里社之神에게 먼저하고 그 다음 포신에게 올린다고 하며 여자들은 참석을 하지 않는다.

(1) 祭名 : 醮祭

(2) 祭神 : 醮神, 里社之神(土地之神)

(3) 祭日 : 처음에는 정월에 里社之神에게, 칠월에 포신에게 이렇게 두 번 제를 지내다가 요즘에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를 간소화시켜서 정월에 포지신과 里社之神에게 제를 한 번 지낸다고 한다. 정월 초 丁日에 지내는데, 마을에 부정한 일이 있거나 다른 사정이 생기게 되면 中丁日 또는 亥日 연기한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는 자시 즉 밤 한 시에 지내게 되며 약 40분 정도 걸린다.

(4) 祭費 : 마을 향회비나 결혼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동접례, 혹은 객지에 사는 사람들이 회사한 비용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동접례로 받던 돈은 20냥이며 오늘날 의 약 5,000원 정도이다. 또는 각 호마다 한 두 냥씩의 돈을 걸어서 마련하기도 했다. 예전에는 향회 비참석자로부터 좁쌀이나 보리쌀 한 되를 벌금으로 받았다고 한다.

(5) 儀式節次 및 方法

① 醮祭 鄉會 : 포제 일주일이나 10일 전에 공회당에 모여 제관을 선출하고 제비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정성하는 전사관집을 이때 결정한다. 제관의 선출을 보면 일단 전사관과 초헌관을 사전에 이장에게서 선임권을 위임받아 정하게 된다. 이때 성씨별도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원칙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고려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이가 적을 수록 아랫 제관이 되며 대축은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사람이 맡게 되며 요즘에 젊은이들이 시내로 떠나 버려서 아랫 제관을 뽑을 때 문제가 많다고 한다.

② 祭官 : 祭官은 모두 14명으로서 다음과 같다. 그리고 찬인이 없는 것이 특색이다.

- 初獻官 : 祭官

- 亞獻官 : 祭官

- 終獻官 : 祭官

- 執禮 : 지휘관 (홀기를 읽는 사람)
- 典祀官 : 제물을 준비하고 진설하는 등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것을 담당하는 사람
- 大祝 : 축문을 읽는 사람
- 講者 : 행제할 때 헌관을引導하는 사람
- 贊者 : 집례가 부르는 홀기에 보조하는 사람
- 奉香 : 향을 받드는 사람
- 奉爐 : 향로를 들어 받드는 사람
- 奉酌 : 헌관에게 술잔을 드리는 사람
- 司樽 : 행제 시에 술을 관리하고 잔에 술을 부어 주는 사람
- 典酌 : 헌관이 드리는 술잔을 신위에 올리는 사람
- 都豫差 : 예비제관

③ 笏記 : 홀기란 제를 지내는 절차와 각 절차마다 해당 제관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제의방법을 기록한 문서이다. 里社之神과 포신의 兩神에게 제를 지낼 경우 홀기는 하나로 부르면서 里社之神에게 먼저 술잔을 드리고 그 다음 포지신에게 술잔을 드리는 형태로 제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우수암 포제의 홀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西紀 〇〇年 陰正月 十六日 里社祭 笏記²⁾

講者引祝及諸執事入就拜位。四拜。祝以下皆四拜。鞠躬拜。(興)平身。詣盥洗位。西向立。盥手。各就位。講者引 獻官 入就拜位。講者進初獻官之左。白有司謹告請行事。四拜。獻官皆四拜。鞠躬拜興平身。行奠幣禮。講者引初獻官詣盥洗位。西向入。搯笏。盥手。執笏。引詣里社神之位前。南向立。詭搯笏。三上香。獻幣。執笏。俯伏興平身。次詣醴神之位前。南向立。詭搯笏。三上香。獻幣。執笏。俯伏興平身。引降復位。行初獻禮。詣講者引初獻官。詣里社神之位樽所。西向立。執樽者舉纂酌酒。引詣里社神之位前。南向立。詭搯笏。獻爵。執笏。俯伏興退詭。讀祝。俯伏興平身。次詣醴神之位樽所。西向立。執樽者舉纂酌酒。引詣醴神之位前。南向立。詭。讀祝。俯伏興平身。引降復位。行亞獻禮。講者引亞獻官詣盥洗位。西向立。搯笏。盥手。執笏。引詣里社神之位。樽所。西向立。執樽者舉纂酌酒。引詣里社神之位前。南向立。詭。搯笏。獻爵。執笏。俯伏興平身。次詣醴神之位。樽所。西向立。執樽者舉纂酌酒。引詣醴神之位前。南向立。詭。搯笏。獻爵。執笏。俯伏

2) 제보자 강충희씨. 다음에 계속되는 祝文도 강충희씨로 부터 입수한 것이며 原文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興平身. 引降復位. 行終獻禮. 謁者引終獻官. 詣盥洗位. 西向. 擗笏. 盥手. 執笏. 引詣里社之神位. 樽所. 西向立. 執樽者舉罇酌酒. 引詣里社之神位前. 南向立. 詭. 擗笏. 獻爵. 執笏. 俯伏興平身. 次詣醮神位樽所. 西向立. 執樽者舉罇酌酒. 引詣醮神位前. 南向立. 詭. 擗笏. 獻爵. 執笏. 俯伏興平身. 引降復位. 飲福. 受俎. 謁者引初獻官. 詣飲福位. 東向立. 詭. 擗笏.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受爵飲卒爵. 以授執事者. 執事者受虛爵. 執事者以俎授獻官. 獻官受俎以授執事者. 執事者受虛俎. 執笏. 俯伏興平身. 引降復位. 四拜. 獻官及在位者皆四拜. 鞠躬拜(興)平身. 徹籩豆. 四拜. 獻官及在位者皆四拜. 鞠躬拜(興)平身. 望燎. 謁者引初獻官詣望燎位. 東向立. 蓋燎. 謁者進初獻官之左. 白禮畢出. 初獻官以下. 以次出. 謁者引祝及諸執事. 俱復拜位. 四拜. 祝以下皆四拜. 鞠躬拜(興)平身. 祝以下次出.

해석 :

서기 1990년 음력 정월 십육일 리사제 홀기

알자가 축문과 모든 제관을 인도하여 배위(절을 할 곳)로 나아간다. 축이하 제관에 내뉘는 국궁배로 절한다. 일어난다. 되돌아와 서쪽을 향하여 손을 씻는다. 각자 자신의 위치로 나아간다. 알자가 배위장소로 들어가서 헌관을 인도한다. 알자가 초헌관의 왼쪽으로 가서 “여기 있는 제관들이 행사를 청하여 고합니다.”고 아 된다. 내뉘 절한다. 헌관 모두가 내뉘 국궁배로 절한다. 일어난다. 나아가 폐백을 올린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한다. 초헌관이 서쪽을 향하여 홀을 조복의 대에 꽂고 손을 씻는다. 홀을 집고 里社之神位에 이르른다. 남향으로 서서 무릎을 꿇은 후 홀을 다시 조복의 대에 꽂은 후 향을 피운 다음 폐백을 올린다. 홀을 집고 고개숙여 엎드린다. 일어난다. 다음에 醮神 앞에 이르러 남쪽을 향해 선다. 무릎을 꿇고 홀을 조복의 대에 꽂은 후 향을 피운다. 폐백을 올린 다음 홀을 집은 후 고개 숙여 엎드린다. 일어난다. 내려와 제 위치로 돌아간다. 초헌관이 알자에게 인도되어 이르르면 술잔을 든 사람이 술을 따른 다음 里社之神 앞에 이르른다. 남향으로 서서 무릎을 꿇고 홀을 조복의 대에 꽂은 다음 술잔을 올린 후 홀을 집고 엎드려 절한다. 축문을 읽는다. 고개숙여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다음에 醮神之位 樽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술잔을 집어든 사람이 술을 부어 들어 올린다. 인도되어 醮神前에 남향으로 선다. 무릎 꿇고 축문을 읽은 다음 고개숙여 엎드린다. 일어난다. 제자리로 내려온다. 알자가 아헌관에 이르른다. 아헌관이 서향하여 서서 홀을 조복의 대에 꽂은 다음 손을 씻은 후 홀을 들어 里社之神 위에 이르러 준소의 서쪽으로 서서 술잔을 들면 술을 따르고 里社之神 앞의 남향으로 서서 무릎을 꿇고 홀을 조복의 대에 꽂은 다음 술잔을 올린다. 고개숙여 엎드린다. 일어난다. 다음 포신위에 이르러 준소의 서쪽으로 서서 술잔을 따라 술잔을 올린다. 홀을 들고 고개숙여 엎드린다. 일어난다. 내려와서 제자리에 돌아온다. 알자가 종헌관에 이르르면 손을 씻는 곳으로 나아가 서향으로 서서 홀을 조복의 대에 꽂은 다음 손을 씻는다. 홀을 들고 里社之神位의 준소의 서쪽으로 서서 술잔을 들어 술을 따르면 里社之神 앞의 남향으로 서서 무릎을 꿇고 홀을 조복의 대에 꽂은 다음 술잔을 올린다. 홀을 집은 후 고개숙여 엎드린다. 일어난다. 다음

醮神位에 이르러 존소의 서향으로 서서 술잔을 집어들어 술을 따른 후 포신위 앞의 남향으로 선다. 무릎을 꿇고 홀을 조복의 대에 꽂은 다음 술잔을 올린다. 홀을 들고 고개숙여 엎드린다. 일어난다.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온다. 음복한다. 알자가 초헌관에 이르르면 초헌관이 음복할 곳의 동쪽으로 서서 무릎을 꿇는다. 홀을 조복의 대에 꽂는다. 그러면 집사자가 헌관에게 술잔을 드린다. 헌관이 술잔을 받고 마셔서 빈잔을 준다. 집사자가 빈 잔을 받고 안주를 헌관에게 드린다. 집사자가 비어있는 그릇을 받는다. 홀을 집어 든 후 고개숙여 엎드린다. 일어난다. 제자리로 돌아와 네번 절한다. 헌관을 비롯하여 위치에 있는 모든 제관들이 네번 국궁배로 절한다. 일어난다. 번두를 치우고 네번 절한다. 헌관 및 제관들이 모두 네번 국궁배로 절한다. 일어난다. 망료,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망료 자리에 이르러 동쪽으로 서서 불을 사른다. 알자가 초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 예를 마치니 초헌관 이하 모든 제관들에게 나오라고 이른다. 다음 알자가 축이하 모든 제관들을 인도하여 나아가 네번 절한다. 축이하 모든 제관들이 국궁배로 네번 절한다. 일어난다. 나간다.

④ 축문 : 금덕리에서는 포신과 里社之神의 두 신에게 제를 지내므로 축문도 역시 두 개가 있다. 그리고 각 신에게 고하는 축문의 기원내용 역시 이들 신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들 축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醮神之位

維歲次 癸酉正月 甲辰朔 二十四日 丁卯 里民代表 訓長 姜朝行
敢昭告于

醮神伏以 守疆護界惠我思德 休養生息有禱必格 多賴冥右
令當元正 致齊告由伏唯尊靈 特垂陰騭 天調風雨 地掃杜隲
添此吉祥 防彼癘疫 豐其百穀 殖其六畜 必從我民 除災降福
在家戶戶 增其農工 出他學務 添其疆福 一鄉之內 安平俱吉
庶幾來往 至誠伏祝 謹以牲幣 醴齊粢盛 庶品式陳 明薦于神 尙
饗

해석 :

포신은 세계를 굳게 지켜 주시고 내가 생각하니 덕이 은혜롭습니다.
생명을 관찰하고 필히 모든 의뢰한 것들을 깊게 도와주십니다.
오직 존중하여 절하오니 바르게 다스려 주십시오, 특히 비, 바람, 땅을 조화있게 하여 병해충을 없애 주십시오, 이에 더하여 전염병을 막아 주시고 백과가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육축을 불리시고,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재앙을 없애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집집마다 농공이 증가하고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학업에 열중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에 덧붙여 강복을 내려 주시고, 한마을 안이 두루 평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성으로 엎드려 기원합니다. 폐백과 단술을 희생으

로 바치고 깻밥과 여러 물건을 진설하여 신에게 드립니다. 흠향하소서.

里社之神

維歲次 癸酉 正月 甲辰朔 十四日丁巳 里民代表 訓長姜朝行
 敢昭告于
 里社之神伏以 護我衆民 司我一鄉 赫神之德 萬歲不忘 自當新正
 是用禋祀 自令二後 倍用懿德 雨順風調 歲熟人滋 勿慢瘼疫
 消滅災殃 俾我角靈 一切垂茲 神其來歆 保佑五方 於千萬年
 報賽無斁 謹以牲幣 醴齊粢盛 庶品式陳 明薦于神 尙
 饗

⑤ 齋戒 : 제청(전사관집)에 입소한 후 7일동안 정성하게 된다. 마을의 곳곳마다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길에 금줄을 치는데 보통 5일 전에 친다. 이는 부정한 자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제청에 입소한 제관들은 모두 공동생활을 한다. 이 기간에는 시체나 더러운 것을 봐서도 안되고 개고기, 말고기를 먹거나 성행위를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는 삼가며 특히 제관의 몸에 상처가 나서도 안된다. 그리고 이때 개소리, 쇠[牛] 소리나 닭소리는 귀신을 쫓아 버린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이 소리가 들리면 불길한 징조이고, 꿩, 말[馬] 소리가 들리면 길조라고 한다.

(6) 祭物, 祭器(사번, 사두) 및 祭服

祭器의 경우 마을에서 쓰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쓰는 그릇으로 전사관 나름대로 준비하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제기 및 제복을 마련했다. 행제 시에는 도포와 청금을 입는데, 이 청금은 파란 물을 들인 것이다. 요즘에는 흰것도 사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도포에는 술띠를 땀다.

① 도량서직 : <흰쌀, 좁쌀, 기장, 피>가 원칙이나, 요즘에는 흰쌀에 2그릇과 좁쌀에 2그릇을 준비하며 좁쌀의 경우는 하나는 흑색, 다른 하나는 노랑색을 준비한다.

② 녹포 : 녹포란 원래는 사슴고기 말린 것을 의미하는데 이곳에서는 녹포를 쇠고기로 대신한다.

③ 해어(어회) : 해어로는 명태를 준비하는데 里社之神에게만 올리고 土地之神에게는 쓰지 않는다.

④ 비자, 대추, 밤, 유자, 감, 배 - 5실과

⑤ 미나리(필수), 무우, 콩나물

⑥ 돼백(1필), 무명, 백지 1권

⑦ 犧牲 : 예전에는 회생으로 검은 돼지 한마리를 올렸는데, 특히 里社之神에게 온마리를, 포신에게는 머리만 올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里社之神, 포신에게 모두 각각 검은 돼지 온마리를 회생했는데, 요즘에는 흰 돼지 두마리를 잡아서 회생으로 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이 없다. 단지 경제적으로 나아졌기 때문에 두 신 모두에게 돼지 온마리를 올리는 것이다. 포신과 里社之神에게 올리는 제물은 같다.

제물 진설도는 다음과 같다. 단, 왼쪽에는 소금을 하지 않은 음식을 진설하고 오른쪽에는 소금을 한 음식을 진설한다.

祭物 陳設圖

里社之神
醕神之位

미나리	무 초	서 직 잔 돼백	간	도 초 량 잔 회생	포 잡실과	유자 사과, 배
-----	--------	-------------------	---	------------------------	----------	-------------

향로
모혈

(7) 포제단 형태



(8) 飲福

예전에는 제가 끝나면 전사관 집에 일단 모인 후 그 곳에서 마을 유지분들 중심으로 나눠 먹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제가 끝난 즉시 그 자리에서 음복한다고 한다.

2) 유수암 堂

유수암 당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4·3사건 직후 예전부터 신성시 되어오던 그 나무를 베어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당터를 바로 옆으로 옮겼는데 많이 축소된 실정이다.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고, 유수암당의 당터는 현재 운동장으로 쓰이고 있다.

4·3사건 직후까지 마을에 환인이라고 하여 심부름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심방역할을 하였는데 그 환인이 없어지자 이제는 심방도 없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1) 名稱 : 송씨 할망당

(2) 祭神 : 송씨 할망, 하르방, 산신, 제석할망

(3) 祭日 : 마을 단위의 당곳이 아닌 개인적 비님 위주이므로 일정한 제일이 없다.

(4) 祭場 : 당앗은밭

(5) 當 형태 :



(6) 祭物

① 메 : 4그릇을 준비한다. 송씨 할망, 하르방, 산신, 제석할망에게 각각 올리는 것이다.

② 생선 : 구운것(비늘있는 것), 3개

③ 돌레떡 : 이 곳에서는 돌레떡을 '다대'라고 부르며 여러 개를 준비한다.

④ 지전, 물색

(7) 祭儀 執行者 : 메인심방이 없이, 금덕리민 부녀자들이 개인적으로 심방을 빌려와 하기도 한다.

(8) 본풀이 : 거문덕이 송씨 할망당 참조

(9) 4·3사태이후 사고방식의 변화 즉 堂神의 靈力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당이 쇠퇴하였다. 즉 4·3사건으로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치게 되었는데 이런 일을 당에서 빌어보았자 아무런 효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 사유로 당신의 영력에 대한 실망과 함께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싹텄고 당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근래에 외지로 나간 사람들이 가끔씩 들르기도 한다고 한다.

3) 하르방당(거문덕이)

거문덕이에서도 포제를 지내지만 유수암과 함께 같은 하나의 마을로 생각하여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르방당에서 따로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지내는 포제는 유수암 포제와는 달리 무교적 특성이 짙게 깔려 있으며 당굿을 먼저 지낸 다음 나중에 포제를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포제시에 여자들은 참석하지 못했다.

祭日 전날에 초현관 집에서 자고 새벽 5시 30분에서 6시쯤부터 시작한다. 이때 큰 당에 도착한 다음에 제물을 진설하여 큰 곳으로 지내는데, 이 곳이 워낙 큰 곳이라서 아무 무당이나 하지 못하고 반드시 메인 심방이 도맡아 해야 했다고 한다. 이 곳 거문덕이의 경우는 강인봉씨 아버님이 메인 심방이었다는데 4·3사태 이후부터 강인봉씨가 맡아서 해왔으며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1) 名稱 : 큰당

(2) 祭神 : 불도지신

(3) 祭日 : 정월 초 정일

(4) 來歷 : 처음에는 당굿을 지내다가 일제 시대에 포제로 지내게 되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자 다시 당굿이 행해졌으나, 4·3사건 이후 堂力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다시 포제를 지내게 되었고 7년 전까지 계속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행해지지 않는다. 제차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하르방당에서 할머니를 청해오게 된다. 이때 아무리 청해도 할머니가 오시지 않으면 이것은 마을에 혹은 개인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징조로 여겼다고 한다

(5) 祭場 : 당오름밭

(6) 당 형태 :



(7) 祭物 : 당굿을 지낼 때와 포제를 지낼 때의 진설했던 제물이 다르다. 그리고 모든 제물은 각 가호마다 작은 되로 두 개씩 조나 콩을 가지고 오고 떡도 가져왔는데 이렇게 가져온 것을 초헌관 집에서 준비한다.

포제시 진설했던 제물은 유수암 포제와 동일하고, 제신만 다르므로 여기서는 당굿의 경우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메 : 3그릇(할망, 하르방, 산신)

② 떡, 과일, 폐백, 물색, 지전 등

(8) 祭儀 執行者 : 심방 서너명과 제관은 3명이다. 선달 보름에 정기총회를 열어서 제관을 결정하는데 3헌관만을 뽑는다고 한다. 이들 제관이 입는 도포들은 개인적으로 모두 준비하는데 대부분 집에서 쓰던 것을 사용하며 하루 전에 정성을 하고 준비한다고 한다. 그러고는 오전까지 큰 당에서 행해하다가 점심때가 지나서 할머니를 모셔다가 계속 제를 지낸다. 이때 액막이로는 닭 한 마리가 사용되며 희생은 포제 시에만 사용된다.

(9) 堂神의 來歷 : 송씨 할머니 3형제가 산지로 들어 왔다. 그 중에서 큰언니가 수산봉에 올라가서 그곳에 좌정을 했고, 나머지 두 자매는 다시 깨끗한 곳에 좌정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둘째 언니는 유수암 절산터에 좌정하고, 막내는 김동제 할아버지를 만나 부부로 지내다가 할아버지가 술과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하여 별거하고 남당밭에 좌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할망당이 되었고, 할아버지는 당오름에 그대로 좌정하여 하르방당이 되었는데 이를 큰당이라고 일컫는다.

4) 할망당(거문덕이)

(1) 名稱 : 송씨 할망당, 본향할망당

(2) 祭神 : 송씨 할망

(3) 祭日 : 일정한 제일이 없이 개인적 비념을 드리러 당을 찾곤 한다.

(4) 祭場 : 남당밭

(5) 來歷 : 하르방당과 동일하다.

(6) 祭物 : 메는 3그릇(할망, 하르방, 산신)을 준비하며, 생선, 미나리, 떡도 준비한다. 그러나 할망신의 경우는 고기, 술은 올리지 않고 송농을 올렸고 요즘에는 음료수로 대신한다.

(7) 祭儀 執行者 : 일정한 제의 집행자는 없고, 주로 마을 부녀자들이다.

(8) 당 형태 :



3. 공인 종교

0. 극락사

- (1) 名稱 : 태고종 극락사
- (2) 位置 : 1928년 백암스님이 창건하였다. 처음에는 극락봉 밑에 있었으나 4·3 사건 때 소개되었다. 그러다가 1957년 현 위치인 홀리데이 호텔 뒤쪽의 장수물 옆 상귀리에 재건된 것이다.
- (3) 建物 : 대웅전, 칠성각, 종각, 고힌담(외로운 혼을 달래는 곳)
- (4) 信者 : 총 700여 세대, 3,500여명이다. 그 중에서 2/3가 금덕리 주민이며 나머지는 제주도 서부, 한림 등지에서도 찾아 온다. 그리고 여자 신도가 남자보다 500여명 정도 더 많다.
- (5) 行事 : 타 절과 동일하나, 매달 첫 일요일에 법회를 연다는 것이 다르다.
- (6) 큰 스님 : 월명스님(74세)

4. 개인 신앙

4·3사건 이전에는 조왕제, 칠성제, 토신제 등을 유수암이나 거문덕이나 집집마다 많이 했지만. 사태 이후 쇠퇴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하는 집이 거의 없다. 예전에 행해지던 제의 중 토신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토신제는 집짓기 전에 지내는 것으로서 진설하는 음식으로는 조메 2그릇, 흰쌀메 2그릇과 과일로서 당유자, 배 등이 쓰였다. 그리고 명태전과 쇠고기가 제물로 사용되었으며 바다고기도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비늘있는 것을 날것으로 올렸고, 별다른 손질없이 배만 조금 가른 다음 올렸다고 한다. 그리고 축문도 읽게 되는데 축문 읽는 사람은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축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빌어서 제를 지냈으며, 제의 기간은 단 하루이다.

다음으로 문전제를 살펴 보겠다. 문전제는 제사 전에 또는 제를 지낸 후 행해지

는 제의로서 지금도 지낸다. 일단 대문에 상을 놓고 그 위에 재물을 차려 놓는다. 재물로는 떡, 과일 짓갈, 채소, 고사리 콩나물 등을 준비하여 올리며 메만 올리고 갯은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칠성제이다. 집집마다 칠성제를 지내지는 않지만, 절간의 칠성단에서 칠성제를 지낸다고 한다. 제일은 대부분 음력 정월 중 택일한다.

제보자

* <유수암 포제 및 당>

강추자(여 · 52세) 강원학(남 · 88세) 강충희(남 · 60세) 강의삼(남 · 86세)
강공휴(남 · 60세) 강조행(남 · 71세)

* <거문덕이 당굿>

고석한(남 · 58세) 강우생(여 · 80세)

* <개인신앙>

이숙열(여 · 74세)